

# 다르마 칼리지 우수 에세이 선집

『동국에서 시작한 나의 삶, 나의 글』 제 7집을 펴내며



동국대학교 | 다르마칼리지

## 최우수상

-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 ... 3  
김수영의 제3자야 알아보기 김태민

## 우수상

- 자기표현 글쓰기 ... 15  
세제와 엄마의 삶 강혜리
- 실용 글쓰기 ... 20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하는  
월경권 보장 방안 김소진 외 4명
- 존재와 역사 명작 세미나 ... 36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탐색 홍석우
-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 ... 43  
인간의 이성(지성)과 불평등 사회의 필연성  
노희연

## 장려상

- 자기표현 글쓰기 ... 51  
된장찌개 한건희
- 실용 글쓰기 ... 55  
대학생들의 연애담 공모전 박세은 외 4명
- 학업 기초 글쓰기 ... 71  
구멍의 존재론 송호정
- 학업 기초 글쓰기 ... 77  
무엇을 기억하고 사랑할 것인가 추단비
-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 ... 84  
우리가 채우는 것들 김예림
- 자연과 기술 명작 세미나 ... 90  
무병장수를 향한 과학의 질주 임수현
- 존재와 역사 명작 세미나 ... 97  
한국의 세계시민 교육과 현실 이윤하
-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 ... 104  
『외투』와 『필경사 바틀비』의 공통점과 그 안  
에서 본 새로운 해석 곽윤진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최우수상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

### 김수영의 제3자아 알아보기

- 김수영 전집 속 작품들을 다시 훑아보며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김태민

---

#### I. 서론

지금까지 알던 김수영을 파괴(破壞)하며

#### II.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 III. 본론

그동안 찾아 놓았던 김수영의 자아와 새로운 제3의 자아 찾기

1. 제1자아 - '적극적인 정치관의 표현'으로서의 김수영
2. 제2자아 - '자기반성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로서의 김수영
3. 새로운 제3자아의 탐색 - 김수영의 산문과 함께 훑아보며
  - (1) 제3자아와 김수영 산문
  - (2) 제3자아와 김수영 시
  - (3) 소결론 - 김수영 산문과 김수영 시, 그리고 제3자아

#### IV. 결론

다시, 김수영을 훑아보자

## I. 서론 : 지금까지 알던 김수영을 파괴(破壞)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소재의 김수영문학관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 전시된 동으로 만든 듯한 김수영 흉상을 둘러싼 유리벽 하나에 이런 글귀가 있을 것이다.

“모든 언어는 과오다. 나는 시 속의 모든 과오인 언어를 사랑한다. 언어는 최고의 상상이다.”

- 산문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열 개>-

필자가 본 글귀를 봤을 때였다. 이때부터였을까? 필자는 김수영문학관에 가는 길에서 상상한 문학관 내 김수영의 모습이 깨지는 신선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수영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치·사회적인 요소들에 대해 누구보다 직설적으로 시로 이야기하는 시인의 모습, 아니면 자기 반성의 태도를 가진 소시민의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시 속의 시인의 모습의 전부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필자는 김수영을 다시 보고, 제3의 자아를 탐색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본 에세이에 담아보고자 한다.

## II.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sup>1)</sup>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자는 이 점을 잠시 알리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 수능 문학 문제 중 <보기>가 포함된 어려운 3점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시문학에 나오는 ‘나’라는 시적 화자가 시인이라는, (하나의 등식으로 풀어보자면) ‘시인=시 속의 ‘나’라는 공식으로 시를 많이 바라본다. 하지만, 시는 의외로 이러한 간단한 공식을 깰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페르소나(Persona)’이다. 필자는 이러한 요소가 있기에 시의 내용이 더욱 다양해졌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T.S. 엘리엇은 시의 세 가지 목소리를 ‘시인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시인의 목소리, 한 청중에게 말하는 시인의 목소리, 그리고 시인이 만들어낸 극중 인물을 통한 시인의 목소리’로 구분하였다. 그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시인이 청중(또는 관객)에게 말을 거는 관계가 성립되는데, ‘페르소나’의 개념은 세 번째 목소리가 그것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인과 시 속 화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의 통념상 인식인 두 번째 목소리만을 고집하며 읽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본 에세이를 위한 탐구는 두 번째 목소리인 ‘시인 = 시 속 화자’의 공식이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본 탐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해석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김수영 전집 2』의 산문을 일부 인용하여 필자가 탐구한 김수영 시 속 제3의 자아를 설명하고자 함을 알린다.

1) 본 내용은 2019-2학기 우리 대학 박형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님의 ‘시창작연습2’ 5강 ‘페르소나 만들기’의 강의자료를 일부 인용 및 필자가 요약함.

### III. 본론 : 그동안 찾아 놓았던 김수영의 자아와 새로운 제3의 자아 찾기

#### 1. 제1자아 - ‘적극적인 정치관의 표현’으로서의 김수영

필자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이들로 하여금 ‘김수영 시인’은 ‘당대 정치에 대해 직설적으로 시에 표현하려는 시인’으로 각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은 그저 많은 이들의 통념에서 넘어가지 않고, 문학 내 많은 이들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정민구(2016)는 자신의 문학박사 학위논문 「김수영과 조태일 시의 정치성 비교 연구 - 4·19 관련 시를 중심으로」에서 4·19가 발발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쓰인 시인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에서의 표현 양식에 집중하면서 “장시임에도 불구하고 행간을 통해서 표출되는 급박한 호흡은 그가 얼마나 큰 감격과 흥분의 상태에서 시를 써내려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sup>2)</sup>다고 보고, 이러한 ‘감격과 흥분’의 이유를 박수연(1999)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급박한 호흡으로 만들어낸 “화자의 호명은 비가시적인 존재들에 대한 단순한 명명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들을 가시적으로 출현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는 시적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김수영은 4·19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자신의 시적 인식을 비가시적인 존재들의 이

시어	해당 작품	편수
웃다 + 웃음	『웃음(1948)』, 『시골 선물(1954)』, 『나는 언제부터 세상과 배를 대고 서기 시작했느냐(1955)』, 『거리2(1955)』, 『바뀌어진 지평선(1956)』, 『지구(1956)』, 『생활(1959)』, 『동아(庚夜)(1959)』, 『하…… 그림자가 없다(1960)』,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1960)』, 『눈(1961)』, 『모르지?(1961)』, 『누이야 장하고나부신귀거래7(1961)』, 『전향기(轉向記)(1962)』, 『우리들의 웃음(1963)』, 『거위소리(1964)』, 『이 한국문학사(1965)』, 『웃음3(1967)』, 『연지(1967)』, 『원효대사(1968)』, 『풍(1968)』	21편

름을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화하고, 4·19가 열어놓은 자유와 평등의 개방된 공간 속으로 그들을 불러들여 기존의 억압과 배제의 공간들을 그들이 감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공간으로 재편한다”<sup>3)</sup>고 분석한 바 있다. 권민자(2018)는 『동악어문학』 학술지에 게시한 「김수영 시의 웃음의 정치성」을 통해 김수영 시 속의 풍자성에 포커싱을 한 바 있다. 그는 김수영 시와 연관된 웃음 소재(혹은 ‘웃다.’와 연관된 시어)를 [표 1]<sup>4)</sup>과 같이 명기하고, 이러한 김수영 시 속의 ‘웃음’에 대해 멜빌 클라크(Melville Clarke)의 풍자 분류에 따라 “초기시인 「웃음(1948)」, 「시골 선물(1954)」, 「거리2(1955)」에 나타나는 웃음은 “설움”을 동반한다는 것에서 조소에 가깝다. 이후의 시에 나타나는 웃음은 대체로 설득을 전제로 욕설을 동반하는 등 사회를 비판하거나 저항시로 분류되는 시에 쓰였다.”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웃음’이 서러운 자기 자신의 웃음(「웃음」)에서 김수영의 또 다른 시, 「우리들의 웃음」처럼 ‘웃음’의 주체가 확대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김수영이 시에서 ‘웃음’이라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해방(8·15)과 전쟁(6·25), 그리고 혁명(4·19)을 겪으면서 체험되는 근대국가의 폭력성으로 인해 생기는 “억압과 차별, 감시와 처벌, 진리를 은폐하려고 하는 근대의 양면성을 목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사회의

[표 1] 김수영 시와 웃음

어문학』 학술지에 게시한 「김수영 시의 웃음의 정치성」을 통해 김수영 시 속의 풍자성에 포커싱을 한 바 있다. 그는 김수영 시와 연관된 웃음 소재(혹은 ‘웃다.’와 연관된 시어)를 [표 1]<sup>4)</sup>과 같이 명기하고, 이러한 김수영 시 속의 ‘웃음’에 대해 멜빌 클라크(Melville Clarke)의 풍자 분류에 따라 “초기시인 「웃음(1948)」, 「시골 선물(1954)」, 「거리2(1955)」에 나타나는 웃음은 “설움”을 동반한다는 것에서 조소에 가깝다. 이후의 시에 나타나는 웃음은 대체로 설득을 전제로 욕설을 동반하는 등 사회를 비판하거나 저항시로 분류되는 시에 쓰였다.”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웃음’이 서러운 자기 자신의 웃음(「웃음」)에서 김수영의 또 다른 시, 「우리들의 웃음」처럼 ‘웃음’의 주체가 확대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김수영이 시에서 ‘웃음’이라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해방(8·15)과 전쟁(6·25), 그리고 혁명(4·19)을 겪으면서 체험되는 근대국가의 폭력성으로 인해 생기는 “억압과 차별, 감시와 처벌, 진리를 은폐하려고 하는 근대의 양면성을 목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사회의

2) 정민구, 「김수영과 조태일 시의 정치성 비교 연구 - 4·19 관련 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26  
 3) 정민구, 「김수영과 조태일 시의 정치성 비교 연구 - 4·19 관련 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27  
 4) 권민자, 「김수영 시의 웃음의 정치성」, 『동악어문학』 제75호, 2018, p.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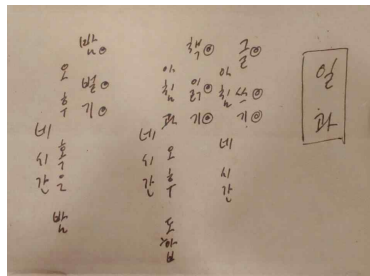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극복하기 위해 풍자 기법에서 사용하는 웃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것”<sup>5)</sup>이라고 평가내렸다.

이처럼 필자가 ‘제1자아’라고 칭한, 정치성을 띤 김수영의 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4·19와 같은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창작된 시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고, 이러한 시들에서 드러난 표현적 측면, 시적 화자의 태도 측면에서 풍자, 조소의 모습에 대한 심화적 연구가 이뤄졌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

## 2. 제2자아 - ‘자기반성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로서의 김수영



[그림 1] 상주사심 액자



[그림 2] 김수영의 책상에 있던 글귀

하지만, 김수영과 관련한 연구들은 그저 정치적 관점에서만 행해지진 않았다. 김수영, 그는 단지 정치적 의견에 큰 목소리를 낸 거대한 자아의 모습뿐만 아니라 김수영 그의 삶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기도 했다. 실제로 김수영문학관 2층에 가면 실제 김수영 시인의 방에 액자로 걸린 글귀인 [그림 1]<sup>6)</sup>과 김수영 시인이 시를 집필하거나 번역가로서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 앉아서 작업했을 때, 그 작업대 역할을 한 책상 위에 있던 <일과>라는 메모 실물인 [그림 2]<sup>7)</sup>와 같은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렇게 김수영문학관 내 그가 그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항상 그러한 삶을 사는 그는 단지 그러한 삶을 살고,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과오가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가진 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김수영 시인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가 그것이다. 본 시에서 구사되고 있는 어휘들을 두 개의 의미층으로 구조화하고, 대립 관계를 밑과 같이 설정하면 그러한 시인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본질적인 문제 : 왕궁의 음탕, 언론의 자유, 월남파병, 땅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에게 반항  
 피상적 문제(옹졸한 문제) : 설령탕집 주인년, 야경꾼, 이발쟁이에게 반항”<sup>8)</sup>

이러한 두 개의 의미층으로 구조화하고, 대립 관계를 보면, 김수영 시인의 이러한 의미층의 구조화를 통해 “王宮의 음탕, 월남파병, 언론의 자유와 같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분개하지 못하고, 설령탕집 돼지같은 주인년, 야경꾼, 이발쟁이 같은 만만한

5) 권민자, 「김수영 시의 웃음의 정치성」, 『동악어문학』 제75호, 2018, p.223

6) 상주사심(常住死心), “항시 죽기를 각오하고 살자.”라는 의미

7) 내용 : 글쓰기 / 아침 네 시간 / 책 읽기 / 아침과 오후 도합 네 시간 // 밥 벌기 - 주로 번역 일을 뜻함.(필자의 설명) / 오후 혹은 밤 네 시간

8) 오정혜, 「김수영 시의 언어적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24

상대를 대상으로 응졸한 문제에만 분개하는 비겁한 자신의 모습을 자기 배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기 결백적이고 반성적인 모습을 극도로 희화화한 시로 일상적 어휘들에 의하여 참된 진실성을 획득한 대표적 작품이다.”<sup>9)</sup>

이러한 해석처럼 그동안의 김수영에 관한 연구는 제2자아, 즉, 자기 성찰적 태도를 가진 시인으로서의 김수영에 대한 연구 - 특히 후기 시를 바탕으로 한 제2자아의 연구 - 또한 많이 진행되었다. 김봉관(2005)은 최하림이 엮은 김수영 평전 속에 나오는 김수영의 성격 등을 언급하면서 “소시민으로서 그는 자신의 치열한 정신을 견지하기 위해 사소한 모든 일상들에서부터 나아가고자 했다. 소시민으로서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한 끊임없이 회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문학 내에서 그러한 자기 각성의 모습을 표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김수영의 진정한 면모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sup>10)</sup>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김수영 시의 모습을 통해 “김수영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낸 데 있다. 자신의 소시민적 생활을 더구나 자신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드러냄을 통해 김수영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바라봄이 자기 성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김수영은 비로소 치열한 시적 정신을 구현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sup>11)</sup>라고 평함으로써 김수영의 시 의식의 근원은 이러한 제2자아인 ‘성찰하는 자아’에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길상(2003) 역시 김수영 시인의 성찰적 모습에 대해 “소시민으로서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한 끊임없이 회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문학 내에서 그러한 자기 각성의 모습을 표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김수영의 진정한 면모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일상의 모든 것을 수락하지 않으려는 정신만으로도 김수영은 깨어있고자 노력한 시인인 것이다.”<sup>12)</sup>라며, 이러한 면모가 김수영 시에 가지는 핵심적인 면모라고 강조한 바 있다.

### 3. 새로운 제3자아의 탐색 - 김수영의 산문과 함께 뜯어보며

지금까지 김수영과 연관된 많은 연구에서 포커싱한 그의 제1자아와 제2자아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자아가 김수영 시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자아들만이 김수영을 설명한다고 보진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살펴보지 못했던 측면을 김수영의 ‘제3자아’로 명칭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 및 근거들을 알려주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수영의 ‘제3자아’는 정치적인 것도, 자기반성적인 것도 아닌, 그저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제3자아’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

9) 오정혜, 「김수영 시의 언어적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24

10) 김봉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소시민성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53

11) 김봉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소시민성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59

12) 이길상, 「김수영 시 연구 - 소시민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54

(1) 제3자아와 김수영 산문

먼저 김수영 시 속에 드러난 ‘제3의’ 김수영을 보기 위해서는 김수영 산문을 들춰볼 필요가 있다. 김수영 산문이 수록된 『김수영 전집 2』에서는 그의 산문을 여러 부로 나눴는데, 필자가 그의 ‘제3자아’를 파헤쳐 보기 위해 찾은 부분은 주로 김수영 시인이 실제로 당대의 삶을 살면서 남긴 산문들이 수록된 제1부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김수영이 남긴 산문에서 필자는 김수영식 ‘사랑’을 보고자 했다.

① “(중략) 새벽에 문이 덜컥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도둑이 다녀나간 것을 발견한 여편네는 「어보! 도둑이 들었어요…… 마루 끝에 신발이 모두 흩어진 것 좀 일어나 보세요……」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잠지는 나를 보고 고향을 쳤다. /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 잊어버린 것 없나?」 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어머니, 그래도 당신 구두는 안 집어갔구려. 여기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에 팽개쳐 놓고 달아났어요. …… 아마 구두를 가지고 가려다 보니 하두 거지 갈에서 안 가져간 거야」 하고 여편네는 놀란 중에도 깔깔대면서 좋아하는 것이다.”<sup>13)</sup>

② “(중략) 무료한 이발사의 이 정도의 위안은 오히려 소박한 편에 속한다. / 이런 뒷골목 이발소의 고객들이란 주로 동네꼬마들과 시골서 올라온 인근 공장의 직공아이들인데, 스무 살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정중하게 인두질을 해주고 게다가 우스갯소리까지 해주면서 기껏해야 50원을 받는 이 영리행위는 너무나 바보스럽고 어처구니없이 불쌍해 보이기까지도 한다. (……) 불쌍한 저 아이가 저렇게 정중한 우대를 받고 사람대우를 받는 것은 무허가 이발소에서밖에 있으랴 하는 측은한 감이 들고,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얼마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인가 하는 원시적인 겸손한 반성까지도 든다. 참 할 일이 많다. 정말 할 일이 많다! 불필요한 어리석은 사랑의 일이!”<sup>14)</sup>

③ “(중략) 요즈음 신문에 자매결연 기사가 나오면, 소록도하고 맺는 사람은 없나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훑어 본다. 그래도 소록도하고 해달라고 북을 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어떤 잡지사에 가보면 잡지를 기증한 거로 서울시장의 감사장이 허연 천장 밑에 걸려 있다. 그래도 나는 차마 소록도에 책에 굶주린 환자 학생들이 있으니 좀 보내주시구려 하는 말이 안 나왔다. 이건 물론 나의 무력도 있지만 나는 소록도를 그렇게 간단히 취급하기가 싫었다. 10여 장의 르포나 책 몇 권의 기증으로 나의 책임을 벗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록도에 대한 모욕일 것만 같았다. 한국이나 나 자신을 그렇게 취급할 수 없는 것처럼, 소록도의 원장이나 직원이나 환자들도 역시 그렇게 취급할 수 없다. 귀여운 처자를 거느리고 소록도 재건의 일선에 나선 청년 군의관, 5,000명 환자들의 치료를 혼자서 감독하고 있는 과묵하고 소박한 젊은 의학도, 환자와 고락을 같이하는 경건한 수녀들, 하루 종일 환자들과 예배를 보느라고 눈이 갈가리 풀어진 외국인 선교사, 유치원(환자 유아용) 아동들에게 유희를 가르쳐 주는 나이 어린 환자 부모, 광화문 거리에서 보는 얼굴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부승부승한 얼굴을 한 환자 중고등학생들, 예배당 앞에 선 순직 원장의 조상(彫像) 등을.”<sup>15)</sup>

④ “(중략) 문제는 그들의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다. 우리들한테는 옷이 없다. 양복? 우리의 옷이 아니다. 모르지, 장차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옷이 못 되고 있다. 말하자면 양복은 우리들의 친근한 작업복도 못 되고 자랑스러운 호사도 못 된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소화되어 있지 않다. / 그렇다고 요즈음 한복을 만들어 입는다는 것은 수고로나 경제적으로나 보통 도회 생활자들에게는 힘에 겨운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리나 회사원들까지도 겨울에는 한복이 따듯하고 편리하니까 그것을 입고 출근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다. 출근은 꼭 양복이라야 하는 법은 없다. 요는 집에서 한복을 만드는 수고인데 앞으로 한복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면 와이셔츠 모양으로 한복에도 사이즈를 붙여서 공업화하면 된다. 결국 요는

13) 김수영,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2 : 산문』, 민음사, 2003, p.36 ~ 37

14) 김수영,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2 : 산문』, 민음사, 2003, p.147 ~ 148

15) 김수영,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2 : 산문』, 민음사, 2003, p.45 ~ 46



여기에도 정신과 양식이 문제가 된다. 한복을 입고 땀뻑하게 양키하고도 만날 수 있고 의사당에도 나갈 수 있는 그 정신적 태세 말이다.”<sup>16)</sup>

지금 인용된 이 네 인용문은 김수영식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필자는 생각하였다. ①에서는 가정에서 아내와 김수영의 화목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의 집에서 신발을 도둑 맞았지만, 그러한 사건에 살짝 당황하는 아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오히려 자신의 구두만큼은 도둑맞지 않았음에 웃음을 짓는 모습은 아내와의 화목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랑은 그저 가정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②에서는 자신 근처의 사람들에게 김수영식 ‘사랑’을 보여준다. 이 인용문에서는 동네 꼬마와 그 꼬마에게 이발을 해주고, 머리를 정리해주며 정중한 태도로 임하는 이발사가 나오는데, 이러한 인용문에서는 (무허가 이발소가 아니면) 존중받지 못하는 꼬마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정중한 태도로 일하는 이발사의 워크 에식(work ethic)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느껴진다. 이러한 김수영식 ‘사랑’은 더욱더 확장되어 ③에서는 소록도에서 한센병을 치료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 그리고 한센병을 겪는 환자들에 대한 연민들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연민과 존경, 경외감이 ‘나는 소록도를 그렇게 간단히 취급하기가 싫었다. 10여 장의 르포나 책 몇 권의 기증으로 나의 책임을 벗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록도에 대한 모욕일 것만 같았다.’라는 구절로 이를 응축한다. ④에서는 당대의 시간의 경계를 초월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바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김수영의 산문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감정이나 생각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까지 그러한 것들이 뻗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김수영은 ‘사랑’을 대놓고 표현하는 등의 노골적 모습이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다. 위의 인용문들을 보면 ‘사랑’을 표하는 대상에만 집중하고 이러한 이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것을 보면 김수영은 자신이 ‘사랑’을 표하고 싶은 대상에 빠져 있다기 보다는 던지시 이러한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은 ‘츄데레(ツンデレ)’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

## (2) 제3자아와 김수영 시

김수영 산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김수영식 ‘사랑’은 츄데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츄데레적 ‘사랑’이 배인 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진맥진하여서 술을 마시고 / 기진맥진하여서 주정을 하고 / 기진맥진하여서 여관을 찾아 들어갔다 / (……) / 이 친구도 술이 취한 얼굴을 보니 처참하다 / 창을 흔들고 가는 바람 소리를 들어도 불안하지도 않고 / 도회에서 태어나서 도회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은 / 젊은 몸으로 죽어가는 전선(前線)의 전사에 못지않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 그러한 생각을 함으로써 하루하루 도회의 때가 묻어 가는 나의 몸을 분하다고 한탄한다 / (……) /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완전히 / 기진맥진하였다 / 눈알에 백태가 앓은 사람같이 / 보이는 것이 모두 몽롱하다 / 청한 지 반 시간 만에 떠다 주는 냉수를 한 대접 마시고 / 계단을 내려와서 / 어젯밤에 술을 마시던 방을 들여다보니 이불도 베개도 타구 하나 없이 깨끗하다 / “도적질을 하는 것도 저렇게 부지런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이

16) 김수영,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2 : 산문』, 민음사, 2003, p.41

게 무어야 / 빨리 나가서 배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세”하고 친구가 서두른다 / “그러니까 초년생 도적이지”하고  
쑥쓰러운 대꾸를 하면서 / 기진맥진한 머리를 쉬일 곳을 찾아서 친구의 뒤를 따라서 걸어나왔다 / 우리의 잔등  
이에는 ‘미숙한 도적’이라는 글자가 써어 있었을 것이다

「미숙한 도적」 17)

「미숙한 도적」에서는 ‘나’와 ‘나’의 친구가 같이 술에 취한 날부터 여관에 들어가  
자고 일어난 뒤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 여기에서 ‘나’는 같이 취한 ‘나’의 친구의 술 취  
한 모습을 처참하다고 생각하고, 술을 깨고 냉수 한 모금 마신 뒤 ‘나’의 친구가 도적질  
하는 사람도 부지런한데, 우리는 뭐냐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배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  
는 본래의 업무를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잔등이에는 ‘미숙한  
도적’이라는 글자가 써어 있었을 것’이라며 ‘나’와 함께 ‘나’의 친구를 연민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발생한 연민에 대해서 그러한 연  
민에 빠져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시는 아니다. 그저 ‘나’의 친구와의 하나의 이야기  
를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나’의 친구의 한탄 섞인 말에 대해 그저 ‘나’는 “그  
러니까 초년생 도적이지.”라며 괜히 대꾸하는 모습이 이 시의 전부라고 말해도 될 것이  
다. 이러한 모습은 흔데레적인 김수영식 ‘사랑’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이렇게 감상하였다.

시장 거리의 먼지 나는 길 옆의 / 좌판 위에 쌓인 호콩 마마콩 명석의 / 호콩 마마콩이 어찌면 저렇게 많은지 /  
나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 모든 것을 제압하는 생활 속의 / 애정처럼 / 솟아오른 놈 // (유년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나) // 여편네와 아들놈을 데리고 / 낙오자처럼 걸어가면서 / 나는 자꾸  
허허…… 웃는다 // 무위와 생활의 극점을 돌아서 / 나는 또 하나의 생활의 좁은 골목 속으로 / 들어서면서 / 이  
골목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친다 // 생활은 고절(孤絶)이며 / 비애였다 / 것처럼 나는 조용히 미쳐간다 / 조용  
히 조용히……

「생활」 18)

시인은 시장 거리를 가족들과 함께 명석 위에 깔린 콩, 그리고 그러한 콩을 파는 사  
람들을 보면서 걷고 있다. 그런데, 시인과 함께 가족들은 그냥 걷지 않고, ‘낙오자처럼  
걸어’가고 있다. 시인은 시장 거리에서 콩을 파는 이들과 자신의 가족의 모습을 교차해  
서 보면서 실없이 웃는다. 왜 웃을까? 울지 않고 말이다. 필자는 자신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내린 결과는  
시인과 시인의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해 ‘여편네와 아들놈’이 느낄 애달픔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감의 태도  
가 그저 자신의 가정까지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애달픔의 감지는 범위를  
넓혀, 자신이 걷고 있는 시장 거리의 모습에서도 시인은 애달픔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서 마지막 연에서 ‘생활’을 고절, 비애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분명 이 시에서도 애달픔  
에 대한 공감을 절절히 써내려 갔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걷고 있는  
거리에 대한 간결한 묘사, 그리고 거리를 걷고 있으면서 자신이 지은 표정 혹은 행동

17) 김수영,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1 : 시』, 민음사, 2018, p.65 ~ 67

18) 김수영,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1 : 시』, 민음사, 2018, p.175 ~ 176

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시장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이들에 대한 애달픔을 느끼고 있음을 넉넉히 드러내고 있다.

아가야 아가야 / 열 발가락이 다 나와 있네 / 엄마가 / 만들어 준 빨간 양말에서 // 아가야 아가야 / 기저귀 위에는 나일론 종이까지 감겨져 있네 / 엄마는 / 바지가 젖는 것이 무서웁단다 / 아가야 아가야 / 돌도 아니 된 너는 머리도 한번 깎지를 앓고 / 엄마는 / 너를 보고 되놈이라고 부르지 // 아가야 아가야 / 네 모양이 우스워서 노래를 부르자니 / 엄마는 / 하필 국민학교 놈의 국어 공책을 집어 주지

「자장가」 19)

이 시에서는 ‘아가’의 상태에 대한 ‘엄마’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엄마’는 ‘아가’가 엄마가 만들었던 빨간 양말을 뚫고 열 발가락이 다 나온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가 드러나지 않고, 아가가 기저귀 위에 나일론 종이까지 감긴 이유가 다름 아닌 엄마가 바지 젖는 것을 무서워 하는, 그야말로 방입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가의 머리를 - 배냇머리를 - 깎지 않은 채, 엄마는 ‘되놈’이라는 욕설을 퍼붓는다. 거기에 더붙어서 엄마는 아가의 모습이 우스워서 아가를 비웃고, 하필 국민학교 놈의 국어 공책을 집어 주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비속어와 함께 표현하면서 이 시는 ‘엄마’에 대해 부정적인 시인의 시각이 엿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방적인 시각이 성립되는 이유는 뭘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러한 것도 시인의 ‘아가’에 대한 ‘사랑’의 태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자 의견이다. ‘아가’가 그저 ‘아가’로 해석이 된다면, 이때는 엄마에 비해 힘이 약한 ‘아가’, 그러니까 약자로서의 ‘아가’에 대한 관심이 시 속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영의 결과는 바로 ‘아가’와 ‘엄마’의 대립 구도를 본 시를 통해서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아가’가 어떠한 상징의 의미라면 - 특히 미래 세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 - 이것은 시공간을 넘어선 김수영 시인의 ‘사랑’의 범위의 확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아기’를 해석하는지에 따라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본 시는 ‘아기’에게 ‘사랑’의 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소결론 - 김수영 산문과 김수영 시, 그리고 제3자아

지금까지 필자는 김수영이 집필한 산문과 시를 인용하면서 김수영의 제3자아인, 아니 그렇게 필자가 지칭한 또 다른 김수영의 자아인 촌데레적인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김수영은 시나 산문을 통해서 표현은 거칠거나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전체적 내용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한 대상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남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태도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많은 이들이 정치적인 김수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라고 보는 「푸른 하늘을」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김수영의 ‘사랑’의 태도가 짙게 깔려 있는 시라고 봄이 적당하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는 말이 왜 수정되어야 하는

19) 김수영,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1 : 시』, 민음사, 2018, p.173

가? 이런 질문에 대해 시인은 피로 이론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은 혁명이 왜 고독한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혁명의 고독성에 대한 이유와 당위성을 치열하게 고민한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것에 대해 고민할까?

그건 바로 본 시를 쓰기 이전의 세계 여러 혁명들을 일으킨, 그리고 이러한 혁명으로 희생된 많은 이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그러한 고민의 바탕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화두를 필자는 던지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계 많은 이들의 혁명으로 인한 희생을 육보이지 않기 위해서 당대 한국의 혁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 그러한 고민의 태도는 사실 혁명을 이룬 이들, 그리고 혁명의 성공을 위해 희생된 많은 이들에 대한, 김수영식 ‘사랑’으로 촉발된 존중의 마음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적이다.

그렇다면 자기 성찰적인 김수영은 어떠한가?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달밤」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잠을 빨리자는 습관이 생긴 시인이 꿈을 버리는 모습을 스스로 알게 되면서 피로를 알게 되는 것이 슬픈 일이라는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왜 그럴까? 아마 ‘삶’에 대한 애착이 그러한 생각에 잠기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생활하면서 사그라들던 ‘삶’에 대한 김수영의 ‘사랑’의 태도가 언젠가 잠을 빨리 자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한 계기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러한 생각에 잠기면서 자기 성찰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모습을 하는 김수영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정리하자면, 이러한 자기 성찰적인 김수영 역시 무심한 듯 년지시 드러나는 어떠한 대상 및 인물에 대한 촌테레적인 ‘사랑’이 계기가 되어 나오지 않을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국, 제1자아와 제2자아를 아우르는 것은 바로 김수영식 촌테레적인 ‘사랑’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필자가 또 다르게 느낀 김수영 시인의 - 어찌 보면 ‘궁극적 자아’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 ‘제3자아’임을 밝히고자 한다.

#### IV. 결론 : 다시, 김수영을 훑아보자

지금까지 필자는 통념상의 김수영을 파괴하고, 새로운 제3의 ‘김수영’을 시 속에서, 그리고 김수영의 산문을 통해 탐구하였고, 이러한 탐구에 대해 필자가 내린 결론과 의견을 본 에세이에 녹아내렸다. 지금 다시 필자는 질문 하나를 하고 싶다.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아직도 김수영을 무겁게 보는가? 지금까지 ‘김수영’이란 사람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온 이유는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리잡은 ‘김수영’에 대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깨부수고, 새로운 ‘김수영’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수학 공식마냥 그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기정사실화하는 시의 수용자로서의 수동적 태도가 한몫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필자가 던진 질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아니요.”라고 답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문학 내

‘시인 공식’(?)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김수영 시인의 기존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다시 김수영을 톺아보아야 한다. 톺아본다는 것, 이러한 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의 수용자인 우리는 지금까지 재미없고, 딱딱하며, 무겁다고 생각하는 시와 시인의 이미지를 파괴하게 되고, 새롭고, 재미있으며, 친근한 이미지로 변모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가 본 에세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치적이고 자기 반성적이었던 김수영을 ‘사랑’하는 대상을 괜히 촌데레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촌데레’ 김수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김수영,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2 : 산문』, 민음사, 2003

김수영,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1 : 시』, 민음사, 2018

### 학위논문

정민구, 「김수영과 조태일 시의 정치성 비교 연구 - 4·19 관련 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오정혜, 「김수영 시의 언어적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김봉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소시민성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길상, 「김수영 시 연구 - 소시민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국내학술지논문

권민자, 「김수영 시의 웃음의 정치성」, 『동악어문학』 제75호, 2018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우수상

자기표현 글쓰기

## 세계와 엄마의 삶

경영대학 경영학과 강혜리

---

“딸! 일어나!”

피질러 자야할 일요일 아침 엄마가 날선 소리로 나를 깨웠다. 열린 방문으로 부엌을 보니 부엌발판이 차곡차곡 포개어진 식탁의자 위에 널려있었다. 청소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아 엄마, 내일하면 안돼? 내가 해놓을게 동물농장 보자”며, 씨알도 안 먹힐만한 투정을 부렸다. 보통 엄마의 일요일 아침 루틴은 늦게 일어나 늘어지게 동물농장을 보며 한가로운 일요일 아침을 즐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청소하는 것을 보니 갑자기 발동 걸린 것이다.

“안돼, 엄마 발동 걸렸단 말야”

일반적으로 청소는 방 쓸고 닦기, 가구 닦기, 화장실 청소로 끝나지만 엄마가 발동 걸린 날에는 부엌 기름때 제거, 후드청소 등 평소에는 청소하지 않던 것들이 추가된다. 발동 걸린 날에는 매우 피곤하지만 그 덕택에 엄마가 시집올 때 가져온 언니 오빠 격인 가구들이 매우 깨끗하다.

청소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가 빨아놓은 걸레를 집어 온 방을 닦는다. 내가 방을 다 닦고 화장실에 가면 엄마는 화장실 청소를 준비하고 있고, 더러운 방 걸레와 깨끗한 가구걸레를 엄마와 교환한다.

오늘은 화장실의 천장청소가 추가되었다. 엄마는 항상 락스와 주방세제를 섞어 화장실 청소를 아주 깨끗이 40분정도 한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쬐이면 온 집안에 락스 냄새가 풍기는데, 청소를 하는 사람을 아주 걱정하게 만들 정도이다. 그래서 “엄마, 세제랑 락스랑 섞지마”, “빨리 나와! 락스 몸에 안 좋잖아.”, “대충해! 대충.”이라 말하며 최대한 빨리 끝내게 하려하지만 그녀는 대충하는 법이 없다. 화장실 입구에서 얼굴을 반쯤 내밀고 찌푸리며 엄마에게 냄새가 독하다고 이야기해도 그녀는 듣지 않는다. 왕고집.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온 집의 문과 창문을 다 열고, 화장실 문 앞에 선풍기를 놓아 강풍으로 틀어주는 것 밖에 없다. 사실 엄마는 강풍은 너무 세다고 나무라신다. 하지만 창문 없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제 기능하는지 모를 환풍기에 의지할 수는 없다. 약풍도 아닌 강풍정도 되어야 락스와 세제가 섞인 뭉치 모를 화학약품 냄새가 엄마의 코에 닿기도 전에 저 멀리 베란다 밖으로 날려줄 것 같은 심적 안도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더 엄마에게 빨리 끝내라고 재촉한다. 그녀는 기어코 한 시간 정도를 채우고 나온다. 엄마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올 때의 뭔가 깨끗한 냄새가 좋다고 한다. 세상에 그런 냄새도 있나 집 냄새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락스 냄새를 오랫동안 맡았다가 집냄새를 맡을 때 그 두 가지 냄새가 섞여있는 그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나도 그 냄새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집의 가구와 이불에 베여있는 우리 가족의 살 냄새와 염소계열의 독한 성분이 들어간 화학제품 냄새가 동시에 섞여있는 썩 유쾌하지는 않은 냄새이다. 엄마에게는 청소를 깨끗이 하였다는 어떤 증표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독한 세제에 익숙해져 있다가 오랜만에 다른 냄새를 맡았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으리라 생각할 뿐이다.

엄마는 청소노동자로서 락스를 매우 가까이 하는 편인데, 직장에서 아주 위험한 방법



으로 청소를 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집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락스와 주방 세제를 섞어 쓰기 때문이다. 거품이 나는 것을 봐야 곰팡이가 사라지고 살균이 된다고 믿는 습관 때문인지 엄마의 팔다리는 락스에 데어 벌겍게 부푼 상처가 많았다. 가끔은 냄비에 데인 것처럼 상처가 컸다. 그럴 때 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말 없이 화상연고를 발라주는 것이다. 이런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화상연고는 언제나 우리집 구급약통에 상비해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가 머리가 아프다고 반복적으로 호소하였다.

(제주도 사투리)

“어우, 아직도 코 끝에서 락스 냄새가 맴도는게”

“엄마, 머리 많이 아파? 오늘 일 많안?”

“오게, 학생들 방학해부난 뭘 화장실에 곰팡이가 경 흐영 이신지 님느라 고생했져게.”

“...아 기? 좀 주물러주카?”

“오게 주물러보라!”

“오늘 김여사 고생해시난 30분은 짜비스해서 한 시간 해드릴게”

나는 엄마의 손과 다리를 주무르면서 손에서는 비누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락스의 잔향을 맡았고 발목 언저리에서는 락스에 데인 상처를 보았다. 상처를 보는 순간 자책감이 몰려왔다.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하호호 떠들 동안 엄마는 화장실에서 나란히 놓여 자신을 기다리는 변기들을 락스로 깨끗이 청소해야했겠지. 얼마나 강한 세제를 사용했길래 퇴근 후 한참이 지난 지금도 두통을 호소하고 손에서는 냄새가 지워지지 않을까. 솔을 타일에 문대느라 팔은 또 얼마나 아플까. 내가 할 수 있던 일은 화상연고를 발라드리고 어머니의 신체 하나하나 주무르면서 하루의 고단함을 느껴보는 것 뿐이었다. 제대로 안마를 해드리고 싶어서 휴대폰으로 발의 혈점 이미지를 찾아 내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다. 엄마의 발과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마치 마사지사에게 병의라도 된 듯 열심히 안마하였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화장실 청소 30분하면 코가 얼얼하던데, 엄마는 오늘 내내 락스냄새를 맡아야 했으니...

내 마사지로 어머니의 노동의 무게가 치유될 리 만무하지만 마법손가락처럼 한번 만지면 모든 게 싹 낫는 값싼 효율을 바라면서 정성들여 안마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10분만 더 하면 엄마는 괜찮아질까? 하며 한 시간 쯤 주물렀을 때 엄마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사실 엄마 마사지 하는 게 미안하다. 자는 동안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일하러 나가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마치 산업혁명 때 공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에게 포도당 알약을 제공하는 과썸한 공장주와 같다고 느꼈다.

어쩌다가 엄마가 청소노동자가 되었을까 의문이 생긴다. 아니 내말은 청소노동자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학력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엄마는 80년대에 춘구석 제주에서 대도시 부산으로 상경하여 전문대학을 다녔다. 지금이야 제주는 엄청난 시골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육지 사람들에게 제주에도 택시가 다닌다고 하면 놀랄때였다. 아무튼 시골 안 개구리에서 대도시로 나가 전문학사학위를 땀고, 80년대에 전문학사 정도면 배웠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회사

에 들어가 육체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언제까지나 아빠를 만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만 가능하다. 아빠를 만나고 나서 엄마의 인생이 달라졌다. 친구와 가족들을 모두 뒤로한 채 아빠의 고향으로 내려와 같이 살았고, 아빠의 보증 빚을 같이 갚느라 항상 돈에 쪼들리며 살았다. 차, 예물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현금화해서 빚을 갚았다. 하지만 집을 포기할 수 없던 엄마는 그 때부터 식당 서버, 미화원 등 쉬지 않고 일해 빚을 갚는데 성공했다. 친구도 돈도 없는 삶은 매우 외로웠을 것이다. 그런 삶 속에서 그녀가 놓치지 않은 것 한 가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제주의 시골로 내려온 그 이유, 가족이라는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집을 지키고자 간절히 노력했다고 한다.

옛날부터 어머니는 발동이 걸리는 날이면 온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다. 모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그만해라, 이것만 하고 끝내자 해도 청소거리를 꼭 찾아내셨다. 내 눈에 청소할 게 없는 아주 완벽한 집이어도 엄마는 항상 더러운 곳을 찾아내며 깨끗이 바꿔놓곤 했다. 독한 락스 냄새를 맡으며 화장실을 하얗게 더 하얗게 유지하려고 하였고, 막대걸레가 아니라 걸레를 사용하며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집을 손으로 훑었다. 아마 엄마가 집을 깨끗이 유지한 이유는 아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집이라도 지키고자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입시로 한창 예민해져 평평 울고 있던 고3 어느 날, 엄마가 대뜸 “내일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라고 말했다. 나는 어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걸까 놀라웠다. 히킥거리며 “어, 맞아. 딱 그 마음이야. 엄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물어봤을 때, 엄마도 다 그랬다고. 너무 많이 괴로웠었던 적이 있었다고 뭉뚱그려 이야기해주었다. 나는 순간 어렸을 적 보았던 상황 독촉장을 받아든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다.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서 평평 울고 있는 만큼 그때 엄마도 세상 모든 게 괴로웠구나 가늠만 하였다.

세상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던 때 유일하게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집이었을 것이고, 유일하게 가진 물질이었을 것이다. 또한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만들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빚쟁이들을 다 떼낸 이후에도 그녀는 청소를 멈출 수 없었다. 청소노동자로서 매일 같이 락스 냄새를 맡아야했기 때문이다. 그 락스 냄새는 매일 그녀의 건강을 갉아먹었지만 동시에 한 달을 살아갈 금전적 여유도 주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좀 더 넓은 곳을 경험했다면, 아빠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락스 냄새와 가족에 매여 사는 삶은 없었으리라.

지금 나는 서울에서 전세방을 얻어 오빠와 살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 대청소를 할 때마다 나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본다. 기름때를 제거한답시고 발동 걸려서 후드, 가스레인지, 주방바닥을 세제로 뽀뽀 청소하다보면 기름때들이 사라지는 게 매우 뿌듯하다. 내가 어려운 것을 해냈다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성취감이 든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오빠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나를 말리는데, 기분이 참 묘하다. 이거 내가 엄마가 청소하는 걸 말리는 거랑 똑같잖아? 엄마의 과거 기분은 이런 것이었을까.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성취감을 맛보아 내일 혹은 일주일 뒤를 살아갈 용기를 얻었을까 짐작해본다.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할 때면 현재 엄마의 기분을 헤아려본다. 락스를 바르고 솔로 아무리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는 곰팡이가 밍고, 30분만 노출되어 있어도 내 코끝은 매우 아리다. 마치 홍어를 먹은 뒤 코에서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것처럼 조금의 화장실 청소 후에도 두 세 시간은 내 코 끝에 락스 냄새가 빙빙 맴돈다. 어떻게 엄마는 오랜 시간동안 청소노동자로 일하며 락스 냄새를 견뎌왔는지 그 대단함을 느낀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며 엄마의 삶을 헤아려본다.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우수상

실용 글쓰기

#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하는 월경권 보장 방안

법과대학 법학과 김소진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현이  
이과대학 수학과 이관우  
문과대학 영어통번역학과 이승은

### I. 개요

제안 내용  
필요성  
목적 및 이유

### II. 제안의 배경

- 월경권 보장 현황
- 월경권 보장에 관한 인식
- 월경권 보장의 문제점

### III. 실행 방법

- 생리대 보편지급
- 생리대 가격 안정화
- 생리대 안전성 강화

### IV. 추진계획

- 생리대 보편지급 추진계획
- 생리대 가격 인한 추진계획
- 생리대 안전성 강화 추진계획

### V. 기대효과

- 생리대 선별 지급의 한계 극복
-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 완화
- 생리대 안전성 확보
- 누구나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월경권 보장

## I. 개요

### □ 제안 내용

○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에 무료생리대를 비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생리대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생리대를 보편 지급하여 여성의 원활한 생리대 사용을 도와야 한다.

○ 생리대를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생리대 업체에서 생리대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독과점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리대 업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규제할 수 있게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리대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

○ 검출 가능한 화학물질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포괄적 노출평가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조사가 가능한 역학조사를 통해 인체 위해성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 전성분표시제를 보완함으로써 생리대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 □ 필요성

○ 생리대 보편지급을 통해 기존의 선별적 생리대 지급이 초래한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월경을 부끄러워하는 문화의 종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생리대 가격 안정화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생리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인지시킬 수 있다면 생리대 속 발암물질로 인해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안전성 측면에서 생리대 업체와 국가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 목적 및 이유

○ 대한민국 여성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돈이 없어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과 생리대의 높은 가격이 부담되는 사람들, 발암 물질 검출로 인해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월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 제안 내용과 같은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II. 제안의 배경

### 1. 월경권 보장 현황

‘월경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를 말한다.<sup>20)</sup> 대한민국의 여성은 이러한 월경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을까? 월경 여부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현대 복지 국가에서 당

20) 여성환경연대, 「모두를 위한 월경권」, <http://ecofem.or.kr/19632/>

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25,990,783명의 여성이 살고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성 인구의 절반인 13,233,820명은 만 11~50세 가임기 여성, 즉 월경 중인 여성이다. 그 누구도 이들 가임기 여성에게 생리대 비용을 지출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월경 비용, 즉 생리대 구매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생리대 구매 비용은 피할 수 없는 지출로,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이 비용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되기도 한다.

수년 전 저소득층 편부 가정의 한 여학생이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부족해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체했다는 ‘깔창 생리대’ 사건이 있었다.<sup>21)</sup> 그 당시 전 국민의 엄청난 충격은 변화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고, 이후 국가는 앞장서서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최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국가는 월경 비용에 대한 가격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4년부터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생리대 가격을 안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생리대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리대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생리대 내 발암 물질의 존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고자 국가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생리대의 안전성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 2. 월경권 보장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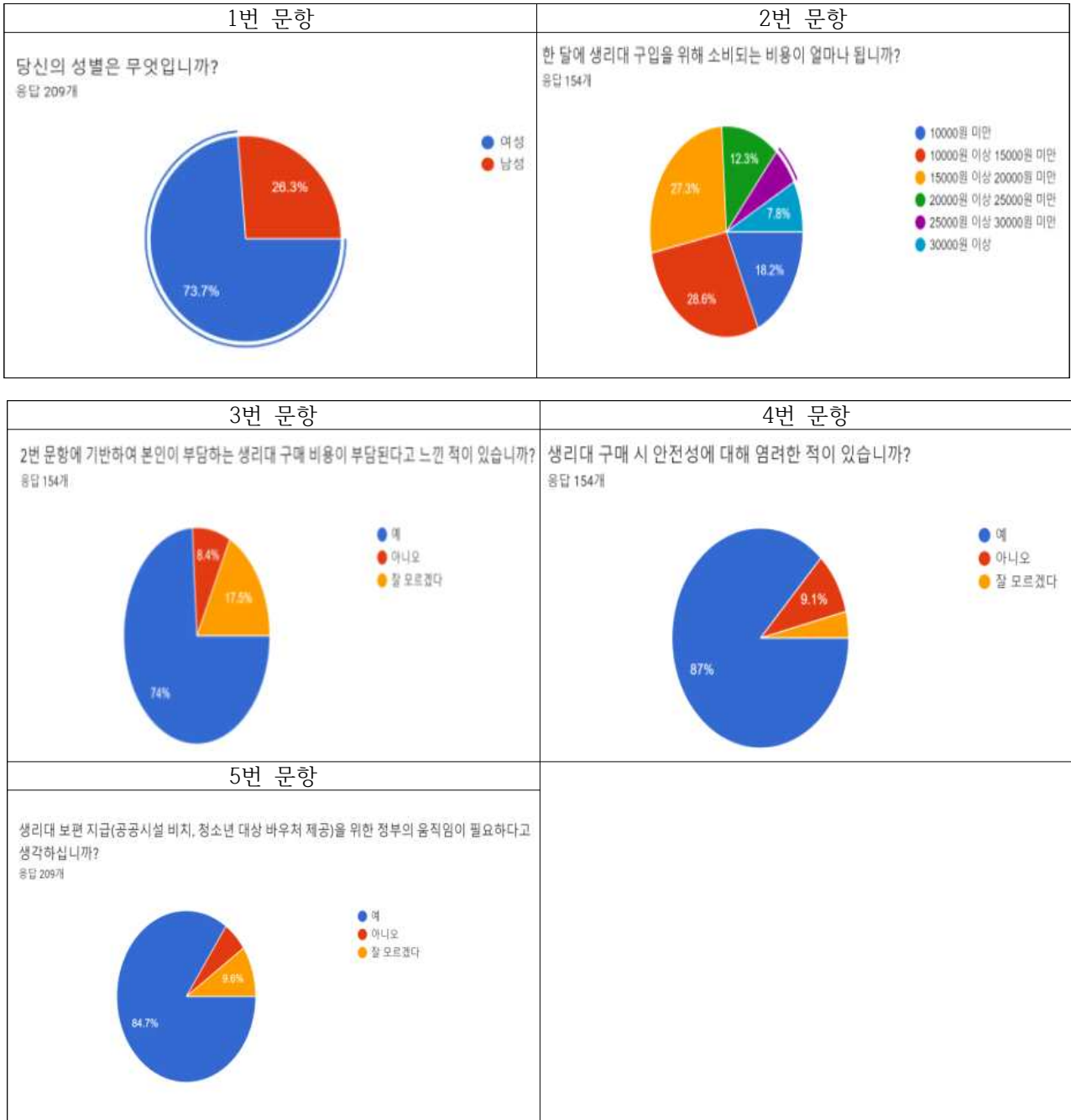
그렇다면 국내 월경권 보장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를 알아보기로 본 조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09명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체적인 질문과 선택지의 내용, 그리고 응답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1번 문항은 성별을 묻는 문항으로, 월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여성과 월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남성이 갖는 인지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 문항의 응답 결과에 따라 이후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2, 3, 4, 5번 문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남성 응답자의 경우 5번 문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게끔 하였다. 1번 문항 응답 결과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의 참여율보다 높았는데, 이는 ‘월경권’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여성의 관심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번, 3번 문항은 본인이 지출하는 한 달 생리대 구매 비용과 그 비용이 부담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대푯값을 설정해 여성의 한 달 생리대 구매 비용을 추산해보면 1인 기준 약 16,615원이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한 달 생리대 구매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여성 응답자가 74%에 달했다. 즉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이 한 달 생리대 구매 비용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4번 문항은 생리대 구매 시 안전성을 염려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87%의 여성 응답자가 생리대의 안전성을 염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예’라는 선택지로 응답 수치가 편향된 것을 볼 때 생리대의 안전성은 많은 여성의 걱정거리임을 알 수 있다.

21) 박효진,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터내는 소녀들의 눈물」, 국민일보, 2016년 05월 26일.



마지막 5번 문항은 생리대 보편지급 관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이다. 생리대 보편지급 관련 정책은 국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문항은 여성과 남성 모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 공공시설 생리대 비치와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매 바우처 제공 등 생리대 보편지급 방안에 대하여 84.7%가 동의의 의사를 표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건대 현재 우리나라는 월경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정확히 어떤 점이 미흡한지 명료하게 밝혀 이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 3. 월경권 보장의 문제점

#### (1) 생리대 선별 지급의 한계

생리대를 살 돈이 부족해 신발 깔창과 휴지를 대신 사용했다는 편부 가정 청소년 사연에서 토로는 시작되었다. 그 후, 생리하는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바닥에 수건을 깔고 누워만 있었다는 청소년, 학교 보건실에서 생리대를 받았다는 청소년의 이야기 등 생리대에서 비롯된 고민들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자격기준 충족하는 2002.1.1~2009.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0년 기준)에게 지원합니다.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sup>22)</sup>에 한정해 생리대를 지원하는 선별적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sup>23)</sup>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복지정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청소년과 법정차상위계층의 청소년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다.

여기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 속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러한 선별적 생리대 지원사업의 수혜 기준은 월경권 보장의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여성에게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임에도 불구하고, 위 수혜 기준에 따르면 소득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기만 해도 사실상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위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생리대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별적 생리대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시행 초기, 이 사업은 사전에 이메일로 지급 신청을 한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생리대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생리대를 직접 수령하는 과정에서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게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2018년부터 정부는 선별적 생리대 지원사업 방식을 수정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통해 바우처 형태로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였다. 이전 방식보다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기는 하나,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게만 생리대가 지급되고 있어 ‘가난해서 받는다’라는 낙인과 수치심을 지우기는 어렵다. 여기서 비롯된 사회적 낙인과 월경 터부의 영향으로 2019년 선별적 생리대 지원사업 신청률은 60%에 그쳤다.<sup>24)</sup>

선별적 생리대 지원사업은 위와 같은 사회적 낙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원금액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현재 선별적 생리대 지원사업을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1만 1000원이다. 보편적으로 여성은 매달 42개 정도의 생리대를 사용<sup>25)</sup>하므로, 생리대 한 개의 가

22) 이때 청소년은 만 11~18세인 자를 말한다.

23) 남승현, 「‘깔창 생리대’ 5년… ‘가난의 낙인’에 아픔은 그대로», 노컷뉴스, 2020년 07월 16일.

24) 안현진, 「‘깔창 생리대’ 충격 3년,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왜 안되나», 오마이뉴스, 2019년 10월 26일.

25) 한 달 평균 월경 기간이 7일 정도이고, 보편적으로 1일 6개 정도의 생리대가 사용됨을 고려하면 매달 약 42개의 생리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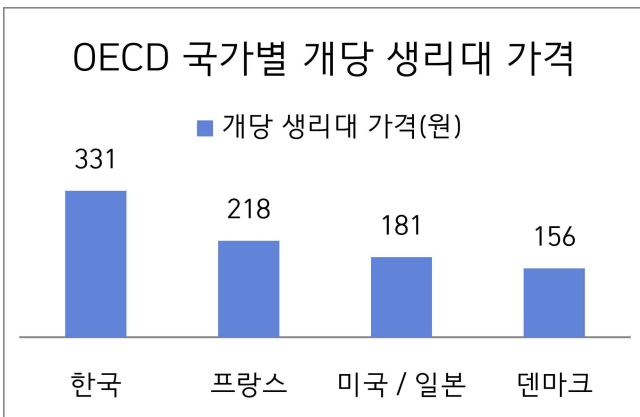
격이 261원을 넘는 경우 한 달에 생리대 구매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현재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원활한 생리대 사용이 어렵게 된다. 생리대 한 개의 평균 가격이 331원인 대한민국에서 월 1만 1000원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선별적 생리대 지원사업의 한계점들은 새로운 체계의 생리대 지원사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생리대 가격 부담

여성의 월경권 보장에 있어 우리나라의 값비싼 생리대 가격은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생리대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10대가 되었을 때부터 50대에 접어들 때까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기에, 높은 생리대 가격은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이 생리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히고, 심지어는 생리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결국 값비싼 생리대 가격의 악영향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7년 한국소비자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리대 평균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가에 해당한다.<sup>26)</sup> 생리대 가격이 개당 218원인 프랑스, 181원인 미국·일본, 156원인 덴마크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이 국가들보다 100원 이상 비싼 331원에 개당 생리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sup>27)</sup> 더욱이 국내 18개 생리대 생산 업체의 평균 물품값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생리대 가격이 26.3% 상승했다.<sup>28)</sup> 이러한 객관적 지표가 보여주듯 국내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에 불을 붙이는 요인까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독과점 생리대 업체가 취하는 폭리와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법체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조는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혹은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하여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이 그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격 인하 및 당해 행위 중지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해 볼 때 국내 생리대 시장은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2010년부터 꾸준히 75%를 넘어서고 있어<sup>29)</sup> 독과점 상태에 빠져 있으며, 상위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체계만 보면 생리대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 행위가 제대로 규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례로, 생리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유한킴벌리가 취한

26) 김보람, 「생리대 대신 기저귀?」, 경향신문, 2020년 08월 26일.

27) 이소라, 「선진국 '핑크텍스' 철폐 속속...한국 생리대 가격은?」, 아주경제, 2020년 10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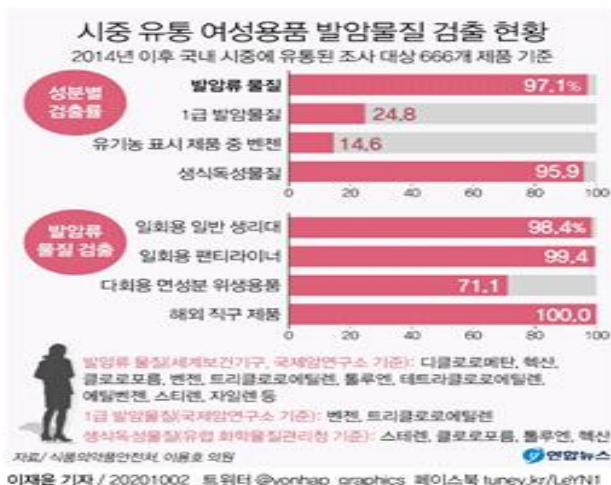
28) 이연우, 「[‘깔창 생리대’ 이후 4년, 여전히 생리가 두려운 청소년] 1. 월경가계부」, 경기일보, 2020년 06월 07일.

29) 안지혜, 「생리대 독과점에도 ‘먼 산 보는’ 정부」, 브레이크뉴스, 2017년 10월 12일.

폭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히 제재하지 못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유한킴벌리는 신제품 출시 및 제품 리뉴얼을 빌미로 생리대 가격을 총 102회에 걸쳐 최대 인상률 77.9%, 평균 8.4% 수준으로 인상하였다.<sup>30)</sup> 유한킴벌리의 가격 인상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그리고 제조원가 상승률 25.8%<sup>31)</sup>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출시로 인한 가격 인상 자체는 직접적·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유한킴벌리가 취한 폭리로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는 것을 묵과했다.<sup>32)</sup> 여성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지우는 생리대 업체의 폭리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법적 시스템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3) 생리대 불안전성



2020년 10월 초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이 가열되었다. 유통 생리대의 97%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국내 유통 생리대 666개 제품 중 647개에서 발암성 물질이 나왔다. 특히, 벤젠 등 1급 발암 물질은 약 24%(165개), 스티렌 등 생식독성물질은 95%(639개)에서 검출되었다. 심지어 ‘유기농’ 표시가 된 제품 137개 중 20개의 품목에서도 벤젠과 같은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해외 직구 제품도 마찬가지였다.<sup>33)</sup>

이와 같은 논란은 이전부터 발생해왔다. 2017년에도 생리대 발암 물질 논란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식약처가 실시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생리대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은 되었으나 얼마나 많은 제품에서 검출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기에, 3년 후 2020년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위해 평가 결과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기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으나, 소비자 측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7년 당시 특정 생리대를 사용한 뒤 월경량이 줄어들거나 월경불순, 월경통 등이 심해졌다는 경험담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면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5가지 피해증상<sup>34)</sup>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생리대 소비자가 해당 생리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은 생리대에서 검출된 벤젠,

30) 유재훈, 「공정위 “유한킴벌리, 신제품·리뉴얼제품만 가격 높게 올려...규제 논란”」, 헤럴드경제, 2018년 04월 04일.  
 31) 유재훈, 위의 신문기사.  
 32) 김원진, 「신제품·리뉴얼 ‘값 결정’ 규제 대상 빠져...공정거래법 독과점 기업에 ‘종이호랑이’」, 경향비즈, 2018년 04월 04일.  
 33) 이호진,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성 물질”...유해성 논란 가열」, JTBC 뉴스, 2020년 10월 02일. ; 이도연,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성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연합뉴스, 2020년 10월 02일.  
 34) 생리통 증가(54.3%), 덩어리 혈 증가(44.8%), 생리량 감소(38.9%), 가려움증 증가(33.8%), 생리혈색 변화(31.3%) ; 총 55명 기준

톨루엔 등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다.<sup>35)</sup>

여전히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유해 물질 검출량이 위해 우려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가의 태도에 많은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품고 안전성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Ⅲ. 실행 방법

#### 1. 생리대 보편지급

##### (1) 공공시설 내 무료생리대 비치

생리대 선별 지급의 한계점들은 생리대 지원사업을 저소득층에게 은혜를 베푸는 조치로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월경은 모든 여성이 겪는 생리현상임을 고려하면, 생리대 지원사업은 기존의 선별적·시혜적 복지 차원을 넘어, 여성 모두의 권리인 월경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선별적 생리대 지원사업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으로 변형·발전되어야 한다.

생리대 보편지급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 도서관과 같은 학생 생활공간 등의 화장실에 무료생리대를 비치하면 모든 여성이 비상시 또는 필요시 자유롭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세계적 추세로, 실제 뉴욕과 스코틀랜드에서 공공시설 내 무료생리대 비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뉴욕시의회는 2016년, 모든 공립학교와 무주택자 쉼터, 교도소에 생리용품을 비치하여 여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뉴욕시 공립학교 6~12학년,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여학생 30만 명이 학교 화장실에 비치된 생리대 지급대에서 언제든지 생리대를 무료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주택자 쉼터와 교도소 보급까지 합해, 첫해에는 지급대 설치 비용까지 약 50억 원, 다음 해부터는 우리 돈 약 30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sup>36)</sup>

스코틀랜드 의회는 2018년부터 자치정부가 행해온 교내 생리대 무료 배포 사업을 확장하여, 2020년, 공공장소에서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통해 여성들은 지역 센터, 청소년 클럽, 약국 등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용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 시행에는 매년 약 37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sup>37)</sup>

서울시는 2018년, 11개 공공기관 내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2019년에는 이를 200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결과 공공기관 1곳당 하루 평균 3.68개의 생리대가 사용되는 등 사업 초기 우려했던 남용 현상은 없었다고 한다.<sup>38)</sup>

35) 천지인, 「생리대 유해성 논란 다시 불 붙나」, 우먼타임스, 2020년 10월 03일.

36) 박에스터, 「“공짜 생리대는 권리”…뉴욕은 왜?」, KBS 뉴스, 2016년 07월 13일.

37) 「여성: 스코틀랜드 ‘생리 빈곤’ 끝내나」, BBC 뉴스 코리아, 2020년 02월 29일.

38) 이안소영,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 『월간 복지동향』248(2019) : 30-35.

위와 같은 뉴욕과 스코틀랜드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공공시설 내 무료생리대 비치 사업을 제도화·정책화하여 세계적 추세에 합류해야 한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시행·정책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으므로, 전국 단위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시설 내 무료생리대 비치 사업의 구체적 시행 방법으로는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무료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고, 필요시 여성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 근처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를 활성화함과 더불어, 화장실 관리인이 무료생리대 지급기에 이상이 없는지 꾸준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 (2)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매 바우처 제공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조금 더 직접적·효과적인 방법으로 여성에게 생리대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선별적 생리대 지원사업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충분한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정부의 사정, 그리고 그간 생리대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는 토로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여성 청소년의 기준 연령은 보편적으로 초경을 시작하는 때인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sup>39)</sup>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매 바우처 제공 사업은 이미 여주시의 사례를 통해 그 시행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여주시는 ‘여주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따라 추경 예산에 5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여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만 11~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연간 12만 6000원 상당의 생리대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sup>40)</sup>

이러한 여주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는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매 바우처 제공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국내 모든 여성 청소년이 정부의 지원으로 생리대를 원활히 구매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단, 여주시의 지원금액은 우리나라의 평균 생리대 가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는 못하므로, 전국 단위로 시행될 이 사업의 지원금액은 앞서 본 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된 1달 평균 생리대 구매 비용인 약 1만 6500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 반영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확한 지원금액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정확한 조사가 재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생리대 가격 안정화

### (1) 생리대 영세율 적용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리대 업체 스스로 생리대의 판매가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사적 이익의 추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진해서 이윤을 포기하고 판매가를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대 업체의 생리대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유인책으로서 생리대를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율<sup>41)</sup>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9) 기존 선별적 생리대 지급사업의 수혜자 연령 기준과 동일하다.

40) 김경림, 「여주시, 국내 최초 여성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원」, 한국경제, 2019년 04월 02일.

41) 영세율이란 세액 산출 시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이 0인 것을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항상 0이 된다.

현재 생리대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 제도로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즉 매출 부가가치세만 면세되는 제도이다. 그래서 생리대 업체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생리대 업체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없어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납부하게 되면서 기업 전체 이윤에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기업은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소비자의 가격 부담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게 된다.

반면 생리대에 완전 면세 제도인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면 매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면세되고 매입 부가가치세는 후에 환급받게 되어 생리대 업체의 전체 이윤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할 원인 요소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생리대 업체가 원재료 매입에 드는 비용을 낮추게 된 효과를 제품 판매가를 인하하는 데 적용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생리대에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sup>42)</sup>

따라서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을 정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각호에 생리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에 불을 붙이는 요인, 즉 독과점 생리대 업체의 폭리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그 유형과 기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 혹은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업체의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 모두에 제한을 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오로지 독과점 업체의 가격 ‘변경 행위’에만 제한을 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하위법 간 규제 내용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과점 생리대 업체가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 출시 및 제품 리뉴얼을 빌미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는 가격의 ‘변경’이 아닌 ‘결정’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동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 내용적 통일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 생리대 업체가 폭리를 취해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ㅎ8!!

독과점 업체의 가격 변경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유지 행위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행 조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제품 또는 리뉴

42) 이덕용, 「2017년 1월부터 생리대, 기저귀 가격 10% 정도 인하될 듯」, 뷰티경제, 2016년 08월 02일.

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 혹은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또는 근소하게 낮게 산정하는 경우'도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생리대 안전성 강화

#### (1) 생리대 인체 위해성 연구의 활성화

식약처가 기존에 사용하던 생리대 위해 평가 검사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COV)에 대한 검사에 한정되어있다. 이 위해 평가 검사는 화학물질의 이미 알려진 독성을 토대로 수행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외의 성분들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의 인체 위해성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 새로운 방법으로 다음의 2가지를 제안해본다.

첫째, 포괄적 노출평가가 필요하다.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가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의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불만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존 식약처 위해 평가 검사가 생리대에 있는 모든 성분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성분이 갖는 위험성에 대하여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인체에 유해하지만 기존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성분이 생리대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으며, 검출할 수 있는 성분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현재 조사하는 것보다 다양한 검사를 준비하여 검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sup>43)</sup>

둘째, 잘 설계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생리대는 소비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호소하는 피해증상을 필수적으로 조사하여, 그러한 피해증상과 위해 요인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특정 생리대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장기간 건강 위해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현희 서울 성모병원 교수는 다양한 종류의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산부인과 질환 발생률 또는 월경 패턴을 비교하거나, 정기건강검진을 받는 생리대 소비자들을 추적 검사하는 식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up>44)</sup>

#### (2)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보완

전성분표시제란 포장지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원료를 포함하여 제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게끔 하는 제도로, 생리대와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식약처가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 제도는 유용한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TCOV검사로 검출할 수 있는 성분은 한정적이기에 말 그대로 '전' 성분이 표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성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향료와 고분자흡수체에 대한 표기 의무가 없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sup>45)</sup>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1급 발암 물질의 경우 단순히 성분을 표시하고 끝내는 것이

43) 박철원, 「전 성분을 공개한다고 생리대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의학신문, 2017년 10월 19일.

44) 박기용, 「“생리대 사태, 식약처 못 믿어…총리 산하 민관공동위가 조사해야”」, 한겨레, 2017년 9월 20일.

45) 김보람, 앞의 신문기사.

아니라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어 효과적인 보완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가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나 생리대 사용 설명서 등을 통해 알리는 방법도 전성분표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향료, 고분자흡수체를 전성분표시제 대상으로 설정하여 생리대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기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포괄적 노출평가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즉, 포괄적 노출평가를 통해 기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외 검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범위를 넓힌 후, 보완된 전성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 성분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생리대 사용 후의 악영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리대로 인해 부작용을 겪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검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인체 위해성 검사를 통해 검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범위를 넓히고 인체로의 직접적 영향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전성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조치해야 안전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 IV. 추진계획

### 1. 생리대 보편지급 추진계획

#### (1) 공공시설 내 무료생리대 비치 추진계획

공공시설 내 무료생리대 비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게시판에 본 기획 · 제안서와 함께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정보를 담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략적인 비용추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 내 무료생리대 비치 사업과 관련하여 표적 인원 100명을 기본 단위로 장소 1곳을 선정하고자 한다. 전체 여성 인구의 50.9%가 가입기 여성임을 고려하여, 표적 인원 100명에 대해 해당 장소에는 여성 196명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사업을 계획해 보면, 여성 25,990,783명에 대해 총 132,000여 개의 비치 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국 공공시설 중 40%에 대하여 비치 시설을 별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할 때, 총 52,800곳에 각각 20,000여 원이 사용된다.

서울시는 표적 인원 100명에 대해 시범 사업을 펼친 결과 공공기관 1곳당 하루 평균 3.68개의 생리대가 사용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 1곳의 1달 생리대 보급량을 110개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 자료는 사업이 홍보되기 이전에 얻어진 것이므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공공시설 1곳당 1달 생리대 보급량을 200개로 설정하도록 한다. 이때 국가가 부담하는 개당 생리대 가격은 정책을 통한 저렴한 입찰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평균 개당 생리대 가격인 331원보다 낮은 250원으로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산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최초 1년 예산은 시설설치비에 소모품비를 합한 금액으로,  $52,800 \times 20,000 + 250 \times 200 \times 132,000$ , 즉 76억 5천 6백만 원이 산정되며, 이후에는 매년 66억 원의 예산을 설정할 수 있다.

비용 추계 결과(단위:백만 원)	최초년도	이후년도
공공시설 내 무료생리대 비치	7,656	6,600

#### (2)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매 바우처 제공 추진계획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매 바우처 제공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성가족부 내 ‘국민제안’ 게시판에 본 기획 · 제안서와 함께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정보를 담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략적인 비용추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거주 여성 청소년(만 11~18세)은 총 182만 명이다. 월경권 보장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에서 2번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여성의 1달 생리대 구매 비용이 16,615원으로 산출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1달 생리대 구매 바우처 제공 금액을 인당 16,500원으로 설정하면, 연간 1인당 19만 8천 원 상당의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매 바우처 제공사업의 예산은 연간 3,603억 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으로 운영되는 226개의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의 규모와 거주 여성 청소년의 수에 따라 3,603억 원이라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한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생리대 가격 인하 추진계획

### (1) 생리대 영세율 적용 추진계획

생리대에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 개정안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회 심의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로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웹 사이트’와 국회 홈페이지 내 ‘국민 제안 게시판’에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올릴 수 있다. 각 사이트에 게시할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여성의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 20. (생략) ② (생략)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 1. ~ 3.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 5. ~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략) <u>&lt;신설&gt;</u> ② (생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② (현행과 같음)

###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제·개정 권한을 가진 담당 부처,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행령 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책건의 및 질의 게시판’에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일부개정법령안과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u>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 ~ ⑥ (생략)</p>	<p>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 <u>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u></p> <p>2. <u>정당한 이유없이 신제품 또는 품질 개선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 혹은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또는 근소하게 낮게 산정하는 경우</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3. 생리대 안전성 강화 추진계획

(1) 생리대 인체 위해성 연구의 활성화 추진계획

생리대 인체 위해성 연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식약처 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R&D) 상시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제안 시 본 기획·제안서에 전문 인력 및 연구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기술한다면 생리대 인체 위해성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논리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보완 추진계획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를 보완하려면 식약처 고시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 열린 포럼’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포럼 참가를 위한 제출 서류에 ‘1급 발암 물질에 대한 강조 표시’ 등 구체적인 보완 방법을 명료하게 기술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V. 기대효과

1. 생리대 선별 지급의 한계 극복

공공시설 내 무료생리대 비치와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매 바우처 제공을 통한 생리대 보편지급은 기존 선별적 생리대 지급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

지 못하는 문제, 사회적 낙인 문제, 지원금액 불충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리대 지원사업의 근본 체계에 변화를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생리대 보편지급을 시작으로 여성의 월경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님을 사회 전체에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 완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생리대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독과점 생리대 업체의 생리대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강화한다면,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리대에 영세율 제도를 적용한다고 해서 생리대 업체가 반드시 생리대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현재의 생리대 시장 구조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되살린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3. 생리대 안전성 확보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며 생리대를 고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질의 점막이라는 체내로의 흡수가 가능한 기관과 근접해있기 때문에<sup>46)</sup> 문제가 생기지 않게 더욱 주의하게 된다. 결국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품인 생리대의 안전함을 포괄적 노출평가, 역학조사, 전성분표시제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릴 수 있다면 생리대와 생리대 회사, 식약처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과 ‘건강한 국민’이라는 두 키워드로 자신들의 비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기관이다. 식약처가 이러한 점을 명심한 후 생리대로 인한 피해 여성들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야 본래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4. 누구나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월경권 보장

대한민국 여성들은 여성이기에 당연히 월경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국가는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깎창 생리대 사건’, ‘생리대 가격 인상’, ‘생리대 발암 물질 검출’과 같은 월경권을 침해하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여전히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리대 공공기관 비치’, ‘바우처 제공’, ‘영세율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전성분표시제 보완을 통한 인체 위해성 연구 진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비로소 월경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46) 박철원, 「전 성분을 공개한다고 생리대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의학신문, 2017년 10월 19일.

## 참고문헌

- 김경림, 「여주시, 국내 최초 여성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원」, 한국경제, 2019년 04월 02일.
- 김보람, 「생리대 대신 기저귀?」, 경향신문, 2020년 08월 26일.
- 김원진, 「신제품 · 리뉴얼 ‘값 결정’ 규제 대상 빠져...공정거래법 독과점 기업에 ‘종이호랑이」, 경향비즈, 2018년 04월 04일.
- 남승현, 「‘깔창 생리대’5년...‘가난의 낙인’에 아픔은 그대로」, 노컷뉴스, 2020년 07월 16일.
- 박기용, 「“생리대 사태, 식약처 못 믿어...총리 산하 민관공동위가 조사해야」, 한겨레, 2017년 9월 20일.
- 박에스더, 「“공짜 생리대는 권리”...뉴욕은 왜?」, KBS 뉴스, 2016년 07월 13일.
- 박철원, 「전 성분을 공개한다고 생리대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의학신문, 2017년 10월 19일.
- 박효진,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터내는 소녀들의 눈물」, 국민일보, 2016년 05월 26일.
- 안지혜, 「생리대 독과점에도 ‘먼 산 보는’ 정부」, 브레이크뉴스, 2017년 10월 12일.
- 안현진, 「‘깔창 생리대’ 충격 3년,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왜 안되나」, 오마이뉴스, 2019년 10월 26일.
- 여성환경연대, 「모두를 위한 월경권」, <http://ecofem.or.kr/19632/>
- 유재훈, 「공정위 “유한킴벌리, 신제품·리뉴얼제품만 가격 높게 올려...규제 논란”」, 헤럴드경제, 2018년 04월 04일.
- 이덕용, 「2017년 1월부터 생리대, 기저귀 가격 10% 정도 인하될 듯」, 뷰티경제, 2016년 08월 02일.
- 이도연,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성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연합뉴스, 2020년 10월 02일.
- 이소라, 「선진국 ‘핑크택스’ 철폐 속속...한국 생리대 가격은?」, 아주경제, 2020년 10월 29일.
- 이안소영,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 『월간 복지동향』 248(2019).
- 이연우, 「[‘깔창 생리대’ 이후 4년, 여전히 생리가 두려운 청소년] 1. 월경가계부」, 경기일보, 2020년 06월 07일.
- 이호진,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성 물질”...유해성 논란 가열」, JTBC 뉴스, 2020년 10월 02일.
- 천지인, 「생리대 유해성 논란 다시 불 붙나」, 우먼타임스, 2020년 10월 03일.
- 미상, 「여성: 스코틀랜드 ‘생리 빈곤’ 끝내나」, BBC 뉴스 코리아, 2020년 02월 29일.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우수상

존재와 역사 명작 세미나

##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탐색

대중의 선택과 역사가의 설득

문과대학 사학과 홍석우

---

I. 머리말

II. E.H. 카의 역사관과 한계

III. 역사학의 대중화

IV. 대중의 선택과 역사가의 설득

V. 맺음말

## I. 머리말

현대인에게 역사의 정의를 묻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E.H. 카(Edward Hallett Carr, 1892~1982)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떠올릴 것이다. 그 만큼 현대 역사학에 있어서 『역사란 무엇인가』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조차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현재는 E.H. 카가 살았던 사회와 사뭇 많이 달라져 근대에서 벗어난 탈근대로 진입하였다. 과거 근대는 역사가들이 역사 연구의 주역이었지만, 탈근대에 이르러서는 역사가들의 역사 연구와 더불어 대중들이 역사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역사에 대한 권력이 역사가에서 대중들로 이동함으로써 역사와 대중 사이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다.

이제는 역사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정의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역사학에 대한 초점을 소비와 대중으로 옮겨 역사학의 정의를 고민할 필요가 보다 증대하였다. 본고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살펴보고, 비판한 다음에 현재 역사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가져온 역사 대중화의 과정과 그로 인한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의 끊임없는 대화에서 대중의 선택과 역사가의 설득의 과정으로 변화해가는 새로운 역사학의 정의를 제시하겠다.

## II. E.H. 카의 역사관과 한계

E.H. 카가 말하는 역사의 중심에는 역사가가 존재한다. 그에 의하면 역사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남겨진 사실들 가운데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역사적 사건으로 구성된다. 이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역사가의 시대적 위치가 반영되고,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역사가가 속해있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주관적 요소들이 개입된다. E.H. 카는 이러한 현상을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sup>47)</sup>로 명명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 과정은 추상적이고 고립적인 개인들 사이의 대화가 아닌 오늘의 사회와 어제의 사회 사이의 대화<sup>48)</sup>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E.H. 카가 말하는 역사학의 중심이자 권력자는 역사가이다. 근대의 역사는 엘리트 계층이자 소수 집단에 속해있는 전문적 역사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었고, 생산·소비되었다. 역사는 학문의 한 분야로서는 체계적으로 정립되었고, 근대에는 과학이 지식의 체계모니를 가진 시대인 만큼 전문 역사가가 역사학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sup>49)</sup>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에 근대의 대중들은 역사의 대중화로 역사를 접하였지만, 역사가에 비하면 역사를 생산·소비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탈근대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역사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역사학의 공고한 벽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현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그 시발점이었다. 더불어 역사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의한 역사지식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역사의

47) E.H. 카 저,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5, p.46.

48) E.H. 카, 위의 책, p.79.

49) 김기봉, 『히스토리야 쿠오바디스 - 탈근대, 역사학은 어디로 가는가』, 서해문집, 2016, p.9.

대중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역사의 패러다임이 대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를 재인식하는 탈근대에서 역사 지식 생산자인 역사학자만큼이나 소비자인 대중이 생각하는 역사는 무엇이든 중요해지고 있다. 대중들이 생산한 사극, 다큐멘터리, 만화,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역사콘텐츠들이 현재 소비되고 있고, 박물관에서 역사를 관람하는 대중들의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를 뒷받침 한다.<sup>50)</sup>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의 관점에서 역사 지식 생산자인 역사가만을 염두에 두고 역사학을 규정했던 E.H. 카의 견해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역사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대중의 힘을 반영함으로써 E.H. 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Ⅲ. 역사학의 대중화

역사의 대중화는 역사학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다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 대중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1)</sup> 물론 과거에도 존재하였던 역사의 대중화는 꽤 오래 기간에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속도와 범주, 깊이에서 보다 강화되고 있다. 역사학의 대중화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작동한다.

첫째는 종이의 보급과 인쇄술의 발달이다. 과거에 역사는 죽간, 목간, 금석 등에 기록되었고, 이에 따라 역사의 생산·보관·전달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고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종이의 보급과 인쇄술의 발달은 훨씬 쉽게 역사학을 생산·보존·보급하였다. 그 예시로 조선시대에는 주자소, 주자도감 및 교서관 등이 설치되었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과 같은 다양한 사서와 기록들이 제작되었다. 이 변화가 대중들이 역사를 소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이후의 역사 대중화에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52)</sup>

둘째는 ‘근대’라는 시기이다. 근대에는 대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근대는 국가 주도의 교육시스템을 확립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교양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근대 교육의 산물인 교과서를 통해 수동적으로 역사를 소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더불어 근대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었다. 대표적으로 출판 산업은 전문적인 인쇄업을 바탕으로 단행본류와 신문, 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들이 만들었다. 이는 서책의 생산과 보급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고, 역사 지식이 비전문가로 전달되면서 역사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53)</sup>

셋째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의한 역사의 확산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문가들에게서 먼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966년에 『창작과 비평』을 창간하면서 기존의 전문적인 학술지와는 달리 대중적인 독자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가 집단에 널리 받아들여져 역사 연구의 대중화를 표방한 『한국사 시민강좌』, 『역사비평』 등의 제작 출판에 영향을 미쳤고, 전문화·세분화된 연구에 대한 성과를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대중 서적을 집필하고 방송, 대중강의, 역사유적답사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역사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비전문가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역사대중화에

50) 김기봉, 위의 책, p.9.

51) 오향녕, 「역사 대중화와 역사학」, 『역사와 현실』 100집, 한국역사연구회, 2016, pp.91-92.

52) 주성지, 「역사대중화와 디지털 역사자료 - 역사소비의 변곡」, 『역사민속학』 55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pp.26-27.

53) 주성지, 위의 논문, pp.28-29.

뛰어들었는데, 1990년대에 개설서, 시대사, 향토사와 같은 다양한 역사서를 만드는 성과를 보였다. 물론 여기에는 배타성이 짙은 민족주의적 저술이나, 사회적 상식에 벗어나는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역사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역사가와 대중과의 간극을 축소하였다.<sup>54)</sup>

넷째는 정보기술의 발달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역사 디지털 자료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하였다. 이는 과거 연구자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사료에 대한 접근을 매우 쉽게 만들었다. 역사 생산의 재료인 사료를 바탕으로 대중적 역사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역사 대중화 과정과 또 다른 변화로 역사가에게 독점적이었던 역사권력이 대중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를 소재로 한 TV드라마, 영화 등이 만들어졌고, 역사를 이용한 창작물 등도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사료에 대한 접근기회의 확대는 창작의 모티브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역사콘텐츠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역사 대중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들의 역할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까지 대중들은 역사 소비에서 배제되거나 역사를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역사가가 생산하고 제공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자세였다. 그러나 역사의 대중화 그 가운데 정보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역사소비의 주체였던 대중이 역사지식을 제공하는 역사가와는 별개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역사를 생산하는 능동적 역사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sup>55)</sup>

이에 대한 현상으로 다양한 역사 유튜브 채널들의 등장을 들 수 있고, 지식소매상<sup>56)</sup> 주도 채널, 에피소드 위주 채널 등이 있다. 지식소매상 주도 채널들은 대표적으로 유시민의 채널과 설민석의 채널이 있다. 유시민이 출연하는 ‘돌베개’ 채널은 역사학 입문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설민석의 ‘단꿈 공식 유튜브’ 채널은 역사 관련 영화를 소개하거나 역사적 기념일에 맞추어 해당 사건을 다룬 콘텐츠를 게재한다.<sup>57)</sup> 에피소드 위주의 채널은 단편적인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한나TV’의 경우 야하고 충격적인 야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사람들을 자극하여 흥미를 이끌어 낸다. 그 외에 ‘라임양’ 채널은 삼국지, 카사노바, 라스푸틴 등의 흥미로운 소재들을 사실관계를 위주로 소개한다.<sup>58)</sup> 이러한 현상을 통해 대중들이 1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역사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공통적으로 콘텐츠를 팔기 위해서 역사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콘텐츠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의 과정이 지나치게 간결하고 단면적인 것은 문제점이다. 대부분의 역사콘텐츠에서 취하고 있는 지식전달 방식이 교과서식 전개, 민족주의적 서사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sup>59)</sup>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사학의 훈련을 받지 않은 대중들이 역사콘텐츠 제작에 손쉽게 참여하면서 역사적 왜곡과 오류의 양산도 우려된다.

54) 주성지, 위의 논문, pp.29-31.

55) 주성지, 위의 논문, pp.31-32.

56) 지식소매상이란 학술연구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지 않고 기존의 생산된 전문지식을 정리 후 재서술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스스로를 지식소매상으로 지칭하는 유시민과 역사지식을 판매하는 설민석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지식소매상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재원,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의 한국사 콘텐츠 생산과 판매 - 팟캐스트(Podcast)와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3집, 한국사연구회, 2018, p.7.

57) 김재원, 위의 논문, p.9.

58) 김재원, 위의 논문, pp.9-10.

59) 김재원, 위의 논문, p.11.

#### IV. 대중의 선택과 역사가의 설득

기존에 역사와 같은 순수학문 연구의 목적은 연구 결과물로부터 오는 성과가 중요하였고, 이는 학계로 불리는 집단에 의해서만 폐쇄적으로 공유되었다. 하지만 역사대중화를 거치며 역사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은 날이 갈수록 제고되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역사는 생산·소비되고 있다. 나아가 대중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등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중의 역할과 소비의 중요성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의 기존 목적과 학문적 성취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목적성을 알아주고 그에 대해 동의하는 과정에서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문적 성취는 학문 그 자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그것을 소비하는 객체가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는 엘리트들이 사회의 중심이었으므로 학계의 동의만으로도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대중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들의 동의는 학문적 성취에 있어 보다 중요해졌다. 이는 과거에 역사가의 현재와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바탕으로 역사를 생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대중에게 역사가 선택되어야 학문적 성취라는 가치를 얻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과거의 기억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의 역사적 가치로서 인정되는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와 대중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역동적인 관계는 역사가의 생산과 대중의 소비라는 역할로 항상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이 뒤바뀌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제 3의 소비자, 제 4의 소비자와 제 3의 생산자, 제 4의 생산자로 다시 재생산·재소비됨으로써 이러한 관계는 더욱 확장되어 간다.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유튜브(YouTube)와 같은 1인 미디어의 성장으로 누구나 자율적으로 역사콘텐츠를 생산·관리·판매하는 유통의 전 과정을 결정할 수 있게<sup>60)</sup> 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이 통합되고 있다. 또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1인 미디어의 소통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선택과 설득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기존 콘텐츠로부터 영감을 받아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이를 재소비하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대중들은 역사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고, 기존의 생산자로서의 역사 전문가 집단과 소비자로서의 대중이 공간적으로 구별되던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며 모호해지고 있다.

이제는 역사가가 역사를 서술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대중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설득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가 자신의 역사를 선택해줄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역사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이용하면서 역사를 하나의 상품으로 여긴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실적인 추론과 새로운 관점도 역사에 있어 핵심 요소이지만, 소비자들이 구미를 당길만한 매력적인 소재를 역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역사의 상품적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전달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보급하는 일은 역사의 효용성과 현재성

60) 김재원, 위의 논문, p.7.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sup>61)</sup> 그렇기에 역사가들은 역사 소비의 촉진을 위해 역사를 전문 언어가 아니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전달할 책무가 있다.<sup>62)</sup> 장황하고 어려운 역사는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기에 학문적 성취의 근간인 소비를 유도하기 힘들다. 이는 역사학 자체 존립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인 수준을 일정 정도로 유지하면서 기초 지식을 중심으로 흥미 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지식을 원하는 일부 대중에 한해서 평범한 한글체로 내용을 쉽게 풀어 쓸 필요가 있다.<sup>63)</sup>

결론적으로 역사는 E.H. 카가 말한 역사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재생산·재소비되는 설득의 과정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역사가와 대중에 대한 구분은 그 의미가 대폭 축소되었다. 대중과 역사가 모두 역사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단지 역사가는 역사의 생산에 있어 조금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역사의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자신들이 주장한 가치를 입증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설득의 과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역사 패러다임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 V. 맺음말

본고는 E.H. 카의 역사에 대한 정의를 비판하고 역사의 대중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입장에서 역사에 대해 선택과 설득의 과정을 중심으로 새롭게 고찰해 보았다. 물론 역사대중화가 진행되고, 대중이 역사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지나친 민족주의적 서사로 감정만을 자극하거나 역사적 왜곡과 오류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더라도 학문적 성취와 현재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선택과 설득의 과정 위에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의 역사가가 소비의 주체인 대중을 설득하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1인 미디어의 성장으로 역사가와 대중,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선택받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의 역사가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고민해 나간다면 역사라는 학문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지고, 현재 역사학의 존립 위기는 극복될 것이다.

---

61) 주성지, 앞의 논문, p.48.

62) 주성지, 위의 논문, p.48.

63) 김차규, 「역사의 소통과 대중화」, 『인문과학연구논총』 30집,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pp.16-17.

## 참고문헌

- 김기봉, 『히스토리아 쿠오바디스 - 탈근대, 역사학은 어디로 가는가』, 서해문집, 2016.
- 김재원,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의 한국사 콘텐츠 생산과 판매 - 팟캐스트(Podcast)와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3집, 한국사 연구회, 2018.
- 김차규, 「역사의 소통과 대중화」, 『인문과학연구논총』 30집,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오향녕, 「역사 대중화와 역사학」, 『역사와 현실』 100집, 한국역사연구회, 2016.
- 주성지, 「역사대중화와 디지털 역사자료 - 역사소비의 변곡」, 『역사민속학』 55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 E.H. 카 저,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5.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우수상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

### 인간의 이성(지성)과 불평등 사회의 필연성

-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중심으로

법과대학 법학과 노희연

---

#### I. 서론

#### II. 본론

1. 루소가 말하는 불평등의 기원
2. 인간과 인간의 본성(이성), 그리고 불평등과의 관계
3. 이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평화를 향해 내딛어야 할 첫걸음

#### III. 결론

## I. 서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 그 불평등이 사실 인간이 이성을 지녔기에 생겨난 ‘필연적인’ 결과라는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 사회의 불평등이 생겨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서술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지내며 생기는 기후, 지형, 짐승 등과 관련해 생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대처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우연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소유 관념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 소유는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수단이 아닌 욕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해 자각했고, 인간 본인에 대한 우월성을 인식했으며, 이에 따라 자존심과 타인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또한 가지게 되었다. 이 흐름에 맞춰 한 가지 의심을 가져보자. 인간이 이성을 지니지 않았더라면, 고도의 자각 또한 존재하지 않고 소유 관념과 욕구 또한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사실을 말해보자면, 인간이 아닌 짐승에게도 본인의 영역에 대해, 또한 본인이 직접 사냥한 먹잇감에 대해 빼앗기지 않겠다는 소유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들 짐승들 사이에서는 인간과 같은 불평등이 왜 생기지 않았는가? 아주 원초적이고도 본능에 충실했던 자연 상태의 인간에서 지금의 인간까지 오기까지에 대한 루소의 설명을 보며 필자에게 생겨난 궁금증이였다. 동족들을 관찰했던 것, 관찰을 통한 교류와 그 교류에 의한 편리함과 안락의 자각, 이득의 인식, 이득의 욕구에 따른 불평등으로의 귀착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까지와 다른 대답을 해보자면, 불평등은 열려있었던 수많은 결과의 길 중 한 가지였을 뿐이며, 인간은 본인들이 불평등의 길로 빠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 길을 향해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본 에세이에서는 루소가 말하는 불평등의 기원,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자각과 이성에 초점을 맞추고, 앞서 말한 의문에 대한 결론을 향해 필자의 생각을 증명해보며, 이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루소가 말한 자유를 향해 인간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방향까지 통틀어 말해보려 한다. 한 가지 첨언하건대, 필자가 언급하는 ‘이성’의 사전적 의미는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감각적 능력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sup>64)</sup>로 이하 인간의 이성이란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본성과 감각, 지성, 자각 능력과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단어로 파악하고 서술함을 알린다.

## II. 본론

### 1. 루소가 말하는 불평등의 기원

불평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나이, 건강의 차이와 정신의 자질 차이로 성립되는 ‘자연적 또는 신체적 불평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약속이나 동의에 의해 좌우되는 ‘도덕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이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논의되는 불평등은 후자의 불평등으로, 전자의 불평등은 자연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필자가 본 에세이에서 논하려고 하는 바는 역시 ‘도덕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에 속하며, 다만 여타 환경의

64) “이성”,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999.

영향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와 재화가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개인의 타고난 능력, 또는 노력의 차이로 생겨난 불평등을 논하지는 않겠다.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 즉 독단적인 권력과 폭력을 이용해 남을 희생시켜 만들어낸 불평등과 태어날 때의 주변 환경에 의한 물질과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예정된 불평등에 한정된다. 이것이 고정되어 자연이 법과 사회에 굴복하여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 제도(이를테면 전제군주제)에 고개를 숙였다.

루소에 따르면 불평등은 소유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이성 선형하는 ‘자기애’라는 감정이 존재했는데,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인 자기보존이 충족되면 만족하게 했다. 루소 역시 “자기보존에 끊임없이 마음을 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이것이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인간은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자기보존을 이뤄내고자 했다.<sup>65)</sup>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인간의 의지와는 관련 없는 우연적인 길(이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과 인간의 지혜(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떠올린 생각들)이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한 구절에서 예시를 살펴보자면, 벼락이나 화산에서 불을 발견한 것은 전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들에게 이득을 안겨주었던 불을 다시 생산해내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깨우친 것은 후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벼락이나 화산 또는 어떤 행운 덕분에 그들은 불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겨울의 혹한을 이겨내는 새로운 수단으로 삼았다. 그들은 불이라는 위소를 보존하고 다시 생산하는 방법을 배웠고 마침내 여태 날것으로 먹던 고기를 익혀 먹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었다. <sup>66)</sup>

인간은 이 길 위에 서서 관계의 자각, 지식을 터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인간으로서의 우월성, 자존심을 지니게 되었으며, 결국 개인으로서의 자부심 또한 가지려고 하게 되었다. 인간은 본인의 안락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어했다. 타인에 비해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인정받았고, 이는 불평등, 약덕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개인이 각자 가진 능력과 피에 따라 소유의 정도는 달라졌고, 모두 이를 지키기 위해 남보다 우위에 서려는 욕망과 남을 희생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타인에게 스스로 복종시키기까지 했다.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존재했던 연민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관계들은 인간들 사이의 규칙, 즉 제도에 의해 고정화, 아니 심화되었다. 불평등이 인간 사회 안에 뿌리를 잡고 들어선 것이다.

루소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특질’과 ‘자신을 개량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sup>67)</sup> 이 자유 의식과 완전가능성은 개화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이는 분명 인간이 원초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 정신적으로 뛰어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sup>68)</sup> 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연의 명령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 자연 속에서 자유의 주체로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본인의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 완전가능성

65) 박주병, 「인간의 자유와 행위의 우연성: 루소와 오우크쇼트」, 『도덕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2010, 115~143쪽.

66)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2003, 106쪽.

67)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2003, 68쪽.

68) 정승욱, 「루소에 있어서의 자연과 역사의 문제: 『불평등 기원론』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제25권, 2007, 335~359쪽.

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었는데, 이는 순진했던 원초 상태에서 지금의 인간을 이끌어 내고 인간이 자신과 자연에 대해 폭군이 되게 하였다. 69)

## 2. 인간과 인간의 본성(이성), 그리고 불평등과의 관계

루소에게 생명과 자유는 자연의 핵심적 산물이고 인간 존재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문명사회에서 그 자유를 상실하였다. ... 이에 반해 우리 자신은 문명사회에서 이성의 진보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타락하였다. ... “나는 불행한 쇠명에 아래 떨어지고 있는 불행한 인민들을 본다. 모든 인류는 소수 억압자에 의해 분쇄되고, 굶주리는 대중은 고통과 기아에 의해 고문당한다. 그에 비해 부자는 그들의 피와 눈물을 평화롭게 활아 먹는다. 그리고 온 세상에는 약자에 대해 법률의 가공할만한 힘으로 무장한 강자의 군림만 있을 뿐이다. 70)

본 장에서는 루소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과 함께 더불어 필자가 앞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향해 귀결하고자 한다. 불평등이란 소유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데, 필자는 그 관념(소유 관념과 더불어 생겨난 수많은 관념들)의 생성이 애초에 인간이 지능과 이성, 즉 동물과는 다른 본성을 지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불평등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필연의 결과였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인간의 본성은 현대 사회의 인간이 그렇듯 사악하고 이기적이지 않았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게 태어났지만 사회로 인해 타락했다는 사상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루소는 불평등의 기원을 탐색하기 위해 떠나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제도와 사회로 손상되지 않은 인간이 원래 품고 있던 본성을 찾고자 했다. 현재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었고, “불평등은 인간의 본성과 모순된다.”라는 말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71) 즉, 불평등은 원초의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본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루소는 “이제 나는 인간을 사교적으로 만듦으로써 사악하게 하며 마침내는 인간과 세계를 까마득한 출발점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점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우연을 검토하고 비교해보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불평등을 향해 나아가게끔 그 구조를 만들어낸 ‘우연’을 말한다. 72) 다음은 강원대학교 정승욱 교수의 논문 <루소에 있어서의 자연과 역사의 문제: <불평등 기원론>을 중심으로>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행의 계기를 ‘우연’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언명은 역사발전에서 필연성을 부인하는 루소의 입장을 드러내는 정당한 근거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는 또한 자연상태가 역사적 개념이 아님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로 제시되어 왔다. ... 루소가 말하는 우연이란, 우연성이란 추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자연’이었던 ‘인간’이 자연을 벗어나가 점점 더 그 거리를 멀게 하는 과정에서의 비약적인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이 비약적인 단계는 인간을 다른 동물 그리고 자연과 다를 수밖에 없게 해줄 ‘자유로운 주체자로서의 자질’과 ‘완전가능성’이라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73)

69)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2003, 68~69쪽.

70) 장세룡, 「루소의 자유론」, 『대구사학』, 제76권 제76호, 2004, 399~433쪽.

71)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찾아서”, <프레스리안>, 2018년 9월 8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9987?no=20998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ODKU](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9987?no=20998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ODKU) (2020. 12. 6 - 접속날짜).

72)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2003, 102쪽.

73) 정승욱, 「루소에 있어서의 자연과 역사의 문제: 『불평등 기원론』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제25권, 2007, 335~359쪽.

이러한 맥락에 따라 생각해보면, 그렇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른 본성과 능력, 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건대, 인간은 본인들이 이뤄내고 있는 것들이 후에 어떠한 결과(즉, 불평등)를 초래할 줄도 모르고 우연이 열어준 길을 따라 무의식적으로 걷고 있던 것이었다. 인간이 이성과 그들 고유의 능력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부정적인 개념인 불평등은 우연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산물인데, 소유 관념의 생성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인간 사회에 변화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었지만 그 수많은 길들 중 어떠한 우연들로 인해 불평등 생성의 길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 것이다. ‘과일은 모두의 소유이고 땅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을 잇는다면 모두 과멸할 것’이라고 말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말이다.<sup>74)</sup> 어떤 고약한 우연이 인간에게 야금술과 농업이라는 기술들을 발명하게 해 혁명을 일으켜 인간을 전쟁상태에 빠져들게 했으며, 인간은 또 우연의 산물인 정치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불평등이 도래하는 문명사회로 이룩하게 되었다. <sup>75)</sup> 인간의 이성과 지능, 능력은 하필 그 우연성으로 인해 인간이 불평등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방향으로 개화되었다.

### 3. 이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평화를 향해 내딛어야 할 첫걸음

그렇다면, 마치 고정되어있는 듯 우리 사회 속에 깊게 자리 잡힌 불평등을 영원히 안고 가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더이상 자연 상태의 인간처럼 순수해질 수 없는 것일까?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말하는데, 이는 태초 자연 상태의 인간이 되라는 의미보다는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자연적 성질을 키워나가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루소가 불평등의 원인을 소유 관념의 생성에서 찾은 만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경제적 평등’을 우선적으로 주장했고 ‘사적 소유권의 규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루소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는 무제한적인 부의 축적을 반대할 뿐 ‘사유재산 자체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타인에게 지배, 종속당하지 않을 만큼의 소유를 인정하자고 한 것이다.<sup>76)</sup> 원초의 인간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함을 루소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루소는 그저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자신을 속박하는 내면적 억압, 즉 이기심 또는 정념에서 벗어나 선함을 회복하고 양심의 명령에 따르기를 바랐다.<sup>77)</sup>

한편, 자연 법학에서 자연법은 ‘자연의 법칙 혹은 자연의 필연성’으로, 자연적 필연성의 의미가 강조될 때 그 ‘법칙’의 의미가 발생한다. 자연법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선형적, 도덕적, 규범적 질서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이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이다. 포괄적인 자연법이론가들과는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루소 역시 자연법과 인간 본성의 연관성을 받아들이며, 루소에게 자연법이란 ‘이성과 양심의 법’으로 나타났다.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자연과 질서의 영원한 법은 존재한다. 현명한 사람들에 있어서 자연법은 실정법을 대신한다. 자연법은 양심과 이성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쓰여져 있다. 인간은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이 법에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자연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고, 평등하게 만들며, 타인을 사랑하게 만들며, 사회성을

74)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2003, 104쪽.

75) 정승욱, 「루소에 있어서의 자연과 역사의 문제: 『불평등 기원론』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제25권, 2007, 335~359쪽.

76) “다시, 루소의 목소리를 듣다”, <대학신문>, 2012년 9월 23일.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25>>, (2020.12.5. - 접속날짜).

77) 김경근, 「루소와 개인의 자유」, 『건지인문학』, 제27호, 2020, 53~81쪽.

향상시키고, 공동선을 추구하게 한다.<sup>78)</sup> 루소의 자연법에서 불평등이란 발생할 수 없으며,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산물(실정법)에서 발생할 뿐이다.

이러한 배경지식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자연법을 따라야겠는가? 루소(이자 필자)가 바라는 평등의 방향은 어디인가? 루소에게 자유의 필연적 전제조건은 자연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독립성이 아니다.<sup>79)</sup> 인간은 신이 부여한 선성인 자연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영향으로 선성을 더럽히게 되고 마침내 선성을 잃게 되었다. 루소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살아갈 터전으로서의 사회가 타락하였다고 보기에 사회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선성을 발현시킬 방법이 없다고 한다.<sup>80)</sup> (이것이 곧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루소를 대표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다.) 자유는 자연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유는 자연 그 자체이며, 인간은 자연의 순서를 따를 때 자유롭다.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에 따를 때 욕구와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 만족할 수 있다. 루소가 생각한 자연인은 단순 미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 이성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 그가 본 사회 속의 자연인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유라는 개념과 개인이 소유의 이득을 취해야만 하는 이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갖가지 수단, 만연한 불평등, 불평등에 적응하는 방법, 그나마 나은 처지를 위해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야 하는 방법과 같이 온갖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타락한 것에 대해 계속 학습하고 이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종의 세뇌로 자리잡히게 된다. 난 순간부터 부당함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마치 미개인이 '권력'과 '명성'이라는 단어의 일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타인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르듯이, 우리도 진정한 '자유'와 '여유'에 대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며,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의미 자체를 아예 가지지 못하기에, 이런 문명인의 상태에서 '완전'한 자연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허나 필자는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과 동물과는 다른 본성들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렇게 인간은 고도의 지능과 이성을 가졌기에 완전한 자연 상태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실천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으며, 이렇게 얻은 지식을 토대로 그 의지만 있다면, 자연 상태로 회귀하려는 시도나 노력 자체 또한 가능해진다. 자연 상태와 비슷하긴 하지만 문명사회는 탈피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즉 여전히 문명에 묶여있긴 하지만 자연 상태의 인간을 흉내 내는 형태로는 회귀할 수 있을 것이다. 날 때부터 문명사회를 접하고 자랐기에 갑작스러운 자연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없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여전히 문명에 묶여있긴 하지만 루소가 말하는 자연 상태와의 일정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는 그만큼의 묶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원초의 자연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루소 또한 이를 인정했고 지금보다 나은, 자연 상태의 성질로의 사회의 변화 방향성을 추구한 것이기에, 그는 인류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III. 결론

지금까지 루소의 입장에서 바라본 인간 불평등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이성 또는 지성과 불

78) 김용민,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연구』, 제7권, 1997, 207~224쪽.

79) 장세룡, 「루소의 자유론」, 『대구사학』, 제76권 제76호, 2004, 399~433쪽.

80) 서영현, 반채익, 「루소교육이론에서의 자연과 자유의 의미」, 『한국교육사학』, 제26권 제2호, 2004, 121~147쪽.



평등 간의 우연성, 평등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방향성의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소유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자각한 편리함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들은 협력하고 서로를 견제하거나 심지어 희생시켰고, 타인의 복종과 타인에게의 복종은 현재 문명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역사가 이행되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했는데, 이 요소들이 결합해 여러 가지 우연들이 탄생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의 눈에 '불평등'이라는 표지판이 가장 튀도록, 가장 커보이도록 만들었다. 인간의 이성과 본성은 그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따라가도록 만들었고, 결코 이성이 그 길을 가도록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루소 또한 인정한 것처럼, 태초의 자연 상태로의 회귀는 더이상 불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고도의 이성을 가지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고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 의도적으로 평등과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루소는 사유 제도를 전면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 사유재산이 권력 관계를 유발하지 않을 만큼만, 즉 인간 개인의 자유 행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스스로를 타락에 빠뜨리지 않을 만큼의 재산은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사점은 이성을 가진 자유로운 주체자로서의 인간이 이제의 길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 선택권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어준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타인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며 본인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고, 억압에서 온 행복으로 부당한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불평등을 고정화하고 심화시키는 데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태초의 '고립된 인간'의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시민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며, 완전해질 가능성을 통해 자기개선을 도모하고, 인간 정신의 독립성을 보존한다. 시민적으로는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된 사회에서 자연적 자유와는 다른 자유를 보장받으며 인간종의 지적능력, 사상, 감정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 그들은 자기 보존을 성취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율적으로 의지하며 본인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도덕적으로 본인의 이성과 양심에 의해 스스로 도덕적 규칙에 따르며 자아를 확대, 발전시킨다. 필자는 유일하게 이성을 가진 동물인 인간이 그 이성을 도구로 이용해 루소가 말했던 자연 상태의 성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 자체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불평등은 결코 인간이 적응해야 할, 그리고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더욱더 고도화된 이성을 지니게 된, 그리고 이 이성의 정도를 더욱 향상시킬 것이 분명한 인간은 길을 인식할 수 있다. 수많은 길(즉, 가능성)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다. 택한 길을 걷다가 옳지 않음을 느낀다면, 뒤돌아서 원점으로 가 다른 길을 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의 중간에 나 있는 연결의 지름길로 가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 끝으로, 루소가 외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의 사회에서 자란 우리 세대가 그에 길들여지지 않으려 저항하고 자유를 외치기를 바란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한 인간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고 인간성의 권리 심지어 그 의무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그런 포기는 인간의 본성과 양립할 수 없다. 그의 의지로부터 모든 자유를 제거하는 것은 그의 행동들로부터 모든 도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sup>81)</sup>

81)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1762.

## 참고문헌

### 국내 논저

- 김경근, 「루소와 개인의 자유」, 『건지인문학』, 제27호, 2020, 53~81쪽.
- 장세룡, 「루소의 자유론」, 『대구사학』, 제76권 제76호, 2004, 399~433쪽.
- 김상현, 박고운, 박지원, 김희용, 「롤즈의 루소 이해: 자기애, 이기심, 일반의지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4권 제2호, 2015, 149~174쪽.
- 박주병, 「루소의 사회사상에 나타난 인간본성론과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2004, 41~68쪽.
- 박주병, 「인간의 자유와 행위의 우연성: 루소와 오우크쇼트」, 『도덕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2010, 115~143쪽.
- 서영현, 반채익, 「루소교육이론에서의 자연과 자유의 의미」, 『한국교육사학』, 제26권 제2호, 2004, 121~147쪽.
- 오창진, 김희용, 「루소의 '자연' 개념에 관한 연구」, 『교육철학』, 제45권 제45호, 125~160쪽.
- 임태평, 「루소의 자연개념과 자연인」, 『교육철학』, 제29권 제29호, 2006, 45~64쪽.
- 장세룡, 「루소의 자유론」, 『대구사학』, 제76권 제76호, 399~433쪽.
- 정승욱, 「루소에 있어서의 자연과 역사의 문제: 『불평등 기원론』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제25권, 2007, 335~359쪽.

### 기타 자료

- “다시, 루소의 목소리를 듣다”, <대학신문>, 2012년 9월 23일,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25>>, (2020. 12. 5 - 접속날짜).
-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찾아서”, <프레시안>, 2018년 9월 8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9987?no=20998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9987?no=20998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2020. 12. 6 - 접속날짜).
- “[이 한 권의 책] 인간 불평등 기원론”, <주간경향>, 2020년 1월 13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2001031558011&pt=nv>>, (2020.12.6. - 접속날짜).
- “장 자크 루소가 파헤친 분쟁과 불평등의 원인”, <news1>, 2020년 9월 2일 <<https://www.news1.kr/articles/?4044638>>, (2020. 12. 4 - 접속날짜).
- “평등은 이상, 불평등은 현실”, <네이버뉴스>, 2007년 3월 28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02064>, (2020. 12. 5 - 접속날짜).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장려상

자기표현 글쓰기

## 된장찌개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 한건희

---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의 한마디에 학생들이 분주해진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 필기구를 정리하는 소리, 학생들의 이야기 소리와 발소리는, 어쩌면 히터 때문이었는지 모를 무거웠던 강의실의 분위기를 언제 그랬냐는 듯 신선하게 바꾸기에 충분했다. 나도 흐트러진 필기구와 종이들을 정리하고, 외투를 걸치며 일어났다. 다른 학생들의 발걸음에 맞춰 강의실을 나섰다. 뉴스에서 봄이 왔다고 한지가 한참이 된 것만 같은데, 강의실 밖 복도의 공기는 서늘했다. 자연스럽게 이어폰을 꺼내고,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한다. 조금은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곧장 역으로 향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귀를 막고 걸다가, 허름한 백반집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춰 섰다. 아직은 추운 날씨 때문이었는지, 늦은 시각이라 허기가 졌는지 별다른 고민 없이 백반집 문을 열었다. 종소리와 식당 아주머니의 “어서오세요” 하는 소리가 거의 동시에 나를 반겼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네고는 히터가 가까운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걸어오는 내내 불편했던 외투를 의자에 걸치고 메뉴판을 보았다. ‘제육볶음, 김치찌개, 된장찌개, ...’ 잠시 고민하다가 별 생각 없이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곧 이어 옥 색깔을 띠는 상 위에 식사가 올려졌다. 아주머니께 짧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 잠시 된장찌개를 응시한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가득 채웠다. 뜨거운 국물 탓에 여러 번 입김을 불었다. 선명했던 된장찌개가 희미해진다. 가슴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에 숨이 가빠진다. 곧이어 두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른다. 혹여나 누가 볼까, 누가 들을까 숨죽여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계속 슬픔을 토해냈다. 된장찌개가 식을 때까지...

2016년 봄,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때처럼 같은 시각에 학교를 마치고, 같은 친구들과, 같은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삐 뽁뽁뽁”.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집에 들어왔다. 반갑게 엄마를 맞으러 현관으로 향했다. 중문을 열고 맞이한 엄마의 표정은 웃고 있었다. 그런데 슬퍼 보였다. 이유는 몰랐지만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는 내 물음에, 엄마는 작게 웃으며 “아 엄마 친구 만나느라고, 저녁 먹어야지 아들, 오늘은 된장찌개 먹자”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엄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연신 기침을 계속했다. 걱정되는 마음에 “오늘 병원도 다녀 왔어? 엄마 기침한지 오래됐잖아.” 라는 내 물음에, 엄마는 “병원 갔더니, 그냥 비염이랑 천식 때문이래” 라며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엄마의 계속된 기침이 걱정은 되었지만, 평소에도 ‘비염과 천식’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던 엄마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하루가 지났다.

늦은 저녁 시간. 엄마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짧은 수신 대기음에도, 웬지 모르게 숨을 죽이며 긴장했다. 이내 밝은 목소리의 엄마의 음성이 들렸다. 엄마의 “여보세요?” 한 마디에 긴장이 풀리고 안심이 됐다.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되어 전화했던 내 말에 엄마는 할머니 댁에서 자고 갈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당시 할머니 댁이 10분 거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 자주 찾아뵈었기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제 슬퍼 보였던 엄마의 눈동자가 마음에 걸렸지만, 큰 걱정 없이 또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늦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엄마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가 집에 들어왔다 나간 흔적조차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날보다 길었던 수신 대기음은 불안함을 더했다. “여보세요. 건희니?”.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모였다. “이모, 엄마랑 같이 있어?” “엄마 좀 바꿔줘” 라는 내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동안 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모가 답했다. “잠깐만, 엄마 바꿔 줄게”. 콜록거리는 엄마의 기침 소리와 함께 수화기 저편에 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 건희야” 여전히 엄마의 목소리는 맑았다. 엄마는 이모랑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왔다고, 아빠한테 얘기 못 들었냐고 나에게 되물었다. 그리고 엄마는 이 말을 덧붙였다. “수능 준비하느라 고생인데, 엄마가 못 챙겨줘서 미안해 건희야.” 평소에 엄마가 여행을 잘 다니지 않았기에,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재밌게 다녀오라고 말을 건네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다.

엄마의 여행은 생각보다 길었다. 어느덧 한 주가 흘렀다. 오랜만에 여행을 떠난 엄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에, 연락은 저녁에 짧은 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바고 같은 나는 너무 늦게, 엄마의 여행이 2주에 다다랐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부터 이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엄마를 바꿔주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과 의심이 커진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모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를 바꿔 달라는 내 말에, 이모는 엄마가 자고 있다며 다음에 전화하라고 답했다.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며, 나는 숨죽이며 이모에게 물었다. “이모, 혹시... 엄마 어디 아파?”. 수화기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점차 확신으로 변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는 작게나마 이모가 흘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곧 터져 나올 것만 같은 울음을 꼭 참으며 이모가 말했다. “건희야... 엄마가...엄마가...” 차마 이모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던 온갖 걱정, 불안과 의심들이 뒤섞이며 뜨겁게 내 가슴을 조였다. 손과 발이 떨려 수화기를 놓칠 뻔했다.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모에게 병원을 물었고, 곧장 집을 나섰다.

충혈된 두 눈과 젖은 두 뺨 아무거나 걸쳐 입은 내 물골이 말이 아니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 것 같았다. 평소 사람들을 의식하는 나였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엄마가 괜찮았으면...엄마가 괜찮았으면...’ 하는 내 바람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뿐이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새 택시는 병원 앞에 도착해 있었다.

복잡하고 분주한 병원 창구와 로비는 내 머릿속을 백지처럼 하얗게 만들었다. 눈동자만이 수많은 환자들 속에서 혹여 엄마가 있을까 하고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내게 병원 직원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나는 엄마의 병실이 적힌 이모의 문자를 보여주며,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다. 그렇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병실이 있는 병동 8층에 도착했다.

나는 잔뜩 긴장하며 무거운 걸음으로 엄마의 이름이 적힌 병실을 찾아 걸었다. 반대편 복도 중앙 병실에 엄마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있었다. 막연한 두려움에 잠시동안 문밖에 가만히 서 있었다. 당장 터질 것 같은 울음을, 이를 악물며 꼭 참고 병실 문을 열었다. 그러나 울음을 참으려던 내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병실 한편에 누워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본 순간 참아왔던 울음이 쏟아졌다. 인공호흡기와 수많은 바늘을 꽂은 엄마를 본 순간 내 가슴은 무너졌다.

눈물이 앞을 가려 엄마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엄마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힘 없이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보고 싶었던 거회야”.

내게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내 답은 ‘된장찌개를 먹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날 저녁 엄마가 끓인 ‘마지막 된장찌개’를 먹지 않았다. 그저 배가 고프지 않다는 이유였다. 분명 엄마는 여러 번 나에게 밥을 먹자고 권했지만 나는 먹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에 부엌에서의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너무나 선명해서 그 장면이 그날의 나를 꾸짖는 것 같다.

길고 어두운 암 투병의 터널에 들어가기 하루 전, 엄마는 그 소중한 시간을 나와 밥을 먹기 위해 썼다. 분명 그날의 엄마는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런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여행을 다녀온다는 거짓말을 한 것도, 내가 걱정할까봐,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런 이유였다. “보고 싶었어” 라는 엄마의 말과 나를 끌어안는 힘 없는 엄마의 팔이 내 가슴에 망치질하는 것만 같았다.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아들 걱정이 우선인지라 ‘보고 싶다’ 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간의 인내, 답답함, 슬픔이 터져 나와 체온으로 느껴졌다.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아차렸다면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일찍 병원에 왔다면 엄마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뭐라고, 그깟 공부가 뭐라고’ 이런 생각들이 내 가슴을 채찍질하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사랑을 경험한다. 그 사랑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고, 그 형태와 종류가 다양할 것이다. 친구와의 우정, 전우애, 동료들 걱정하는 마음,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까지. 사랑하는 마음에 크고 작음은 있어도, 사랑이란 것이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보다 특별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엄마의 사랑일 것이다.

수줍었던 10대 때의 사랑도, 불같았던 대학생 때의 사랑도, 엄마의 그것과는 결이 같이 않다. 무조건적인 사랑.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음에도, 엄마의 눈과 손은 오직 나에게 향해 있었다. 엄마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투병 생활 중에도 엄마는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았다. ‘우리 건희 제대하는 거까지는 봐야 하는데’, ‘우리 건희 취직하는 거까지는 봐야 하는데’. 엄마가 말하는 미래도 온통 나로 가득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학력, 돈 따위가 아닌 ‘엄마’ 였다. 세상 그 누가 자신의 삶보다 나를 더 우선시할까. 부모의 사랑이란 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무조건적이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비록 엄마는 떠났지만, 긴 세월동안 엄마가 가득 채워준 사랑은 지금껏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 훗날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엄마의 사랑이 나의 자식에게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고이 간직하고 그에게 새로운 기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 바람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그날 ‘된장찌개’를 끓이던 엄마의 뒷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장려상

실용 글쓰기

## 대학생들의 연애담 공모전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세은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초현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 신민선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안재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연예진

---

### I. 기획 이유 및 배경

### II. 기획 목적

### III. 기획 진행 방식

### IV. 기획 내용

1. 세부 일정
2. 홍보 영상 콘티 및 홍보물 제작, SNS 개설 및 관리

### V. 기획 방법

1. 사연 접수 방법
2. 생방송 진행 방법
3. 최종 순위 선정 방법
4. 상금 협찬 및 분배 방식

### VI. 유의사항

### VII. 기대효과

[부록] 연애담 공모전 관련 사전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 결과

I.  
기획 이유  
및 배경

1. 공모전 제안의 이유

취업 및 학업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대학생들과 20대의 주요 관심사는 연애이다. 현재까지 대학생들을 포함한 20대 대상의 많은 공모전이 존재하였지만, 연애담과 관련한 공모전은 주춤했던 바 없었다. 따라서 연애담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연애 경험을 돌아보고, 단순히 사연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사연을 소개하여 댓글과 패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연애에 대한 고민과 문제 등을 풀어가면서 조언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기획 배경

대학생들이 학업, 취업과 함께 연애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그들을 위한 연애담에 관한 공모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기획의 배경이 되었다. 공모주체는 캠퍼스픽이며, 공모전의 사연 접수는 이십세들 유튜브 커뮤니티, 이십세들 인스타그램, 연애담 공모전 인스타그램, 캠퍼스픽 공모전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생방송은 유튜브 채널 ‘이십세들’에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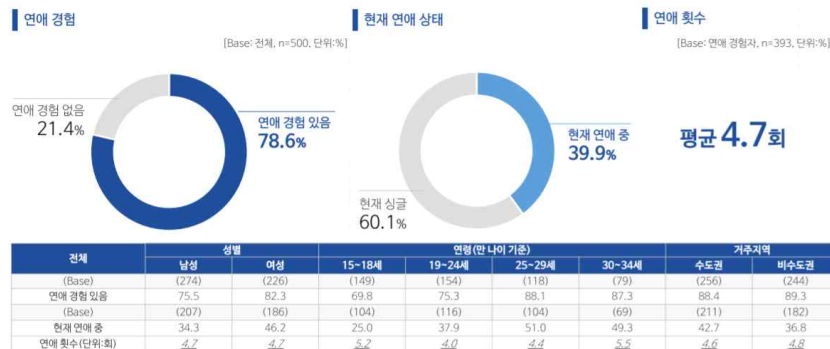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진행방식을 참고한다.

(1)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조사 결과<sup>1)</sup>

1. 연애 실태 | 1) 연애 경험 및 연애 횟수

밀레니얼&Z세대 10명 중 8명은 연애 경험, 평균 연애 횟수 4.7회

- 10명 중 8명(78.6%)은 연애 경험이 있으며, 경험자 중 4명(39.9%)이 현재 연애 중으로 나타남.
- 연애 경험자는 평균 4.7회의 연애를 해 보았으며, 연령이 가장 높은 30~34세가 5.5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5~18세가 높음(5.2회).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밀레니얼 & Z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애 경험 및 횟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2019)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연애 경험이 존재, 평균 연애 횟수는 4.7회이다. 이 중 본 공모전의 주요 대상이 될 19세~29세 272명의 결과를 따로 합산하면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은 220명으로 80.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 중 현재 연애 중인 사람은 95명으로 42.2%이다. 또한 평균 연애 경험은 4.2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애가 많은 사람에게 인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일보의 대학 대나무 숲 '불안' 게시글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조사 결과<sup>2)</sup>



2017년 1월 1일 ~ 8월 31일까지 12개 대학(고려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중앙대)을 선정하여 '불안' 게시글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45개를 선정하였다. 이 중 불안, 걱정,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언급된 게시글 913건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연애에 관한 게시물이 379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또한 하위목록까지 고려해 봤을 때 연애 관련 고민이 913건 중 426건이나 되며 약 50%에 가까운 수의 대학생들의 응답으로 보아 고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고민을 익명성에 기대어 풀어가고자 하는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3) 생방송을 유튜브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가.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하는 플랫폼

KT 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의 '2020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 Netizen Profile Research)'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9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모바일 위주' 혹은 '모바일에서만'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1시간 38분이며, 이 중 10대의 시청 시간은 2시간 35분, 20대는 2시간 6분으로 이용량 측면에서 다른 연령대 대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즉,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고 생방송 영상과 각 사연 클립 영상을 올려 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공모전이 20대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만큼 유튜브를 이용한 생방송이 가장 접근성이 좋을 것이다.



동영상 시청 채널 (사진=나스미디어 제공)  
 나스미디어, '2020 인터넷 이용자 조사' 결과 발표

### 나. 공모전의 적합성

이 공모전은 자신의 사연을 단순히 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 주제에 맞는 사연을 소개하고 이러한 연애를 경험해본 다양한 사람들의 실시간 반응과 분야별로 투표를 통해 순위를 정하기에 사연을 소개함과 동시에 실시간 댓글 등의 반응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위 조건을 만족하며 가장 이용자 수가 많고, 편하게 접근 가능한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또한, 생방송을 놓치더라도 다시 보기 서비스와 클립 영상 등을 올려 투표 진행 시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다. 생방송 진행 예정 유튜브 '이십세들'의 적합성

생방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유튜브 채널 '이십세들'은 '20대가 말하고 20대가 공감하는 20대의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프로그램의 형태이며, 본 공모전의 취지인 대학생의 연애담을 풀어 나갈 생방송 진행과 관련한 콘텐츠와 유사한 연애 관련 영상 등을 주로 업로드하고, '오영하(오늘 영업 하나요?)'라는 연애 상담 콘텐츠를 국내 오디오(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모전 유튜브 라이브 진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 II. 기획 목적

### 1. 기획 목적

사람들의 연애에 관한 관심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예시를 '연애의 참견', '우리 이혼했어요.', '일호가 될 순 없어', '아내/연애의 맛', '동상이몽-너는 내 운명' 등 나열만 해도 그 수가 방대해진 게 하나의 증거이다. 이러한 연애담을 다양한 연령대가 가지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연애담만을 다루는 방송이나 공모전 등의 장이 많이 열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순수하게 사람들을 만나며 희노애락을 추구하는 시절은 20대까지가 마지막 노선이라는 말이 있다. 이에 따라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한 연애담을 공유하면서 위로와 공감을 받는 치료의 장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p>었다. 또한, 신선한 즐거움과 연애를 주제([부록-1] 1,2번 문항 참고)로 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어느 때는 마치 킬투쇼처럼 웃긴 연애담, 어느 때는 공감되는 화나거나 슬픈 연애담 등을 공유하며 시청자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연애 중인 사람들과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연애관 확립과 건강한 연애를 도와주는 순기능을 위해 기획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b>Ⅲ. 공모전 진행방식</b></p>	<p><b>1. 연애담 공모전 진행 순서</b> 연애담 공모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p> <p>(1) 영상 콘티 제작 연애담 공모전을 주제로, 공모전에 대한 소개와 진행방식, 일정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획한다.</p> <p>(2) 영상 제작 및 홍보 기획된 콘티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생방송 진행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급한다. 영상 제작의 경우 유튜브 ‘이십세들’ 채널의 패널들이 진행하며, 공모전 홍보용 유튜브 영상 게시와 사연 접수 기간 내 영상 끝부분에 홍보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다. 연애담 공모전에 맞게 참여자를 모을 수 있도록 캠퍼스픽, SNS(인스타그램), 생방송 진행 예정 유튜브를 통하여 홍보한다. 홍보물과 홍보 게시물 디자인은 모두 직접 한다.</p> <p>(3) 생방송 진행 최종 선발된 분야 별 5개의 사연을 유튜브 채널 ‘이십세들’에서 소개한다.</p> <p>(4) 시청자 투표를 통해 분야별 사연 순위 선정 생방송 사연 소개 진행 이후에 투표를 진행하여 분야별 1표의 투표를 진행하여 사연 순위를 선정한다. 분야 별 1위, 2위, 3위 각 3명씩, 총 9명을 선발한다.</p> <p>(5) 최종 순위를 공지하고 개별 연락을 통해 상금 전달 최종 순위는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한다. 개별 연락을 통해 지원서와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상금 수령을 안내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세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 내용에서 다룬다.</p>						
<p style="text-align: center;"><b>IV. 기획 내용</b></p>	<p><b>IV-1. 세부 일정</b></p> <p><b>1. 세부 일정표</b></p> <table border="1" data-bbox="400 1823 1406 2024">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날짜</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일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월 22일</td> <td>접수 플랫폼(구글 설문) 및 양식 구축 공모전 홍보용 SNS 개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월 22일~</td> <td>공모전 홍보용 포스터 / 영상 제작</td> </tr> </tbody> </table>	날짜	일정	12월 22일	접수 플랫폼(구글 설문) 및 양식 구축 공모전 홍보용 SNS 개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12월 22일~	공모전 홍보용 포스터 / 영상 제작
날짜	일정						
12월 22일	접수 플랫폼(구글 설문) 및 양식 구축 공모전 홍보용 SNS 개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12월 22일~	공모전 홍보용 포스터 / 영상 제작						

12월 25일	SNS 이용 홍보 시작 영상 제작 후 생방송 진행 유튜브 채널로 배급
12월 26일	캐퍼스픽, 유튜브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 공모전 게시글 업로드
12월 28일	공모전 사연 접수 시작
12월 28일~ 01월 18일	* 사연 접수 기간 *지속적인 Q&A 진행(인스타 등 정리 후 업로드) *매주 사연 검토
01월 19일~ 01월 23일	연애담 접수 마감 연애담 최종 선별 / 생방송 준비 기간
01월 23일	본선(생방송) 진출자 개별 안내 생방송 사연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
01월 23일~ 01월 29일	생방송 진행 홍보 (인스타그램, 유튜브 커뮤니티 등)
01월 29일	생방송 진행 방송 직후 최종 순위 투표 진행(구글 설문 이용) 생방송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클립 영상 게시
01월 31일	최종 순위 투표 마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용 최종 순위 정리 이미지 제작
02월 01일	최종 순위 확정 및 공고(개별 안내) 유튜브 커뮤니티에 순위 확인용으로 글/이미지 업로드 최종 선발자 개별 문자 → 상금 전달
01월 31일~ 02월 03일	연애담 공모전에 대한 피드백 접수(메일 이용) 상호 피드백

\* Q&A의 경우 인스타 DM과 메일을 이용하여 진행  
\*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많다면 인스타 게시물로 Q&A 관련 글 게시

현재는 일회성 이벤트와 같은 성격을 나타내지만, 진행 이후 참여율과 반응 및 피드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주제의 연애담 공모전 진행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IV-2. 홍보물 제작 및 SNS 개설, 관리

1. 홍보 포스터 디자인

\*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 사연 접수 기간
- 본선 진출자 발표일
- 생방송 진행 일정
- 최종 순위 결과 발표일
- 사연 모집 분야
- 생방송 진행 유튜브 채널




+ 부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것

\* 인스타그램 주소, QR코드, 진실성 있는 사연제보 권고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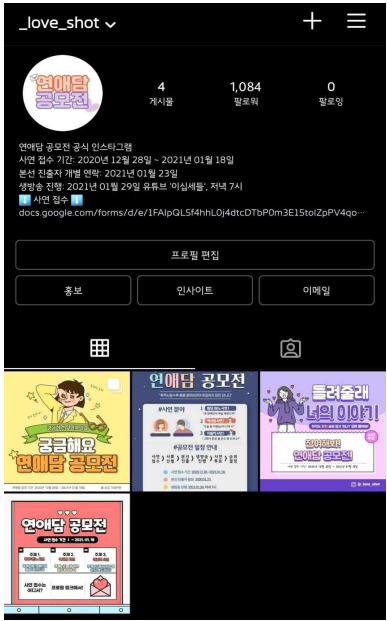
2. 홍보 영상 콘티



			<p>#1-1 대학교 광장</p> <p>A군이 B양의 생일을 맞이하여 자신의 대학교 앞 광장에서 촛불 이벤트를 준비했다. A군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시작한다.</p> <p>A군: 처음 봤을 때부터 널 좋아했어.. B양! 나랑 사귀자! B양: ....</p> <p>그때 한 남성이 B양에게로 걸어온다.</p>
			<p>#1-2 대학교 광장</p> <p>B양 앞으로 다가온 남자는 다름 아닌 옆좌으로 소문이 난 O군이였다. B양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O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p> <p>O군: 자기야, 저 친구는 누구야? B양: 어...어 같은 과 아는 앤데.. 날 좋아하나봐..</p> <p>그러자 O군은 A군을 찰려보다가 둘이 걸어간다.</p>
			<p>#1-3 대학교 광장</p> <p>A군은 분명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반대로 없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었다. 힘겹게 준비한 이벤트는 실패로 돌아갔고, 남은 건 꺼져가는 촛불과 충격을 받은 A군, 그리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관중들이었다.</p>

			<p>#2-1 스튜디오</p> <p>스튜디오로 돌아와 여성앵커와 남성앵커가 상황설명과 공모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p> <p>여성앵커: 자 이런 당혹스러운 고백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p> <p>남성앵커: 맞습니다! 이런 고백 경험 말고도 이불킥을 담당한 연애 경험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p> <p>모두: 바로 연애담 공모전!</p>
			<p>#2-2 스튜디오</p> <p>여성앵커: 이런 경험을 공유해서 앞으로 이런 연애는 하지 말자! 라는 교훈을 받는 취지에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p> <p>남성앵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생 교훈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이 공모전!</p> <p>모두: 많이 참여해주세요!</p> <p>화면이 흐려지면서 전환이 이루어진다.</p>
			<p>#3 포스터</p> <p>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약 2~3초간 보여주고 광고가 끝이 난다.</p>



		<p><b>2-1. 홍보 영상 촬영</b>  홍보 영상 촬영은 유튜브 이십세들 채널의 패널들로 진행하며, 약 1분 정도의 영상을 콘티를 바탕으로 제작한다.</p> <p><b>2-2. 홍보 영상 촬영 시 고려해야 할 점</b>  - 촬영 장소 : 대학교 광장 (경희대학교), 스튜디오 (이십세들 촬영 스튜디오)  - 필요한 촬영 소품 : 양초, 꽃다발  - 배역 : A군, B군 O군, 여성앵커, 남성앵커, 관중 (8~10명 정도)</p> <p><b>3. 홍보 SNS 개설 (인스타그램)</b>  · 인스타그램 아이디: @love_shot_  · 아이디 의미: 연애나 사랑도 한방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 인스타그램 설정  크리에이터 계정 설정  메일 주소 입력(Q&amp;A), DM 문의 문구(Q&amp;A)  프로필 링크: 사연 접수 링크  접수 마감 이후 유튜브 '이십세들' 채널 링크  · 홍보 및 Q&amp;A 진행  - Q&amp;A는 DM 및 메일로 받을 예정  · 인스타그램 관리는 내부 관리자 한 명이 관리한다.  - 주의해야할 점 : 사연 유출과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관리  - 고려해야할 점 :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게시물 볼 수 있도록 연애담 공모전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이십세들 (20birds_official) 계정에 직접 홍보</p> 
<p>V.  기획  방법</p>	<p>V-1.  사연  접수  방법</p>	<p><b>1. 공모전 게시 - 캠퍼스픽</b>  캠퍼스픽 공모전 배너에 들어가, '문학/수기/시나리오'에 홍보사진과 홍보 글을 올린다. 주최기관은 SMC GROUP(이십세들 소속 회사)이며 총 시상금은 1천만원 이하로 기재한다. 구체적 설명을 위해 인스타그램 링크 및 구글폼(사연 제보서) 링크를 제시한다. 공모전의 기획 목적을 살리고자 참가 자격은 20대로 한정하며, 사연 내용은 10대 때의 이야기도 가능하도록 한다. 문의를 위해 관리자 이메일 및 인스타그램 아이디, 전화번호를 기재해놓도록 한다.</p> <p><b>2. 사연 접수 방법 - 구글 설문 이용</b>  (1) 구글 설문 이용의 적합성  사연 접수와 최종 투표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은 pc나 모바일 모두 접근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용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별도의 가입 없이 사연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접근이 쉬운 구글</p>

설문으로 사연의 접수와 최종 투표 진행을 결정하였다. 네이버 설문이 아닌 구글 설문으로 결정한 이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HTML5기술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 국내 웹브라우저 1위가 구글 크롬(71.05%)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4), 기획 배경의 나스미디어 연구 결과에 따라 20대 유튜브 이용률이 98%로 구글 로그인 후 유튜브를 이용하는 20대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네이버 설문 보다 구글 설문을 이용하여 사연 접수 및 최종 투표를 진행하고자 한다.

### 3. 사연 접수 양식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에 대한 동의 명시

- 1) 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 연애담 공모전
- 2) 수집 및 이용 범위: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 3) 사용 목적: 본선(생방송) 진출 및 상금·상품 발송
- 4) 수집 기간: ~ 2021년 02월 01일 상품 배송 이후 전부 폐기

· 상금 및 상품 수령에 대한 방식 명시

5) 접수 시 제보자 유의사항: 허구의 사연이나 과장된 이야기를 제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문구를 사연 접수 폼 하단에 볼드체로 강조하여 기재함.

· 사연 접수 기간: 2020년 12월 28일 ~ 2021년 01월 18일 (3주간)

· 사연 접수 양식 예시 (<https://forms.gle/>)

# 1페이지

# 2페이지

# 3페이지

# 4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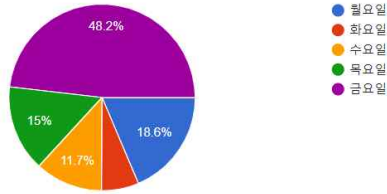


V-2,  
생방  
송  
진행  
방법

1.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생방송 진행

(1) 일정

4-1. 만약 생방송을 '저녁'에 진행한다면, 다음 날짜 중 선호하는 날짜를 골라주세요.  
응답 247개



출처: 공모전 관련 사전 조사 결과(직접 진행)

연애담 공모전 생방송 진행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요일에 진행하며 시간은 오후 7시로 정하였다. (자세한 설문 결과는 [부록-1] 참조)

(2) 진행방식

본선 진출 사연(분야별 5개의 사연)을 진행자들이 직접 소개하고, 실시간 댓글을 읽으며 사연에 대한 위로나 공감을 줘야 하며 동시에 사연자의 더 성숙한 연애를 위한 조언, 용기를 북돋아 준다. 사연 소개가 끝나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된 최종 투표 설문 방법을 공지하고 투표 기간을 설명한 후 종료한다. 생방송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투표 기간 한정 다시 보기를 제공하며, 분야별 사연 영상을 따로 잘라서 투표 기간 한정 하이라이트 영상을 게시한다.

(3) 본선 사연 선발 기준

공모전 프로젝트 추진 팀원들이 1차 검수한다. 5명의 팀원이 황당/분노 사연(2명), 짝사랑 사연(2명), 이불킥 사연(1명)으로 나누어 검수한다.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되는 검수이기 때문에 각 분야 당 사연 10개로 추린 후, 사연 내용을 다른 팀원에게 거부당할 시에 대한 또 다른 후보 5개의 사연을 준비한다. 서로의 검수를 거쳐 10개로 정리하게 되면, 다시 각 분야 당 최종 5개의 사연으로 줄이기 위해 4가지를 기준으로 투표한다.(2차 검수) 이렇듯 두 번의 검수는 모두 아래의 평가표(총점 100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번호	평가 기준	점수
1.	내용의 흐름이 읽거나 듣기에 난잡하지 않은가	25점
2.	각 분야의 주제에 알맞으며 제보자 사연의 분량이 너무 짧진 않은가 (사연 접수 시, 글자 수 4000자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에 분량이 짧은 경우만 기준으로 함)	25점
3.	공감을 많이 사는가,	25점

	그렇지 않다면 회소성이 있어 흥미로운 내용인가	
4.	사연을 이루는 단어들이나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진 않은가	25점

V-3.  
최종  
순위  
선정  
방법

**1. 최종 순위 선정 방법**

최종 순위는 라이브 종료 후, 투표 설문 링크를 올려 투표를 시작하며, 2021년 01월 29일~2021년 01월 31일 진행한다. 구글 계정 1개당 분야별 1표로 제한한다.

· 최종 순위 선정 구글 설문 예시 (<https://docs.google.com/forms>)



- 구글 계정 1개당 분야별 1표
- 사연 제목으로 리스트 구성
- 최종 순위 공지 시 분야별 투표를 공지

· 최종 순위 선정 공지 예시(유튜브 커뮤니티/SNS 게시)



**2. 최종 순위 공지 이후 상금 및 상품 전달**

개별 문자 및 전화 공지 후, 사연 접수 때 본인 정보와 일치 여부 확인 이후 상금 및 상품을 전달한다.

V-4.  
상금  
협찬  
및  
분배  
방식

**1. 상금 협찬 및 분배 방식**

상금 협찬 문제는 드라마가 끝나고 광고시간이 1분 정도 나오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기획목적에 보면 알 수 있듯 기업 차원이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득이 있는 공모전은 아니기에 광고비를 상금 협찬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십세들’ 채널과 광고가 필요하다는 상의 후, 생방송 절반이 지났을 시에 1번(본선 진출 15개의 사연 중 7개 소개 직후 쉬는 시간), 방송이 다 끝나고 1번 광고를 넣음을 원칙으로 한다. 총 두 가지 광고 방식을 사용한다. 첫 번째로 생방송 중간 쉬는 시간에 위피, 틴틴, 아만다와 같은 연애/이성친구 만들기 앱을 언급하며 홍보한다. 패널 중 한 명이 앱을 가입하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료광고임을 명시한다. 두 번째 방법

		<p>으로는 생방송 끝난 직후 광고영상을 1분 동안 3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20초씩 상영하도록 한다. 20대가 주 타겟이기 때문에 자취방 필수품 광고, 데이트 장소 홍보와 같은 영상을 선정하여 넣도록 한다. 이십세들 구독자가 35만 명이 넘는 것과 평균 조회수가 17만 회임을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최소 광고 수익은 <math>170 \times 3 + 340 \times 2 = 1190</math>으로 대략 1200만원 정도이며(유튜브 애드센스 광고비 계산법 기준) 상금 제외한 순수익은 이십세들 유튜브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대신 공모전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원들을 초반에 한 번 소개하도록 한다.</p> <p><b>2. 상금 분배</b> 위 설명에 따라 각 분야 당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40만원으로 책정한다. 3개의 분야가 있기에 총 지출 예상 금액은 630만원이다.</p>
<p><b>VI.</b> 유의사항</p>		<p><b>1. 우승자의 연락 부재 시 매뉴얼</b> 최종 순위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을 원칙으로 한다. 구글 폼에 입력한 메일 주소로 우승 확정 메일을 보낸 후 저녁 6시 이후에 전화한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발신자가 연애담 공모전 주최 측이었음을 알린 후 전화 가능한 시간을 묻는 문자를 남긴다. 이후 연락이 닿을 시 바로 계좌 번호를 자료에 저장 후 상금 제공한다. 단, 문자 연락 이후 3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유튜브 커뮤니티와 SNS에 개인정보의 일부(전화번호 가운데 4자리, 성함 중 2글자 등)를 게시하여 공모전에 우승했음을 알린 후 회신을 기다린다. 이후 4일간 연락이 없는 경우 유튜브 커뮤니티, SNS에 상금 취소 공지를 게시한 후, 개별적으로 문자, 메일로 상금 취소를 안내한다.</p> <p><b>2. 득표가 동률일 시</b> 순위 선발 시, 득표수가 동률인 경우 공동 순위 처리하며 상금 역시 그에 맞게 배분한다. ex) 1위가 두 명인 경우, 두 명 모두 1위의 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3위 선정 / 2위가 두 명인 경우, 두 명 모두 2위의 상금 지급, 이후 3위 선정하지 않음.</p> <p><b>3. 사연이 거짓이라고 의심될 시</b> 글을 읽다가 모순적이거나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으면 평가위원의 회의를 거친 후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p>
<p><b>VII.</b> 기대효과</p>		<p><b>1. 자신의 상처 치료의 장</b> 한국심리학회지에 따르면 심리적 상처에 대한 고백이나 개인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글쓰기 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sup>5)</sup> 특히 연애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사소한 마찰이나 오해의 경험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정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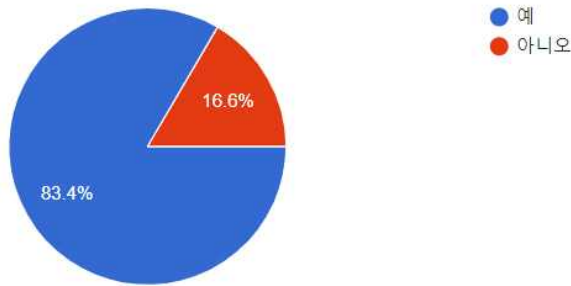
로 심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개인에게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상처 경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떠오르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억눌러서 회피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상처 경험으로 인한 영향을 더욱 심화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자신의 실패하거나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연애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연애담을 공유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고 털어버리는 치료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2. 연애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확립**

'연애 책으로 배웠다'라는 말이 연애에 대해 유연성이 덜하다는 말이 있듯 보편적인 내용이나 이상적인 내용만 담겨있는 책으로만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생동감 있는 사연 영상을 보고 또래의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바른 연애 가치관을 설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애 중이거나 하게 될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어 건강한 연애를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혹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직·간접적인 경험이 관계의 질 개선이나 애정 표현의 적절성,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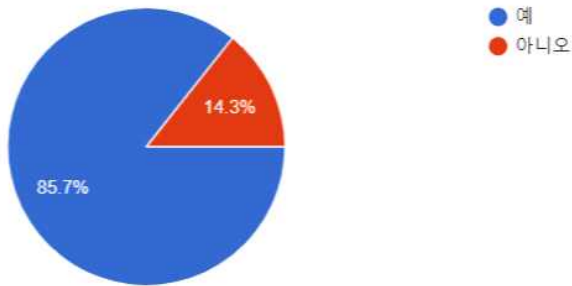
[부록] 연애담 공모전 관련 사전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 결과

1. 한 달 이상 연애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응답 3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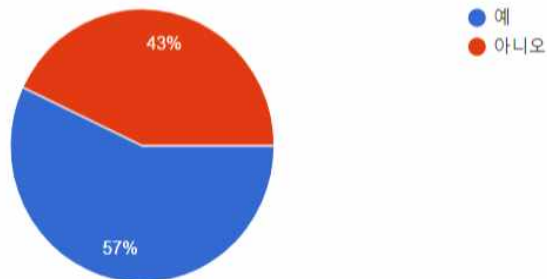
예: 83.4%(262표)  
아니오: 16.6%(52표)

2. 누군가를 짝사랑한 적이 있으신가요? (17세 이전 제외) (응답 3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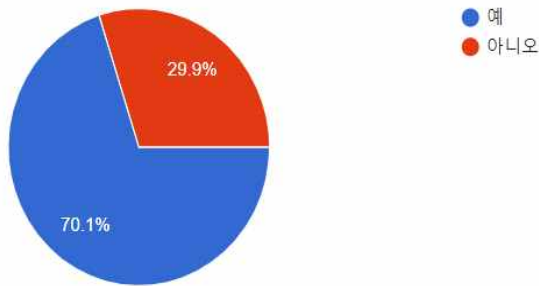
예: 85.7%(269표)  
아니오: 14.3%(45표)

3. 만약 '상금 有! 극적인 연애담(or 썸담) 공모전'을 주최한다면, 자신의 사연을 제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응답 3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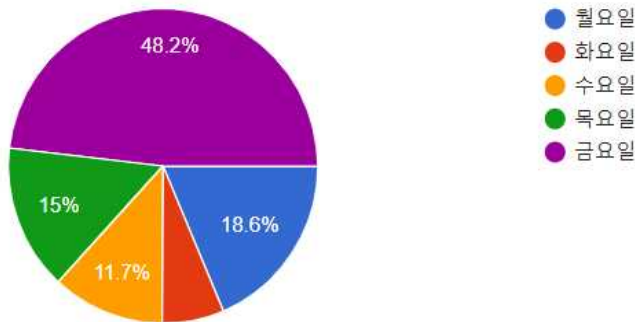
예: 57%(179표)  
아니오: 43%(135표)

4. 공모전 우승작 발표 (유튜브)생방송을 겨울방학 중 평일에 진행한다면, 불 의향이 있으신가요? (응답 314개)



예: 70.1% (220표)  
아니오: 29.9% (94표)

4-1. 만약 생방송을 '저녁'에 진행한다면, 다음 날짜 중 선호하는 날짜를 골라주세요. (응답 247개)



월: 18.6% (46표)  
화: 6.5% (16표)

수: 11.7% (29표)  
목: 15% (37표)  
금: 28.2% (119표)

- 1) <https://www.20slab.org> (2020.11.12.)
- 2) <http://m1.hankookilbo.com> (2020.11.13.)
- 3) <https://www.nasmedia.co.kr> (2020.11.11.)
- 4) <https://www.koreahtml5.kr> (2020.11.01.)
- 5) 이은정, 조성호. "심리적 상처 경험에 대한 글쓰기 고백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no.2 (2000): 205-220.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장려상

학업 기초 글쓰기

### 구멍의 존재론

- 김현, 『글로리홀』을 읽고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송호정

---

I. 구멍의 발생

II. 인물

아무도 본 적 없는 화자들

III. 작법

현실과 상상 세계를 분쇄·접합하는 각주의 컨베이어

IV. 구멍의 재생

## I. 구멍의 발생

여기에 구멍이 있다. 구멍이란 곧 물질적으로 충만한 세계에 발생한 동그란 공란空欄을 뜻한다. 세계의 입장에서는 흠이자 위험 요소, 이질적이고 불편한 침입자다. 약간의 수고를 들여서라도 메워야 하는 존재다.

여기에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의 기원은 어느 행성이었다. ‘트렌실흰나비배추벌레’에게 갇혀 먹혀 구멍이 되기 전, 이 행성에 분명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가 존재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문명사회와 그에 포함된 수많은 구성원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행성이 있던 자리에 구멍만을 남겨놓고 떠난 트렌실흰나비배추벌레는 곧 ‘입에서 트렌실을 뽑아내 몸을 묶은 뒤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속에서 몸을 키운 배추벌레는 곧 성체, ‘베니아배추흰나비’가 되어 우주를 훨훨 날아다닌다.

이것은 김현 시인의 시집 『글로리홀』의 가장 마지막에 수록된 시 「지구」의 결말이다. 문명이 종말하고, 행성이 소멸하는 순간을 SF적 상상력을 더해 그려낸 이 시는 시종일관 암울하면서도 정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김현의 「지구」에 등장하는 문명 최후의 생존자는 ‘푸른 눈’이라는 이름의 가로등 로봇이다. ‘푸른 눈’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불빛이 소등된 행성은, 곧 우주적 존재의 개입에 의해 정해진 순리대로 소멸한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로지 구멍뿐이다.

「지구」를 처음 읽을 때, 독자는 시로부터 존재의 필연적인 소멸에 관한 쓸쓸함을 고스란히 전달받게 된다. ‘행성의 소멸’이라는 극단적 예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개의 사실적인 각주들을 읽다 보면, 마치 두꺼운 SF 서사집의 종장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 속에 작가가 숨겨놓은 장치를 발견하고 나면, 이 「지구」라는 시 속에 담긴 사유가 존재의 필멸을 평면적이고 감성적으로 그려낸 것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시 속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우주적 생물, ‘트렌실흰나비배추벌레’와 ‘베니아배추흰나비’의 앞머리를 떼어내 조합하면, ‘트렌실베니아’라는 단어가 된다. ‘트렌실베니아’는 1973년 초연된 영국의 뮤지컬 ‘룩키 호러 쇼’에 등장하는 인물 ‘프랑크 퍼터’ 박사의 고향 행성이다. 극 중에서 프랑크 퍼터 박사는 정체불명의 실험을 통해 ‘룩키 호러’라는 이름의 인조인간을 탄생시킨다. 생명이 있는 인간 주체를 제 손으로 탄생시키는 존재인 프랑크 박사의 고향 행성 이름이 행성의 소멸에 관여하는 우주적 존재들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벌레들을 단순히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로서도 바라볼 경우, 「지구」라는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소멸의 주체인 벌레들은 행성을 갇아먹고 성장하여, 생산의 주체인 나비가 된다. 나비는 “은하성력으로 한 이에로에 한 번(중략)노르스름한 알을 낳”<sup>82)</sup>는데, 이들이 낳은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들은 변태하고 성장하기 위해 또다시 ‘소등된 행성’들을 필요로 한다. 끝을 맞이한 행성은 벌레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먹이다. 행성에 대한 벌레들의 수요와 우주적 종족인 벌레들의 존속,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행성은 반드시 끊임없는 생산과 멸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지구」속 행성의 소멸은 일방적인 결말이 아니라, 우주적 순리에 따른 생명 간

82) 김현, 「지구」, 『글로리홀』, 문학과지성사, 2014, 220쪽.



순환과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지구」 속 우리는 비록 필멸적인 존재들이지만, 순리에 따라 소멸함으로써 후대의 우리가 탄생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존재들, 거대한 순환 고리 안의 엄연한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세계 속에서 구멍이란 끝의 증거임과 동시에 시작에 관한 암시이기도 하다.

## II. 인물 : 아무도 본 적 없는 화자들

여기에 구멍이 있다. 글로리홀glory hole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시집의 제목인 ‘글로리홀’이란 성교를 목적으로 화장실 칸막이 등에 뚫린 일정 크기의 구멍을 뜻하는 속어다. 글로리 홀은 특유의 폐쇄성과 익명성 때문에, 과거 성관계를 가질 대상을 찾지 못했던 남성 동성애자들의 만남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글로리홀’이라는 단어는 시집의 중반부에 수록된 시 「늙은 베이비 호모」에 이르러 시어로써 처음 등장한다. 「늙은 베이비 호모」에서는 청소년 시절 동급생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지향성을 깨닫게 된 화자가 등장한다. 이 시의 전문은 성년 화자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이자 건배사이다. 이 시 속에서도 우리는 앞서 소개한 시 「지구」를 읽을 때와 같은 미묘한 쓸쓸함을 느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특히 그러한 정서가 부각된다.

그리고 녀석들을 본 사람은 없네. 아무도. 그래, 아무도.<sup>83)</sup>

화자 ‘나’가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녀석’에 관하여 회상하는 내용인 이 구절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며 혼란스럽게 보내왔던 청소년기에 대한 소회이며, 자신과 관계했던 남자들이 휘발함에 따라 남겨진 자신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한 「지구」와 「늙은 베이비 호모」에게는 ‘상실감’이라는 공통적인 정서가 흐른다. 이 상실감은 곧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는 화자가 겪는 무력감으로 볼 수 있다. 소멸을 앞둔 세계 속에서 ‘푸른 눈’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곤 그저 제 불빛을 소등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늙은 베이비 호모」 속 화자인 ‘나’ 또한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불확실한 사랑 앞에서 그저 노래를 부르고 건배사를 외치는 일밖에 할 수 없다. 이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드물고, 애초에 사회가 그들의 만남 자체를 용인하지 않았던 시대, 성소수자들이 만남의 창구로 이용했던 글로리홀이 내포하고 있는 상실의 정서와 같다.

사실 『글로리홀』에 수록된 시편들은 공통적으로 그 정서를 답습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 혹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는 성소수자들로 시작하여, 은퇴를 앞둔 AV 배우, 먼 미래에 제작된 기계들, 비트 제너레이션(beat generation)을 오마주한 듯한 마약쟁이 등 『글로리홀』 속 시편들에 등장하는 화자들의 유형은 무척 다양한 편이지만, 그들 모두 거대한 상실의 정서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실의 정서란, 필연적인 상황에 처한 화자가 자신의 거대한 혹은 미시적인 자아 정체성(ego-identity)과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한 탓에, 결국 허무虛無에 도달해버리고 만 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83) 김현, 「늙은 베이비 호모」, 『글로리홀』, 문학과지성사, 2014, 110쪽.

<sup>1</sup> 인간들로부터 밤은 왔다

<sup>2</sup> 이 밤 인간들의 집회는 시인을 앞장세운다

<sup>3</sup> 밤의 인간들은 우리도 인간이 되고 싶다는 불구의 구호를 외친다<sup>84)</sup>

『글로리홀』 속 상실의 정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는 시집의 첫 시로 수록된 「비인간적인」이다. 이 시는 『글로리홀』이라는 구멍에 관한 대서사극의 서장序章이라고 보아도 좋을 만큼 시집의 주제와 화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시의 제목에 붙은 다섯 개의 각주 중 일부를 인용하여 해설해보자면, 『글로리홀』 속의 시적 화자들은 ‘인간’으로 지칭됨과 동시에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들, 비인간적 화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로부터 소외된 존재들이다. 『글로리홀』 속 시적 언어는 곧 이들 비인간적 화자가 ‘시인을 앞장세워’ 외치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불구의 구호’인 것이다.

### Ⅲ. 작법 : 현실과 상상 세계를 분쇄·접합하는 각주의 컨베이어

시집 『글로리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김현의 서술적 특징은 바로 ‘각주의 사용’이다. 앞서 『글로리홀』 전반에 흐르는 상실의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 시 「비인간적인」의 제목에 붙은 각주 일부를 인용한 바 있다. 상기한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 김현이 사용하는 각주의 방식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각주는 본문에 서술한 내용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보충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문구의 출처를 밝힐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각주는 되도록 ‘사실적’이어야만 하며, 반드시 적재적소의 자리에 삽입되어야 한다.

<sup>3</sup> 벨기에 출신의 가수 르네 마그리트가 1967년 8월 16일에 발표한 노래의 제목. 「겨울비」, 「이것은 마리 화나가 아니다」, 「환희라는 이미지의 배반」, 「코카인에 취한 부인 내실의 철학」, 「피레네, 약장수의 성」, 「빛의 제국」 등의 노래와 함께 앨범 『死後』에 수록되어 있다.<sup>85)</sup>

김현의 각주 작법론은 이러한 각주의 ‘사실성’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위의 텍스트는 「그들이 약을 취했을 때」라는 시에 붙은 각주의 내용 중 일부로, 각주에 대한 김현의 방법론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각주는 시 본문의 ‘산산이 조각난 술병의 짙은 냄새’라는 구절 뒤에 삽입되었다. 언뜻 보면 이 각주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능대로, 본문에 학술적인 정보와 인용구의 출처를 보충해주기 위해 쓰인 것 같다. 그러나 이 각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김현이 숨겨놓은 오묘한 장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상기된 각주는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르네 마그리트’라는 가수와 그의 노래 제목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각주는 가수와 노래 제목, 당대의 활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각주의 진위에 의심을 가진 채 텍스트를 재독하

84) 김현, 「비인간적인」, 『글로리홀』, 문학과지성사, 2014, 9쪽.

85) 김현, 「그들이 약에 취했을 때」, 『글로리홀』, 문학과지성사, 2014, 80쪽.

면, 각주 속에서 벨기에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와 교묘하게 변용된 그의 작품 제목들(「이미지의 배반(1929)」, 「피레네의 성(1959)」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에서 언급된 1967년 8월 16일은 르네의 기일인 8월 15일의 다음 날이며, 앨범의 제목인 『死後』는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실과 허구의 정보를 오묘하게 배합해 기술하는 서술 방식은 비단 위의 시뿐만이 아니라, 이 시집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본문보다 각주에서 이러한 기법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철저히 ‘사실적’이어야만 할 것 같은 각주에 허구를 침투시킴으로써 현실과 시 속 상상 세계의 경계에 작은 결함을, 즉 구멍을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즉 『글로리홀』 속 김현의 각주는 단지 인용의 출처를 밝히거나 사전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희곡 속 서브 텍스트(Sub-Text)로서 기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성이 파괴된 각주가 남긴 실재와 허구 사이의 구멍은, 자연스레 음료수병의 빨대구멍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 구멍을 통해 허구와 사실이 적절하게 배합된 ‘상실의 서사’들을 빨아들이게 된다. 각주가 붙기 전에 온전히 허구였던 시집 속 이야기들은 각주로부터 묘한 구체성을 부여받게 되고, 보다 난해하면서도 독특한 맛의 음료로 거듭난다. 우리는 그 음료를 흡입하며 화자들의 정서에 보다 깊이 이입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상실감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 IV. 구멍의 재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여기에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글로리 홀이기도 하고, 소멸한 행성이 남긴 흔적이기도 하며, 시집 속 수많은 화자가 갖고 살아가는 깊고 검은 상실감이기도 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찾는 이들이 줄어들어 따라 공중화장실의 벽이 점차 메워지는 것처럼, 시집 속에 등장하는 ‘구멍’ 역시 언젠가 필연적으로 메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쓸쓸함과 무력감의 총집합이면서 시편 속 화자들에게 투영되어 시집 내내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이 ‘구멍’은,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무력감과 피로감을 들게 한다. 거기에서 사실성이 파괴된 각주를 사용하는 김현의 방법론은 허구와 사실의 기준선을 허물어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한다. 허구와 사실의 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상실감을 가득 내포한 화자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문득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며, 그들의 상실감을 여과 없이 수용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지구」 속에 숨겨진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시적 화자를, 나아가 화자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까지 무력하게 만드는 이 일방적인 상실, 필연적인 소멸이 또 다른 창조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구」 속에 등장하는 ‘지구’라는 행성은 비록 소멸했지만, 이를 양분 삼아 별레는 ‘나비’라는 상징적 존재로 변태할 수 있고, 또 다른 별레들을 양산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우리의 세계가 재건될 것임을 의미한다.

「지구」가 시집의 맨 마지막에 수록된 것은, 우리에게 시집 속 세계, ‘글로리 홀’로 대표되는 상실의 세계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선언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세계가 『글로리홀』보다 더 나은 세계일지, 그렇지 못한 세계일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전의 세계를 지켜보고 감정적으로 그 속에 개입해본 우리로서는 기대를 감출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글로리홀』을 다 읽고 취할 수 있는 태도란, 그저 구멍의 세계를 몇 번이고 관조하면서, 어떤 충전재에 의해 구멍이 다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장려상

학업 기초 글쓰기

### 무엇을 기억하고 사랑할 것인가

-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추단비

---

#### I. 머리말

#### II. 영화의 구성적 특징

1. 뒤섞인 장면 배치를 통한 표현
2. 클레멘 타인의 머리카락 색

#### III. 영화의 내용적 특징

1. 엑스트라가 보여주는 메시지
2. Nice와 Okay

#### IV. 맺음말

참고문헌

## I. 머리말

누구에게나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을 것이다. 창피한 일을 당했거나, 실연의 아픔을 겪었거나,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은 잊히지 않고 남아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십상이다. 만약 당신이 그 기억을 지울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삭제하겠는가? 여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신의 기억을 없앨 수 있는 세상이 담긴 영화가 있다. 바로 『이터널 선샤인』이다. 이 영화는 서로의 다름에 지친 두 남녀가 이별을 결심하고, 서로를 완전히 잊기 위해 기억을 지우는 의뢰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화는 주인공 조엘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주인공 조엘은 기차 플랫폼에서 충동적으로 직장이 아닌 문탁으로 향한다. 이별의 아픔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었던 그는 그곳에서 클레멘타인을 만나게 된다. 짧은 시간에 가까워진 둘은 함께 클레멘타인의 집에 잠시 들른다. 이후 영화는 페이드아웃 처리되고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의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연인이었고, 그들은 서로 다름에 지쳐간다. 클레멘타인은 조엘의 기억을 지우는 일을 하는 라쿠나 사의 도움을 받아 조엘을 잊어버린다. 얼마 뒤 조엘은 그녀가 기억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자신도 기억을 없애기 위해 의뢰를 한다. 밸런타인데이 하루 전날 밤, 조엘의 기억을 지우는 작업이 시작된다. 잠을 자는 동안 그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곧 사라지게 될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랑했던 클레멘타인과의 추억을 지우는 것을 후회하지만 결국 그는 기억을 다 잃고 만다.

그리고 영화는 다시 가장 첫 장면으로 돌아가 클레멘타인 집 앞까지 반복된다. 이후 그들은 라쿠나 사의 직원이었던 매리가 돌려 보내준 ‘기억이 담긴 테이프’를 들고 자신들이 잊었던 과거에 대해 상기한다. 자신들의 끝을 알게 된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서로를 다시 사랑할 것이라는 대화를 나누고 영화는 막을 내린다.

필자는 영화가 말하는 바를 구성적인 특징과 개념적인 특징으로 나누어 해석해보고, 이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II. 영화의 구성적 특징

### 1. 뒤섞인 장면 배치를 통한 표현

줄거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터널 선샤인』의 장면은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는 후에 관객들을 놀라게 할 장치로 가득 차 있다.<sup>86)</sup> 그리고 영화는 관객이 그것을 놓치지 않게 후반부에 같은 장면을 삽입한다. 최근에서 시작해 가장 오랜 과거로 갔다가 다시 최근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엘의 기억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역순행적으로 구성된다.

---

86) 가령, 조엘이 깎 때 나는 현관문 닫히는 소리는 라쿠나 사의 직원들이 나가는 소리였고, 조엘의 차 문짝이 찢겨져 있던 이유는 클레멘타인이 예전에 차로 사고를 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그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옆 차에 신경질을 내고 기차역으로 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 역시 그저 그런 줄 알고 지나가게 된다. 이외에도 찢어진 일기장, 조엘의 찢찢한 기분, 문탁 바닷가의 집 등이 복선으로 깔려 있다.

조엘의 기억을 지우기 시작하는 중반부부터는 그의 기억 속과 바깥 현실 세계가 교차하여 영상의 미적인 재미를 더한다. 꿈속에서 벌어지는 세계가 펼쳐지는 만큼, 공간은 쉽게 어그러지고 부서진다. 카메라의 시선은 맥락 없이 다른 시공간으로 전환된다. 관객은 생각과 실재가 맞닿아 있는 장면들을 통해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내용을 잘 융화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장면 구성은 관객의 예측을 빗겨나가게 해 흥미를 유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기법은 전반적인 영화 이해도를 저하시킨다.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어 관객의 집중도를 흐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터널 선샤인』의 뒤섞인 장면 구조가 뛰어난 역할을 해낸 것은 기억을 잃은 두 주인공의 혼란스러운 감정선을 표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클레멘타인은 완전히 기억이 삭제된 상태에서, 조엘은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란한 감정을 느낀다. 그런 주인공들의 심리가 장면의 어지러운 전환을 통해 관객에게도 전달되었다. 이는 구조적인 분위기 자체로 주인공의 서사에 몰입하게 만든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다소 복잡한 장면의 구성에서 클레멘타인의 머리카락 색을 통한 장면을 구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 2. 클레멘타인의 머리카락 색 - 오렌지가 갖는 의미

클레멘타인의 머리카락은 초록, 빨강과 주황, 파랑의 4가지로 나타난다. 두 주인공 모두 기억을 삭제한 후 다시 만났을 때, 즉 영화 흐름 상 현재에서 클레멘타인의 머리카락은 파란색이다. 조엘과 연인이었던 기억 속 그녀는 빨강과 주황색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 지금과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관객은 장면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음에도 이것이 조엘의 기억 속인지, 바깥의 현재 그녀인지 알아볼 수 있다. ‘색깔’이라는 시각적인 장치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색은 단순히 화면을 구분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는다. 어느 감독은 클레멘타인의 머리색이 계절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이외에도 클레멘타인의 머리색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과연 클레멘타인의 머리색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필자는 초반부 클레멘타인과 조엘의 대화에서 답을 얻었다.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클레멘타인의 튀는 머리카락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머리카락 색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 직업으로 존재해야 할 거라는 대화를 나눈다. 조엘은 이에 시큰둥하지만 클레멘타인은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그 자리에서 오렌지에 해당하는 색깔에 직접 이름을 붙인다. 이는 조엘과 연인인 동안 주황색 머리를 유지했던 클레멘타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행위이다. 오렌지는 조엘이 클레멘타인을 부르는 애칭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조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깎아내리고 상처받았던 클레멘타인의 속마음을 치유해주던 사람이다. 그렇기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라는 시의 한 구절처럼, 조엘이 그녀에게 ‘오렌지’라고 부르는 행위 자체가 그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조엘에게 특별한 대상인 클레멘타인이 자신을 표상하는 ‘오렌지색’에 ‘이름’을 붙임으로서 이제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해 뜰 녘과 저물녘의 태양은 오렌지빛을 입고서 떠오른다. 다시 시작하는 사랑도, 또다시 권태로워질 사랑도, 그럼에도 다시금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들의 사랑을 대변하는 가장 상징적인 색상이 주황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헤어짐 이후 파랗게 물들었던 그들의 감정들은 다시 열정적으로 떠오르는 빨강이었다가, 그들에게 안정적이고 특별한 오렌지로 먼저 오래도록 간직되지 않을까.

### III. 영화의 내용적 특징

영화의 메인 콘셉트인 ‘기억을 지운다’는 설정은 매우 매력적이다. 심지어 현실에 발이 붙어 있지 않은 판타지가 아니라, 현대 의학 기술을 통해 기억을 지워주는 것이기에 실현 가능하게만 보인다. 라쿠나 사가 어딘가에 실재할 것만 같다.

#### 1. 엑스트라가 보여주는 메시지

반려견을 떠나보낸 중년의 여자, 과거의 영광에 매인 자신을 놓아주려는 나이 든 남자, 한 달에 3번씩이나 기억을 지우고자 라쿠나 사에 전화를 거는 사람. 영화는 깊게 다루지 않지만 몇 초의 시간을 할당해 엑스트라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러닝타임 100분의 영화에서 1분 1초는 결코 허투루 쓰이지 않을 것이다. 즉, 몇 초라도 초점이 잡힌 화면 안에 들어온 그들의 이야기 역시 쉽게 지나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주인공과 조연인 매리는 사랑의 아픔을 잊기 위해 기억을 삭제하지만, 라쿠나를 찾은 다른 이들은 남녀 간의 사랑 이외에 다른 아픔을 지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가족을 잃은 슬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시 반복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무언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라쿠나 사를 찾는 사람들을 비취춤으로써 관객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은 공감을 느끼게 된다. “오로지 사랑 이야기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영화는 단지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와 감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만든다.

조엘의 기억 삭제 작업이 순탄치 않아 영화의 긴장감이 높아질 무렵, 비중 있게 다루지는 조연인 라쿠나 사의 매리 역시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는 선생님이라고 따르는 박사를 사랑했었지만, 그것을 모두 잊고 새 출발을 하겠다며 기억을 삭제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서로에게 끌렸던 것처럼 다시금 박사를 사랑하고 만다. 결국 자신이 그런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라쿠나 사를 그만두게 된다.

매리와 두 주인공의 대비를 통해 영화는 기억이 사라진 뒤의 희극적 모습과 비극적 모습을 모두 보여준다. 기억 없이도 여전히 서로에게 끌리는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다시 사랑하게 되며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 하지만 매리의 사례를 보며 결국 끝나야만 하는 인연의 비극적 끝도 동시에 수용하게 된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단지 이것은 주인공과 조연의 무게감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현실에서도 영화처럼 우리의 선택과 상황에 의해 기억이 지워지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원래와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 다시금 기억을 지우기 이전의 모습과 같은 처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이 온전한 지금도, 사실 우리의 관점만 조금 달리



생각하면 충분히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영화는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기억의 통제를 손에 쥐여주고서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인물들은 대체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후회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문제 삼고 그 상황 자체에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기억을 지우는 것과 같은 상상을 하며 과거에 얽매이기 쉽다. 이 영화는 기억이 사라진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 우리가 진절머리 나게 떨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유의미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 2. Nice와 Okay

두 주인공의 관계로 돌아가 보자. 클레멘타인과 조엘은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화 초반부, “Naomi was nice. Nice is good.”이라고 말하는 조엘의 내레이션이 나온다. 클레멘타인을 만나기 전 과거 연인은 착한 사람이었고, 조엘은 착한 것은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만나게 된 클레멘타인은 착한 것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착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몇 가지 대화를 나눌 때도 둘의 결은 확연히 다르다.

재밌게도 둘은 그런 서로의 모습에 끌린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나에겐 결핍된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이 다름은 서로에게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클레멘타인은 처음 조엘이 착해서 좋다고 하지만 둘의 관계가 권태로워질수록 착함은 답답함과 지루함으로 변모한다. 조엘 역시 멍멍한 제 삶에 들어온 툭툭 튀는 여자를 점점 피곤해하고 낯잡아본다. 이렇듯 두 인물 모두에게 착하지 않은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끝맺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혼란 이별 끝에,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향할 것을 약속한다. 이미 다 아는 결말이라도, 그들은 다시 ‘Nice 하지 않은’ 사랑으로 내달리고 만다.

기억이 담긴 테이프를 들고 서로를 다시 마주한 조엘의 아파트 복도에서 나눈 둘의 대화의 끝은 하염없는 “괜찮다(Okay)”였다. 둘의 관계는 결코 서로에게 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그들은 그럼에도 괜찮다고 말한다. 다시 만난 둘은 문턱에서 마주쳤을 때처럼 가끔 마주 보지 않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 꼭 착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영화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다.

## IV. 맺음말

영화를 두 번 내리 감상한 후에도 여전히 한 가지 궁금증이 맴돌았다. 과연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다시금 오래도록 사랑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달라서 끝렸지만, 그래서 쉽지 않았던 연애를 한 번 지워낸 이들이었다. 그래서 영화 초기 버전은 클레멘타인이 여전히 조엘과 함께하지만, 죽을 때까지 기억을 여러 번 지운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이 지워지고 다시 떠오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괜찮다고 했다. 그들의 끝이 권태이든 이별이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단순한 기억보다도 그들이 공유하는 ‘감정’이,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니 말이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삶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늘 분주하다. 사랑을, 기억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친 선택은 오히려 주인공을 옥죄다.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지만 막

상 마주하고 나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영화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서로의 곁으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어찌 보면 비극처럼 보인다. 하지만, 끝내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선택이었으므로 영화는 이 노래로 끝맺는다. “마음을 바꿔보세요. 주위를 둘러봐요. 마음을 바꾸세요. 놀랄 거예요. 모두들 언젠가는 배워요.”

## 참고문헌

김춘수, 「꽃」, 『꽃의 소묘』, 백자사, 1959.

이영실, 「방구석 1열 영화 ‘이터널 선샤인’ 새로운 해석」, 『국제신문』, 2019. 4. 21.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장려상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

# 우리가 채우는 것들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김예림

---

### I. 서론

### II. 본론

1. 왜 개츠비가 죽어야 했는가?
2. 우리는 무엇인가?

### III. 결론

핵심질문: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 I. 서론

하늘이여 한동안 더 모진 광풍을 제 안에 두시든지, 날르는 몇 마리의 나비를 두시든지, 반쯤 물이 담긴 도가니와 같이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소서.<sup>87)</sup>

미당 서정주시인은 자신의 시 「기도」에서 일상의 안일함과 무료함을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그것이 고난이든 설렘이든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개인의 몰락은 고난이 아닌 달콤한 행복 속에서 시작된다는 문장을 생각해볼 때 어찌면 작가는 일상의 안일함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조바심에 이 시를 썼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 작가의 “채워 달라”는 기도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우리는 현실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단어나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 이 모든 용어와 문장들은 사회라는 거대 구조로부터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스스로의 내면에 채워 넣는가에 따라 선택되어 진다.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당당한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사회성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채워가고 있는 사회적 요소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우리 자신을 쪼먹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치질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해보고 싶다. 누군가는 칫솔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닦거나 혹은 아예 닦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양치질을 위에서 아래로 둥글게, 둥글게 회전하면서 닦는다. 문득 양치질과 사회구조의 가치와 기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겠지만 본론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 II. 본론

### 1. 왜 개츠비가 죽어야 했는가?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되었기에 이를 접한 우리 독자들은 개츠비를 당시의 미국을 대표하던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희망을 꿈 꾸는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한 닉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왜 개츠비가 죽어야 했는가?

좀 더 근본적인 답을 찾아보기에 앞서 개츠비가 죽어야 하는 이유로 꼽을 수 있는 불법과 불륜에 대하여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작품 속에서 밀주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개츠비의 경제적 성과는 일부 독자들에게 그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미국의 건국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법의 심판 앞에서 몇몇할 등장인물은 몇몇이나 될 지에 대한

87) 서정주시음 윤재웅 엮음,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은행나무, 2015.66p

의문이 생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대륙을 발견한 이민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사냥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기에 개츠비의 불법과는 구분된다는 의견이 제기 될 수도 있지만 실정법이 자연법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톰, 데이지, 윌슨, 머틀 심지어 닉까지도 불법을 저지른 개츠비와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불륜은 소설 속에서 개츠비 이외에도 주요 등장인물 대부분이 저질렀으며 닉 역시 톰 부부의 불륜에 방관자, 동조자적 역할을 했기에 불륜으로 개츠비를 비난하고 죽음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게다가 머틀은 개츠비가 아닌 데이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개츠비는 톰, 데이지, 윌슨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개츠비가 댄 코디를 만나는 부분을 반복하여 읽다 보면 우리는 개츠비의 죽음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호숫가에서 빈둥대던 순간까지는 제임스 개츠였지만, 나룻배를 빌려 톨로미 호로 다가가 곧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삼십 분 안에 그 요트를 박살낼 거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이미 제이 개츠비였다.

.....

그의 상상 속에 그런 부모를 위한 자리는 마련된 적이 없었다. 룡아일랜드 웨스트에그의 제이 개츠비는 그의 이상화된 자기 형상화에서 튀어나온 것이었다.<sup>88)</sup>

개츠비가 가난한 하층민의 신분을 가진 개츠를 벗어던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했던 상류층의 아들로 만들어 지는 그 순간, 개츠비는 이미 자기 스스로 개츠를 죽여 버려다. 4장에서 개츠비가 닉에게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과 각주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개츠에서 개츠비로의 개명은 단순한 철자의 변화만으로 볼 수 없다. 개츠라는 이름은 개츠비의 실존했던 혈연적, 사회적 특징을, 개츠비라는 이름은 개츠비가 상상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을 대표한다. 개츠비가 댄 코디와 함께 보낸 오년 동안 그의 실존은 사라지고 허상만 남았기에 우리는 개츠비의 죽음이 그 어떤 타인이 아닌 본인에게서 시작되었으며 톰, 데이지, 윌슨이 죽인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개츠비는 스스로를 죽여야만 했는가? 그것은 당시 미국 사회가 열광하던 가치와 기준과 연결되어 있다. 소설 속에서도 언급(1장 13쪽 하단)되었지만 닉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며 이것은(3장 64쪽, 4장 85쪽) 닉이 개츠비와 친밀감을 쌓고 ‘몬테네그로!’<sup>89)</sup>라는 한 단어로 개츠비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는 것으로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닉 개인의 반응이 아닌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승전국으로써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던 미국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당시 미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과 달리 짧은 기간 동안 자신들이 이룩한 성장에 감동했고 이는 그들이 가진 경제적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개츠비가 밀주사업을 하고 상류층을 대표하는 데이지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당시 미국의 사회적 가치를 따른 행위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실패한 농사꾼의 아들인 개츠는 미국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기에 개츠비는 스스로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88) F.스콧 피츠제럴드, 김영하 옮김,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13. 124p

89) 위와 동일 85p

결과적으로 우리는 개츠비의 죽음을 단순히 톰, 데이지의 이기심과 윌슨의 어리석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개인의 선택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 2. 우리는 무엇인가?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죽여 버린 개츠비에 대한 정리를 마친 우리가 시선을 옮겨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사회생활과 관련된 문장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역시 얼마든지 개츠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에세이는 이 부분부터 현재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문제없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년 전까지도 나는 한국이 아닌 백두산을 소재하고 있는 북한의 가장 추운 지방도시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던 고등학생이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는 나에게 수령, 당, 집단을 위해 목숨정도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회의 부름이며 나의 가치는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참고로 그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이외에도 역사시간과 교양시간이면 일본 가미카제특공대의 “천황 만세!”가 얼마나 광신적이고 맹목적인 북종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그곳에서 나라는 실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사회의 가치를 나의 전부로 내면화 시킨 미래의 “영웅”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한국에 입국하여 받은 교육 첫 시간, 나의 뇌리에 깊게 자리 잡은 문장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였다. 유난히 열정적이었던 강사는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오랜 시간 설명해 주었다. 인권이 보장되고 언론, 집회, 선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말에 나는 나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 온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나만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식사 후 양치질을 하고 있던 나에게 한 친구가 물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양치하는 거야?”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양치질을 위에서 아래로 둥글게 회전하면서 닦는다. 이 습관은 양치질을 처음으로 배울 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가르쳤던 아버지에게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 질문이 나를 당황시켰던 이유는 내가 행한 모든 언행들이 한국의 사회적 가치관들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는 처음에는 독특하고 신기한 것으로 비추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고 멀리해야할 이유들로 그 존재가치를 변화시킨다. 나는 사회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불안함을 느꼈고 하루빨리 친구들과 같은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양치질도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했고 친구의 사소한 농담에도 언제나 큰 웃음으로 대답하곤 했다. 친구들이 추천해준 메뉴는 무조건 가장 맛있는 최고의 식사였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언젠가부터 나의 주변에도 친구들이 있었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은 “예림이는 진짜 적응 잘 한 것 같아.”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듯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가치들로 나의 내면을 채워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북한에서 보낸 17년이라는 시간이 백지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 개츠비였다. 개츠비가 미국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의 기준에 재단되기 위하여 개츠라는 실존을 파괴하고 개츠비라는 허상을 선택했던 것처럼 나 역시 한국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본질 중 8할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과거에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과거가 남들은 상상도 못할 소중한 값진 인생수업이었고 최악의 상황에서 행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이었음은 가마득히 잊어버린 채 말이다.

개츠비의 죽음과 나의 경험이 가지는 공통점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을 완벽히 내면화하고자 한 개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 되고자 미국사회의 당대 가치들로 스스로를 채웠던 개츠비, 수령중심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으로 성장했던 북한에서의 나, 또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들에 답습하기 위하여 과거의 시간들을 지워버리기에 급급했던 나까지, 이들 모두는 사회가 제시한 가치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우리들 개개인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다.

### 3. 우리는 무엇인가?

1920년대 미국, 북한, 한국-시대, 이념, 경제적 구조도 구분되는 사회들이지만 그 속에 소속된 개인들의 삶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개츠비의 비극은 작품 속에서만 한정된 스토리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모두의 비극으로 확대할 수 있다. 우리의 관념을 이루는 이념과 가치들 중 우리들 스스로가 이루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들은 모두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기 전에 일어나곤 한다.

여기까지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내면화한 개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반론 또한 제기 될 수 있다. 사회의 가치를 내재화 하는 것이 과연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인가라는 것이다.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한 구성체이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역시 그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은 우리 개개인이 의견들이다. 그렇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의견들을 내재화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정한 조건들에 스스로의 기준을 맞추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회가 시작한 개개인의 종합체로 구성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회는 그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더 그것의 가치를 개인들에게 내재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무조건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 된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타협해야 할뿐이다. 개인이 사회의 조건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개인은 사회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 III. 결론

서정주 시인의 「기도」에서 등장한 “채워 달라”는 말의 의미를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로 해



석하고 이러한 시각에 의거하여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개츠비의 죽음을 표면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개츠비의 죽음을 톰, 데이지의 이기심, 윌슨의 어리석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내재화한 개인의 선택으로 정의했다. 이에 기초하여 또 하나의 표본인 북한에서의 나와 한국에서의 나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사회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회는 언제나 개인에게 그것이 정한 기준과 가치를 내재화시키며 내재화된 개인은 본연의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사회는 개개인이 모여 구성했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들은 개인들 각각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개개인의 의사가 전부로 되는 사회구성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는 그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개인에게 내재화시킨다고 보았다. 물론 사회의 가치와 완벽히 단절되어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해결책으로 사회의 조건과 개인 자신의 본질사이의 적절한 타협의 필요성을 들었다.

이 글의 주제인 “우리는 무엇을 채우는가?”라는 질문은 사회가 열광하는 가치로 자기 스스로를 잃어가는 우리들의 본질을 적어도 한번쯤은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고민 끝에 결정되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개츠비는 자신이 이루고자 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의 근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성공이라는 희망만을 좇으며 달리다 인생의 끝을 맞이한다. 우리 역시 성공이라는 단어의 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또 하나의 개츠비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설 속 개츠비와는 달리 사회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이 아닌 “나”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적어도 개츠비와 같이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장려상

자연과 기술 명작 세미나

### 무병장수를 향한 과학의 질주

- 인간수명연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임수현

---

I. 서론

II. 과학자들이 바라본 죽음

III. 인문·사회학자들이 바라본 죽음

IV. 죽음이란 무엇인가?

V. 결론

수명연장기술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I. 서론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라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종착지, 그러나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바로 죽음일 것이다. 죽음의 너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이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태도로 이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아다닌 진시황을 들 수 있다. 굳이 역사적 인물을 예시로 들지 않아도,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죽지 않는 삶’은 인간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시황이 찾아다닌 식물의 이름이 늙지 않는 불로초인 것처럼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늙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병장수(無病長壽)’, ‘불로장생(不老長生)’에서 볼 수 있듯이 늙지 않고, 질병 없이 오랫동안 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요구에 발맞춰,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삶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어느덧 무병장수라는 말이 진처럼 멀게만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죽음을 피하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이 수명연장 기술의 발전을 이뤘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죽음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죽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수명연장기술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에세이에서는 노화에 의한 죽음을 인간의 한계로 보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측과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인간수명연장을 위한 기술이 어디를 지향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 II. 과학자들이 바라본 죽음

과학자들은 죽음의 원인을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로 본다. 그들의 이러한 시각은 죽음을 그저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노화 관련 질병들은 사실 질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화의 한 측면, 살아있다는 현상의 부작용이죠. 이런 병들을 완치하려면 애초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완치해야 합니다.” -오브리 디 그레이<sup>90)</sup>

“인류는 생태적 지위 창조자다. 우리는 존속하기 위해 생태계를 바꾼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며 언제나 줄곧 해온 일이다.” -얼 C. 엘리스<sup>91)</sup>

항노화 의학으로 유명한 오브리 디 그레이는 노화는 질병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환경을 바꾸며 나아갈 능력이 있으며 죽음도 그 변화가능한 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노화 치료 연구, 트랜스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있다.

과학자들은 노화 치료 연구를 통해서 노화와 관련된 텔로머라아제 효소를 발견하였다. 항노화 연구자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도록 보존한다면 세포가 젊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포 노쇠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절염, 알츠하이머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재생시켜 세포나 조직, 장기를 이식하는 방법과 체내의 세포를 젊게 만드는 연구를

90) 이브 헤롤드,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2020)』,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227p.

91) 데이비드A.싱클레어, 메슈D.러플랜트, 『노화의 종말(2020)』, 부키.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과학자 수렌 세갈이 발견한 라파마이신을 사용한 약물은 유방암 등의 치료에 효과를 보였으며 심장병과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의 발생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듯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법을 찾는 것은 물론, 노화 자체를 방지, 지연하는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sup>92)</sup>

그 외에 과학기술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을 만들겠다는 발상인 트랜스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트랜스휴먼’이 등장하였다. 트랜스휴먼의 예시로 영화 <공각기동대> 속의 뇌를 제외한 모든 신체가 기계인 인간, 즉 기계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형태의 인간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트랜스휴먼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극복해내는 것이다. 현재 개발된 기술 중에서는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의족인 바이오닉 의족, 노안이 온 눈의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수정체를 이식한 것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연구는 인류가 노화로 인해 망가진 신체를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통해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더욱 발전된다면 영원히 젊고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은 개인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경제학자 대너 골드먼은 노화지연이 된다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을 연구하고 예방하는 데 투입하는 자본이 감소하며 새로운 노동층의 확보로 미국에서만 7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여성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시간 외에도 많은 시간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모두의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린아이가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어 양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질 것이며 이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매우 특별한 일을 위한 휴직으로 여겨지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 III. 인문·사회학자들이 바라본 죽음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

“친구여, 우리는 일생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하네. 그런데 훨씬 더 놀라운 일은 우리는 일생 동안 계속 죽는 방법도 배워야만 하는 거라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sup>93)</sup>

인문·사회학자들은 죽음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삶에서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므로 피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함께 생활하던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인을 떠나보내었으나 현대에는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 마지막까지 연명치료 실시한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중환자실의 특성과 아이에게 주사바늘을 꽂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그 현장에서 배제하는 것을 통해 인간은 죽음을 차갑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죽음과 두려움의 관계성은 그저 환경에 의해 형성된 허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피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노화를 방

92) 이브 헤롤드,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2020)』,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223p.

93) EBS미디어 기획, 『EBS 다큐프라임 생사 탐구 대기획』, 죽음, 책담.

지할 수는 있겠으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것이 분명하며,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으므로 그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죽음을 통해 인간의 삶은 유한성을 갖게 되었고, 인간은 그 시간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인간은 살아가는 시간 동안은 물론,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는 여유로운 경제적인 요건이다. 즉,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모두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직업을 갖고 일한다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은 낙관적인 예측일 뿐이다. 노동시장은 이미 자동화에 의해서 축소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나라가 늙어 감에 따라 경제 성장이 느려질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퇴직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에 더불어 심리적인 만족감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죽음이 없는 영생을 살게 된다면 인간은 삶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끝이 없는 시간 동안 해야 할 무언가를 찾아야 하겠으나, 그게 무엇이든 영원히 반복된다고 하면 지겹지 않을 리가 없다.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찰나일 뿐이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흐르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죽음은 그 존재로 삶을 아름답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 전체의 수명연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져온다. 먼저, 지구의 "환경 수용력"을 들 수 있다. 사망하는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식량과 주거지는 인류가 지구의 환경 수용력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증가한 인구에 따른 증가된 소비가 폐기물의 양을 늘리고 종래에는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문제에 기여할 것이다. 이미 현재에도 환경오염은 심각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재앙 닥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구의 증가는 그것을 가속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노화 없이 장수하기 위한 금액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을 고려하면 경제 수준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 '수명 양극화'현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빈곤층이 고소득층보다 약 10년 정도 더 빨리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sup>94)</sup> 이는 아프지 않고 장수할 가능성에 있어서 노화된 장기를 교체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그렇지 못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리한 조건임이 명백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상용화된 사회의 모습을 그린 영화 <가타카> 속에서는 생물학적인 출발선이 다름으로 인해 계급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부유함과 빈곤함의 차이가 단순한 경제적인 조건의 차이가 아닌 그 사람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결정하는 사회는 긍정적인 미래라고 할 수 없으며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 IV. 죽음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시각과 인문·사회학자들의 시각에 대해 다뤄보았다. 과학자들은 죽음은 노화라는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노화 치료를 통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인문·사

94) 김기성 기자, "英 기대수명, 양극화 심화...극빈층 여성 수년 새 줄기도", 한국경제TV, 2018.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181123074700009>

회학자들은 죽음이 존재함으로 인해 인간은 삶에 가치를 둘 수 있다고 말하며, 인간은 단순히 무병장수 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누려야 하고, 장수는 오히려 그것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수명이 연장될 것임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우리는 영생을 선택할 수 없을뿐더러, 인문·사회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영생은 갈망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죽음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 자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노화와 쇠약의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의 상실을 경험한다. 그렇게 천천히 건강, 지혜, 때로는 인간관계까지 앗아가는 죽음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코앞으로 다가온다. 고장난 육체와 알츠하이머 등으로 자신을 잃은 채 주변에 안녕을 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달아나기 위해 노력해 오던 것의 실체일 것이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다. (...)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는 비참함과 슬픔에 사로잡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법의학자 유성호<sup>95)</sup>

결국 죽음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준다. 따라서, 진정으로 바라는 이상적인 죽음은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맞이하는 죽음일 것이다. 인간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기 위해 의학을 연구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최소한의 상실을 겪기 위해 기술과 과학이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안락사 허용’과 같은 자연스러움과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논쟁이 발생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논쟁들에 대해 풍부한 토론을 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며 존엄성을 잃지 않은 채 죽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도 나는 임종실에서 하루를 연다. 하지만 그들과의 이별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호스피스 의사 김여환<sup>96)</sup>

학문마다, 사람마다 죽음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그들이 중요가치로 두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죽음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죽음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들며,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냐는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 동안 무엇을 이뤄내고 얻어낼 것인지의 고민을 통해 죽음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길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자신의 목표에 대한 고민을 반복하고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수명연장기술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명작 <멋진 신세계> 속 문명 세계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탄생부터 삶, 죽음까지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심지어는 세계 총통 무스타파 몬드는 과학조차도 재갈을 물리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 자신의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과학자들의 주장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야만인 존은 문명 세계의 모습에 환멸감을 느끼고 늙을 권리와 죽을 권리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통해 인문·사회학자들과 주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올더스 헉슬리가 문명 세계를 설계

95) 유성호,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2019)』, 21세기북스.

96) 김여환,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2012)』, 청림출판.

할 때 이 두 측면의 고민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부터의 젊음을 유지하면서 예순 정도가 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설정은<sup>97)</sup> 노화로 인한 상실을 겪게 하지 않으면서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 또한 해소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술은 수명연장보다는 노화치료에 가깝긴 하지만 두 측면의 주장을 모두 만족했다는 면에서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을 인간적으로 대우한 것이 아닌 도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도달한 미래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실제 우리 사회는 개인이 존엄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가치 있는 죽음, 즉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명작 <멋진 신세계> 속의 도구로서의 인간이 아니며, 소설 <걸리버 여행기> 속의 노화는 그대로 진행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스트럴드블럭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죽음을 위해 상호 간의 토론을 지속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명연장기술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명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노화 치료라는 직접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도 영양분이 풍부한 식량의 증가, 안전한 주거환경과 같은 간접적인 요인들 또한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다. 수명연장기술은 그 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의미함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그것이 야기할 혼란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문·사회학자들이 우려하는 수명연장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고려한 대안책과 그 배경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인공적인 기계가 결합된다면 인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 불치병을 겨냥한 유전자 편집 기술의 개발은 어디까지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가? 인간의 복제가 가능해진다면 나 자신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라는 질문들이 그것일 것이다. 그 토론의 끝에 수명연장기술은 삶의 유한성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생명에 있어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경각심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97) 올더스赫슬리, 『멋진 신세계(1998)』, 문예출판사, 139p.

## 참고문헌

-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1998)』, 문예출판사  
이브 헤롤드,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2020)』,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데이비드A.싱클레어, 메슈D.러플랜트, 『노화의 종말(2020)』, 부키.  
EBS 미디어 기획, 『EBS 다큐프라임 생사 탐구 대기획』, 죽음, 책담.  
유성호,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2019)』, 21세기북스.  
김여환,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2012)』, 청림출판.  
셸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2012)』, 엘도라도.  
김기성 기자, "英 기대수명, 양극화 심화...극빈층 여성 수년 새 줄기도", 한국경제TV, 2018.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181123074700009>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장려상

존재와 역사 명작 세미나

### 한국의 세계시민 교육과 현실

- 통합사회 교과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이윤하

---

I. 머리말

II. 칸트의 세계시민사회론

III. 통합사회 교과의 세계시민 교육

IV. 세계시민 교육의 한계와 대안

V. 맺음말

참고문헌

## I. 머리말

우리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한정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경이라는 장벽이 약화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노력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 교육에서도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사회과교육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을 강조하였다.<sup>98)</sup> 그러나 최근에는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시민, 국가를 넘어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세계화와 및 개방화 시대의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즉 세계시민이 주목받고 있다.<sup>99)</sup> 특히 빨라지는 사회의 변동 속도에 알맞고 변화된 사회에 적합한 민주 시민의 양성을 위해 사회과에서는 통합사회 교과목이 신설되었다.<sup>100)</sup>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시민사회 교육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관심의 대상이다. 세계시민교육의 토대는 칸트에게서 발견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세계시민주의는 루소의 평화사상, 엠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토대를 잡고 있으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국제이해교육 사업과 세계시민교육은 칸트의 세계시민공동체 논의에서 사상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01)</sup>

본고는 칸트가 주장한 세계시민사회론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현재 한국의 세계시민 교육의 현실에 대해 통합사회 교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다음 한국의 세계시민 교육의 한계를 논하겠다. 마지막으로 칸트가 주장한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의 변화상을 고민할 것이다.

## II. 칸트의 세계시민사회론

칸트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 9개의 명제를 통해 세계시민사회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칸트는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해결을 강요하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보편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의 건설이다.”<sup>102)</sup>라고 주장했다. 칸트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만 정의로운 공적인 정의의 지배자를 찾는 과제가 어려워 가장 나중에 해결될 문제였다.<sup>103)</sup>

그리고 칸트는 세계시민사회 형성의 주요 수단으로 반사회적 사회성을 강조하였다. “반사회적 사회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 살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립해서 자신의 의도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대립되는 소질”이다.<sup>104)</sup> 반사회적 사회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98) 차경수·모경환, 『사회과교육』, 동문사, 2017, pp.80-82.

99) 차경수·모경환, 위의 책, p.82.

100) 옥일남, 「2015 개정 교육과정기 ‘통합사회’ 개발 과정과 쟁점」, 『교육과정평가연구』 19권 2호, 2016, p.50.

101) 김진희,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이론과 쟁점』, 박영스토리, 2019, p.19.

102) I.Kant, 이한구 편역,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9, p.31.

103) I.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p.32-33.

104) I.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194.

각 개인이 가진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개인 간의 경쟁과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끊임없는 항쟁이 일어난다. 항쟁을 통해 인간의 자연적 소질인 이성이 계발되고 인류의 모든 문화와 기술 및 사회적 질서가 형성된다.<sup>105)</sup>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는 국제 연맹이 창설되어 모든 국가가 안전성과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도록 한다.<sup>106)</sup> 즉, 인류는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평형의 법칙을 찾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는 세계 시민적 상태에 도달한다.<sup>107)</sup>

세계시민사회가 형성되기까지의 무법상태는 고통과 시련을 유발하며, 형성된 세계시민사회를 누리는 것도 최후의 세대에 불과하겠지만, 인간이 가진 성향으로 인해 필요악인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인간이 강조된다.<sup>108)</sup> 이는 세계시민사회가 인류의 노력 없이 형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칸트의 주장처럼 세계시민사회가 ‘국제 연맹’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국가 연맹을 통해 평화적 세계질서가 형성된다면 각국의 시민은 자국의 법적 질서를 통해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에 의해 이러한 지위를 위협받지 않을 수 있다. ... 각국의 국민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면 국가 내부에서 민족들 간의 지배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단일 국가 내에서는 각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9)</sup>

국제 연맹이 아닌 방법으로도 세계시민사회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칸트가 국제 연맹을 통한 세계시민사회를 강조한 이유는 각국의 독자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국가 사이의 존중은 칸트의 세계시민사상에 보이는 현대적 의의로 거론될 정도이다. “이 연맹은 특정 국가가 권력을 획득하는 목적에 이바지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국가들 서로의 자유를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sup>110)</sup> 이는 야만의 무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간의 연맹을 맺도록 하지만<sup>111)</sup> 반사회적 사회성으로 인해 형성된 인간들의 모든 문화와 그 문화의 특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존중하는 세계시민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 III. 통합사회 교과와 세계시민 교육

통합사회는 세계시민사회의 변화 흐름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올바른 세계시민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고민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 내용은 글로벌 지식 정보 사회에서의 개인에게 필요한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 사회, 세계의 현상에 대해 통합적으로 탐구하며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

105) I.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p.26-32.

106) I.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p.34-35.

107) I.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p.195-196.

108) 문성훈, 「칸트의 세계시민사회이념과 인정」, 『칸트의 역사철학』 19호, 2010, p.193.

109) 문성훈, 앞의 논문, pp.204-206.

110) 김석수, 「칸트 세계시민사상의 현대적 의의」, 『칸트연구』 14호, 2004, p.232.

111) I.Kant, 이한구 편역,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9, p.35.

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sup>112)</sup> 통합사회는 이론만을 강조하는 학습이 아니라 다양한 탐구 활동들을 제공하여 학생의 능력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먼저 이론적 측면을 고찰한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의 세계시민 정체성 관련 내용은 국가 정체성 관련 내용의 3배 이상의 비중으로 나타났고 교과서 전체 중에서도 27.9%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양적 우위를 보인다.”<sup>113)</sup>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단원명을 살펴보면, ‘문화와 다양성, 세계화와 평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sup>114)</sup>의 3개 단원에서 ‘세계’가 주요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영역에서 세계시민 교육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프로젝트 학습] 세계의 다양한 문화 이해하기”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대함에 있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15)</sup> 이는 틀림이 아닌 다름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하여 문화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화상대주의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비교 활동을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한, “[생각을 키우는 활동]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수용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활동에서는 세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 자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16)</sup> 이는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주체성을 갖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합사회 교과목은 이론과 활동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함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삼고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교육의 중점이다. 이러한 교육은 주체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세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사회의 도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IV. 세계시민 교육의 한계와 대안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 등장한 통합사회는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세계시민 의식을 교육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고민거리이다. 그 이전에도 문화상대주의나 세계시민에 대한 교육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53.4%가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였다. 특히 20대에서는 6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sup>117)</sup> 물론 예멘의 난민 수용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므로 핵심 원인을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여 세계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 등의 다양한 가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많다는 것은 그 교육이 짧은 기간의 인지적

112)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2015, pp.119-120.

113) 변강주,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국가 정체성과 세계시민 정체성 내용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8, p.36.

114) 박병기·박철웅·이영호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018, p.7.

115) 박병기·박철웅·이영호 외, 위의 책, p.219.

116) 박병기·박철웅·이영호 외, 위의 책, p.263.

117) 강혜진, <응답자 절반 이상(53.4%),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반대>, 《크리스천 투데이》, 2018.07.05.

차원에만 머무르고 가치와 행동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sup>118)</sup> 이는 세계 시민사회만을 강조하는 지식 전달에 치중한 결과로 실제 상황에서 개인과 세계라는 가치가 양립할 경우 합당한 선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개인 중심적 가치와 세계시민의 보편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 정립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sup>119)</sup> 즉,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 난민 문제가 우리와 밀접한 세계시민의 문제임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20)</sup> 통합사회 교과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3장에서 설명한 [생각을 키우는 활동]은 한 가지 신문 기사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례가 아닌 유럽의 사례를 들고 있을 뿐이다.<sup>121)</sup> 이론과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사회 교과목의 특성은 한정된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의 사고를 확장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의 풍부함이다. 이는 학생들의 사고를 더 넓고 깊게 확립시켜 준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제공되는 사례는 한국의 사례를 활용해 나의 삶과 연결된 문제이자 인류의 문제임을 깨닫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족한 정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지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스스로 찾도록 하여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업은 학생들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유나 가치를 결정할 때 논리적 이유를 충분히 밝히도록 가치 분석 접근법을 활용해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sup>122)</sup> 이는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세계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성이 융합된 지식의 제공을 통해 가치 충돌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교육적 토대이다.<sup>123)</sup>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종이나 제3세계의 차별 문제도 교육의 실효성과 관련된다. 칸트의 세계시민사회에서는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존중된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에서는 나라별 문화적 정체성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차별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법률 제정, 캠페인 시행 등과 같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다.<sup>124)</sup> 심지어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조차 사용되었다.<sup>125)</sup> 추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논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실제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18) 김진희,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이론과 쟁점』, 박영스토리, 2019, pp.128-129.

119) 허수미, 「세계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교육의 역할과 수업개선 방안: 제주난민문제에 드러난 시민교육의 한계를 중심으로」, 『사회과 수업연구』 6권 2호, 2018, p.31.

120) 김진희,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이론과 쟁점』, 박영스토리, 2019, p.133.

121) 박병기·박철웅·이영호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018, p.263.

122) 차경수·모경환, 『사회과교육』, 동문사, 2017, p.300.

123) 허수미, 「세계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교육의 역할과 수업개선 방안: 제주난민문제에 드러난 시민교육의 한계를 중심으로」, 『사회과 수업연구』 6권 2호, 2018, p.32

124) 조민주,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9, pp.86-87.

125) 조민주, 위의 논문, pp.87-88.

## 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칸트의 세계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통합사회 교과목에서 세계시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한계와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계시민사회의 흐름에 맞춰 통합사회 교과목이 등장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과 활동적 측면에서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세계의 안전보다는 ‘나’의 안전과 권리만을 존중하는 범주에 멈춰있다. 물론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난민 문제와 같은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학생이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세계시민사회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칸트가 세계시민사회에서 인류의 노력을 강조하였듯이 교육의 변화에도 인류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시민주의 교육은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더 나은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진희,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이론과 쟁점』, 박영스토리, 2019.
- 박병기·박철웅·이영호 외 9명,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018.
- 차경수·모경환, 『사회과교육』, 동문사, 2017.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2015.
- 김석수, 「칸트 세계시민사상의 현대적 의의」, 『칸트연구』 14호, 2004.
- 문성훈, 「칸트의 세계시민사회이념과 인정」, 『칸트의 역사철학』 19호, 2010.
- 변강주,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국가 정체성과 세계시민 정체성 내용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8.
- 옥일남, 「2015 개정 교육과정기 ‘통합사회’ 개발 과정과 쟁점」, 『교육과정평가연구』 19권 2호, 2016.
- 조민주,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9.
- 허수미, 「세계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교육의 역할과 수업개선 방안: 제주난민문제에 드러난 시민교육의 한계를 중심으로」, 『사회과 수업연구』 6권 2호, 2018.
- I.Kant, 이한구 편역,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9.
- 강혜진, 〈응답자 절반 이상(53.4%),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반대〉, 《크리스천 투데이》, 2018.07.05.

# DHARMA COLLEGE

2020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 경진대회

## 장려상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

### 『외투』와 『필경사 바틀비』의 공통점과 그 안에서 본 새로운 해석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박윤진

---

I. 서론

II. 작은 인간

III. 꿈과 용기

IV. 결론



## I. 서론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세한 부분을 살피지 않아도 쓸쓸한 회색빛 도시가 떠오르는 분위기와 한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주인공의 공통점은 두 작품을 함께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각 작품의 주인공인 아카키와 바틀비는 서기와 필경사로 글을 옮겨 쓰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며 작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심지어 둘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두 주인공의 공통점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겠다. 주인공의 특징을 바탕으로 두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작품이다. 따라서 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외투』와 『필경사 바틀비』를 서술하려 한다.

## II. 작은 인간

작은 인간은 사회의 계층적 위계질서 속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며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의해 심리나 행위가 제약된 인물 유형으로 정의된다. 『외투』의 주인공인 아카키와 『필경사 바틀비』의 주인공인 바틀비는 모두 작은 인간에 속한다.

아카키는 만년 9등관으로 하급관리이다. “관청에서는 누구 한 사람 그에게 존경을 표시하지 않았다. 수위들은 그가 앞을 지나가도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지 않을뿐더러, 마치 파리 새끼가 하나 날아가기라도 한 듯이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다.”<sup>126)</sup>라는 부분을 보면 아카키는 상당히 낮은 지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젊은 관리들도 그를 조롱하기도 한다. 바틀비 또한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데 “딱한 느낌이 들 만큼 예의 바르고, 누구도 어떻게 해 줄 수 없을 만큼 쓸쓸해 보이는! 그가 바로 바틀비였다.”<sup>127)</sup>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바틀비는 고용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내기도 하고 눈이 나빠지기도 한다. 아카키와 바틀비 모두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금전적으로도 부족한 소외된 사회계층에 속하는 것이다.

아카키와 바틀비는 모두 서기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둘은 직업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태도 또한 닮았다. “짓곳은 조롱 속에서도 그는 서류에 글자 하나 틀리게 쓰는 일이 없었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만큼 자기 직무에 충실해 온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sup>128)</sup> 라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카키는 서기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였다. 하지만 그는 한 국장이 그에게 포상하기 위해 평소에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을 맡겼지만 평범한 공문서 정서 수준의 일에만 두각을 보였고 영원히 정서하는 일만 하게 되었다. “처음에 바틀비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서류를 베껴 썼다. 그는 베껴 쓰는 일에 오래도록 굶주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내 서류들을 허겁지겁 집어삼켰다. …… 하지만 그는 조용히, 무미건조하게, 기계적으로 일했다.”<sup>129)</sup>라는 장면과 “꾸준하고 어떤 유희이나 방종에도 휩쓸리는 일 없이 늘 근면하다는 점, 대단히 조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는 내가 얻은 소중한 자원이었다.”<sup>130)</sup>라는 부분을 보

126) 고골리, 『외투 - 우리시대의 세계문학 003』, 계몽사, 2017, p6.

127) 허먼 멜빌, 『허먼 멜빌: 선원, 빌리 버드 외 6편-세계문학단편선17』, 김훈, 현대문학, 2015, p19.

128) 고골리, 『외투 - 우리시대의 세계문학 003』, 계몽사, 2017, p7-8.

129) 허먼 멜빌, 『허먼 멜빌: 선원, 빌리 버드 외 6편-세계문학단편선17』, 김훈, 현대문학, 2015, p20.

면 바틀비 또한 베풀어 쓰는 일을 열심히 하였으며 일에만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수동적이고 제약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성격 또한 비슷해 보인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가끔 내밀어지는 손길들도 존재한다. 아카키에게는 본인을 내버려 두라고 하는 말에 그를 놀리는 것을 멈춘 새로 임명된 청년 관리와 아카키가 아플 때나 평소에 조금씩 도움을 준 집 주인이 그 손길에 해당하며, 바틀비에게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사무실에서 지내도록 허락하거나, 고향에 돌아간 뒤에도 도움을 주려는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아카키와 바틀비 모두 그들의 작은 손길에도 살아남기 힘든 매우 작은 사람에 불과하였다. 본문 자체를 넘어 글에 반영된 사회를 보면 『외투』는 러시아 사회의 관료주의와 속물성을 담고 있으며 『필경사 바틀비』는 미국의 삭막한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결국, 아카키와 바틀비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뒤처지고 심지어 다른 이의 선의에도 구제될 수 없는 작은 인간에 불과한 인물이다.

### Ⅲ, 꿈과 용기

『외투』에서는 ‘외투’가 『필경사 바틀비』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라는 주인공의 대사가 해석의 핵심 요소가 된다. 필자는 외투를 아카키의 ‘꿈’으로 바틀비의 저항을 ‘용기’로 해석하려 한다.

아카키는 여가를 즐기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아무런 오락도 찾지 않는다. 책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향락을 찾고 있는 그런 시간에도,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어떠한 오락에도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sup>131)</sup>고 표현한다. 이처럼 아카키는 외투를 갖기 전에 베풀어주는 일 외에는 어떤 흥미도 느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중 그는 낡은 외투를 수선하지 못하고 새 외투를 마련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 처음에 아카키는 이를 나쁜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sup>132)</sup>이라며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에게는 새 외투를 맞출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외투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는다. 1년간 일상 경비를 바짝 줄이기로 하며 홍차도 마시지 않고, 촛불도 켜지 않으며, 구두 바닥이 빨리 닳지 않도록 돌로 포장한 길에서는 살금살금 걷기도 하고, 세탁비를 줄이기 위해 집에 돌아오면 옷을 다 벗어 버리고 무명 잠옷 하나만 입고 있기도 한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아카키는 저녁을 굶고 지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른다.<sup>133)</sup> 처음에 그는 외투를 나쁜 꿈이라고 여겼지만, 그 꿈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쏟는다. 실제로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페트로비치를 찾아가 옷감을 어디서 살 것인지, 나사의 빗갈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등 외투에 관한 의논을 했으며 나사점에 들러 가격을 알아보기도 했다.<sup>134)</sup> 이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며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현실에서도 가난한 이에게 꿈은 사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카키에게 새 외투가 벽찬 존재였지만 이를 위해 돈도

130) 허먼 멜빌, 『허먼 멜빌: 선원, 빌리 버드 외 6편-세계문학단편선17』, 김훈, 현대문학, 2015, p27.

131) 고골리, 『외투 - 우리시대의 세계문학 003』, 계몽사, 2017, p12.

132) 고골리, 『외투 - 우리시대의 세계문학 003』, 계몽사, 2017, p21.

133) 고골리, 『외투 - 우리시대의 세계문학 003』, 계몽사, 2017, p25-26.

134) 고골리, 『외투 - 우리시대의 세계문학 003』, 계몽사, 2017, p27.

아끼고 여러 노력을 하며 그에게 소중한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외투를 갖게 된 후에도 외투를 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페트로비치가 다 만든 외투를 가지고 온 날을 아카키 생애에서 최고의 날이라고 말하며 외투를 입고 나간 그는 순간마다 어깨에 새 외투의 감촉을 느끼며 마음이 흡족하여 몇 번이나 혼자서 미소를 짓는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수위에게 외투를 맡길 때 그는 잘 간수해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한다.<sup>135)</sup> 이는 달성한 목표이자 이룬 꿈을 소중하고 뿌듯하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두가 그의 새 외투를 축하해주는 것 또한 꿈을 이룬 사람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릴 수 있다. 심지어 아카키가 외투를 빼앗겨 죽는 모습에서도 외투를 꿈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를 축하해준다면 열린 파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긴 그의 모습을 꿈을 갖게 된 그가 이전보다 즐기는 삶을 살지만, 외부세력에 의해 꿈을 뺏기고 마는 것이라는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카키는 외투를 찾기 위해 돌고 돌아 서장을 거쳐 고관까지 찾아가게 된다. 그 고관은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자기 위치를 더욱 대단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적당한 관등의 인물에게 사건을 보고하도록 하는 관료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그에게 찾아간 아카키는 그의 호통에 겁을 먹고 망연자실하여 집으로 돌아간 뒤 죽음에 이르고 만다. 그렇게 아카키는 잃어버린 자신의 꿈을 되찾으려하지만, 9등관인 그의 지위 즉 그런 냉혹한 현실에 꿈이 아닌 그 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수동적이었던 그가 자신의 의지로 처음 갖게 된 꿈을 외부세력에 의해 잃게 되고 결국 가난한 자는 꿈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그가 죽은 뒤 외투를 빼앗는 유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관료주의의 피해자로서 꿈을 빼앗긴 그가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이 죽어서까지 표현되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자신의 꿈을 잃고 끝까지 되찾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아카키의 외투는 결국 그의 꿈이었던 것이다.

바틀비는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과 요구에 늘 ‘I would prefer not to.’ 라고 답한다. 그가 처음 그 말을 사용한 것은 서류를 대조하는 작업을 거절한 것에서 시작했다. 그것을 들은 그를 고용한 변호사는 처음엔 몹시 흥분했으나 계속되는 바틀비의 거절에 변호사는 격노에 휩싸이기보다 자신을 무장 해제 시켰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바틀비를 “내가 말하는 동안 그는 내 모든 말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되씹고 있는 듯 했다.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도 당연한 그 결론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도 같았다”<sup>136)</sup>라고 설명한다. 이는 바틀비의 제안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절이 단순한 저항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저항을 겪으며 변호사가 느낀 감정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이 전례가 없는 데다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방식의 위협을 받으면 자신이 지닌 너무나 자명한 확신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랬다. 이를테면 자신의 확신이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모든 정의와 이치가 그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역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건과 무관한 제삼자들이 곁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의지하여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들게 마련이다.”<sup>137)</sup>라며 변호사는 바틀비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낀다. 그를 이루는 본질이 흔들리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하는 다른 이들에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을 건넨다. 이는 혼자서 생각하며 자신의 본질을 지키고

135) 고골리, 『외투 - 우리시대의 세계문학 003』, 계몽사, 2017, p29-30.

136) 허먼 멜빌, 『허먼 멜빌: 선원, 빌리 버드 외 6편-세계문학단편선17』, 김훈, 현대문학, 2015, p21.

137) 허먼 멜빌, 『허먼 멜빌: 선원, 빌리 버드 외 6편-세계문학단편선17』, 김훈, 현대문학, 2015, p21.

꾸준히 거절과 저항을 이어가는 바틀비와 반대되는 모습이다.

바틀비에 대한 다양한 이론가들과 철학자들의 비평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 아감벤은 자신의 저서 거의 모든 곳에서 바틀비를 언급한다. 그는 바틀비에게서 벌거벗은 생명을 만들어 내는 탈근대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권 행사인 ‘부정의 잠재성’을 발견했다. 부정의 잠재성이란 잠재성을 주체 스스로 현실태로 옮기지 않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잠재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바틀비의 “~하지 않는 것을 하렵니다”가 바로 “~이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부정과 무위의 잠재성이 된다.<sup>138)</sup> 바틀비의 정형어구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 선택에서 벗어난 잠재성의 존재 방식이다. 바틀비가 보여주는 수동성은 주체에게 현실의 다기한 관계망에서 물러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이며, 이런 망 속에 포섭되지 않고 남겨진 공간, 다름 아닌 간극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sup>139)</sup> 지젝은 바틀비를 통해 자신의 주요 개념인 부정성을 설명한다. 바틀비는 자신의 극단적 거부를 통해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킨다. 지젝의 바틀비는 단순히 거부와 저항의 상징적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틀비는 정작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젝은 바틀비의 언술에서 술어를 부정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지젝에 따르면, 바틀비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들을 실행하지 않기를 선호하는 것이다.<sup>140)</sup> 이처럼 바틀비의 거부는 단순히 거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외된 인간인 바틀비는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저항을 다 한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에서 버티다 교도소에 들어간 그는 교도소에서조차 저녁을 거부하며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그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고 무식한 용기가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가 추구하는 대로 따르기 마련이다. 계급사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무실에서 바틀비는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서기가 변호사의 말을 따라야 하는 사회 관습과 달리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는 용기를 보인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조직 내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바틀비의 그러한 저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용기로 해석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바틀비는 단순히 계급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호를 검토한 후 의사를 표한다. 현재 사회의 진로와 취업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면 요즘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는 취업이 잘 되는 의료계이다. 그들은 본인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바틀비의 저항을 이에 적용해보면 누군가 바틀비에게 이런 진로를 택하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물을 때 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저항은 이미 용기라는 것을 담고 있기도 하고, 바틀비가 그가 처한 현실에서 낼 수 있는 자신만의 목소리가 그러한 거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바틀비의 저항은 용기인 것이다.

138) 윤교찬, 「부정과 중단의 미학-아감벤의 바틀비론」, 『영어영문학21』 26(2013):73-94.

139) 정윤희, 「잠재성의 소유자들과 시대를 향한 선언」, 『카프카연구』 30(2013):79-102.

140) 정진만,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에 나타나는 부정성」,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2012):11-24.

#### IV. 결론

『외투』와 『필경사 바틀비』는 작은 인간의 특징을 가진 주인공을 중심으로 계층적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된 하위 계층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카키에게는 외투가, 바틀비에게는 저항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각 꿈과 용기를 볼 수 있었다. 아직 자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필자 또한 보이지 않는 계급 속 하위 계층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카키와 바틀비처럼 꿈과 용기를 가진 경험이 있는데 첫 번째 입시에서는 바틀비와 달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를 택하고자 했다. 타인의 권유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교육 분야를 선택했다. 하지만 입시에서 실패한 후, 다음 해 두 번째 입시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공학 분야를 선택했다. 해당 분야에 진학하고 나니 그 길이야말로 취업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남들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바틀비처럼 용기를 갖고 생각해보았다. 나만의 길을 생각하고 나니 교육 분야가 내가 원하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교육과에 진학하기 위해 아카키처럼 많은 노력을 쏟았다. 아카키와 바틀비가 닮아 있듯이 꿈과 용기 또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방황을 할 것이다. 그들에게 ‘외투’와 ‘I would prefer not to.’가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고콜리, 『외투 - 우리시대의 세계문학 003』, 계몽사, 2017
- 허먼 멜빌, 『허먼 멜빌: 선원, 빌리 버드 외 6편-세계문학단편선17』, 김훈, 현대문학, 2015,
- 윤교찬, 「부정과 중단의 미학-아감벤의 바틀비론」, 『영어영문학21』 26(2013):73-94.
- 정윤희, 「잠재성의 소유자들과 시대를 향한 전언」, 『카프카연구』 30(2013):79-102.
- 정진만,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에 나타나는 부정성」.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12):11-24.